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0137

2010년 8월

박사학위논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관련변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전 영 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관련변인

Relationships and Related Variables of Self-Concept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2010년 8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전 영 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관련변인

지도교수 이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전 영 희

전영희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金永日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연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 (인)

심사위원 고구려대학 교수 곽 수 란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승 희 (인)

2010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목차 ····· v
그림목차 ····· viii
ABSTRACT ····· ix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6
3. 용어의 정의 ····· 7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 12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 12
2)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태 ····· 15
3)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 ····· 18
2. 청소년의 자아개념 ····· 20
1) 자아개념의 정의 ····· 20
2) 청소년 자아개념의 특성 ····· 23
3) 청소년 자아개념의 관련요인 ····· 24
3.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 26
1) 청소년기의 특성 ····· 26
2) 정서·행동문제의 개념 ····· 30
3) 정서·행동문제의 원인 ····· 38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정서·행동문제 관련 선행연구 ··· 47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관련 선행연구 ····· 48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관련 선행연구 ····· 50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 관계 선행연구 51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관련변인 선행연구 ····· 53
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관련변인 선행연구 ····· 56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 61
2. 연구대상 ····· 61
3. 연구도구 ····· 64
1) 기초사항 질문지 ····· 64
2) 청소년 자아개념 측정도구 ····· 64
3)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 ····· 65
4. 연구절차 ····· 67
5. 자료분석 ····· 69

Ⅳ. 연구결과

1. 자아개념의 정도와 수준 ····· 72
1) 자아개념의 정도 ····· 72
2) 자아개념의 수준 ····· 73
2.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와 유형 ····· 75
1)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 75
2) 정서·행동문제의 유형 ····· 77
3. 자아개념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78
1) 언어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 78
2) 수학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 79
3) 일반교과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 80
4) 신체외모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 81
5) 신체능력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 82
6) 동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 83

7) 이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 84
8) 부모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 85
9) 정직/신뢰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 86
10) 정서적 안정성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 87
11) 일반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 88
12) 전체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 89
4.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 90
1)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의 상관분석 ····· 90
2)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의 중다회귀분석 ····· 92
5.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 101
1)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의 상관분석 ····· 101
2)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의 중다회귀분석 ····· 103

Ⅴ. 논의

1. 자아개념의 정도와 수준 ····· 111
1) 자아개념의 정도 ····· 111
2) 자아개념의 수준 ····· 112
2.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와 유형 ····· 113
1)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 113
2) 정서·행동문제의 유형 ····· 114
3. 자아개념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115
1) 언어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115
2) 수학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115
3) 일반교과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116
4) 신체외모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116
5) 신체능력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117
6) 동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117

7) 이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118
8) 부모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118
9) 정직/신뢰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119
10) 정서적 안정성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119
11) 일반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119
12) 전체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 120
4.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 121
1)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 121
2)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의 예측관계 ····· 124
5.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 125
1)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 125
2)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의 예측관계 ····· 128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 131
2. 제언 ····· 134

참고문헌 ····· 136

부록 ····· 149

표목차

<표 Ⅱ-1>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 13
<표 Ⅱ-2> 시도별 농림어업 종사자와 외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 14
<표 Ⅱ-3> 전라남도 시·군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 ····· 15
<표 Ⅱ-4> 어머니가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시·도별 학교 급별 현황 ··· 16
<표 Ⅱ-5> 학교 급별 다문화가정 학생수 현황 ····· 17
<표 Ⅱ-6> 시군별 다문화가정 학생수 현황 ····· 17
<표 Ⅱ-7> 모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학생수 현황 ····· 18
<표 Ⅱ-8>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처음 진단되는 DSM-Ⅳ장애들 ····· 35
<표 Ⅱ-9> CBCL-YSR에 공통되는 8가지 증후군과 대표 문항 ····· 37
<표 Ⅱ-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관련 선행연구 ····· 48
<표 Ⅱ-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관련 선행연구 ····· 50
<표 Ⅱ-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 관계 선행연구 · 52
<표 Ⅱ-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관련변인 선행연구 ····· 54
<표 Ⅱ-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관련변인 선행연구 ····· 57
<표 Ⅲ-1> 연구대상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62
<표 Ⅲ-2> 대상 학생과 가족의 기초사항 ····· 63
<표 Ⅲ-3> 청소년 자아개념척도의 내적합치도 ····· 65
<표 Ⅲ-4> 청소년 문제행동증후군척도의 내적합치도 ····· 66
<표 Ⅲ-5> 질문지 회수상황 ····· 68
<표 Ⅲ-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관련변인 자료처리 ····· 70
<표 Ⅲ-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및 관련변인자료처리 ·· 71

<표 Ⅳ-1>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 73
<표 Ⅳ-2> 척도별 급간에 따른 빈도와 비율 ····· 74
<표 Ⅳ-3>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 75
<표 Ⅳ-4> 척도별 임상범위의 빈도와 비율 ····· 76
<표 Ⅳ-5> 정서·행동문제의 유형별 비율 ····· 77
<표 Ⅳ-6> 언어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 78
<표 Ⅳ-7> 수학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 79
<표 Ⅳ-8> 일반교과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 80
<표 Ⅳ-9> 신체외모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 81
<표 Ⅳ-10> 신체능력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 82
<표 Ⅳ-11> 동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정도 차이 분석 ··· 83
<표 Ⅳ-12> 이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 84
<표 Ⅳ-13> 부모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 85
<표 Ⅳ-14> 정직/신뢰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 86
<표 Ⅳ-15> 정서적/안정성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 87
<표 Ⅳ-16> 일반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 88
<표 Ⅳ-17> 전체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 89
<표 Ⅳ-18> 자아개념의 정도와 관련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 91
<표 Ⅳ-19> 언어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93
<표 Ⅳ-20> 수학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93
<표 Ⅳ-21> 일반교과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94
<표 Ⅳ-22> 신체외모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95

<표 Ⅳ-23> 신체능력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95
<표 Ⅳ-24> 동성친구관계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96
<표 Ⅳ-25> 이성친구관계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97
<표 Ⅳ-26> 부모관계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97
<표 Ⅳ-27> 정직/신뢰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98
<표 Ⅳ-28> 정서적/안정성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99
<표 Ⅳ-29> 일반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99
<표 Ⅳ-30> 전체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100
<표 Ⅳ-31> 정서·행동문제 8개하위척도 및 내재화문제, 외현화 문제, 총문제행동척도와 관련변인간의 상관분석결과 ····· 101
<표 Ⅳ-32> 위축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103
<표 Ⅳ-33> 신체증상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104
<표 Ⅳ-34> 우울/불안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104
<표 Ⅳ-35> 사회적미성숙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105
<표 Ⅳ-36> 사고의문제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106
<표 Ⅳ-37> 주의집중문제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106
<표 Ⅳ-38> 비행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107
<표 Ⅳ-39>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108
<표 Ⅳ-40> 내재화문제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108
<표 Ⅳ-41>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109
<표 Ⅳ-42> 총문제행동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110

그림목차

[그림 Ⅱ-1]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 22

ABSTRACT

Relationships and Related Variables of Self-Concept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Jun, Young-Hee
Adivisor : Seunghee Lee, Ph.D.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differs the self-concept(extent and level) and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extent and type) in the adolescents of normal families and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investigate problems, and the demographical variables (sex, grade, religion, residential region, type of families, age of the father and mother, academic background of the father and mother, occupation of the father and mother) with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were participated 296 adolescents who was a first, second, third graders 107 middle school and a first, second graders 48 high school in Jeollanam-do, whose mothers ar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It was measured the self-concept using Self Concept Inventory(SCI),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using Korean-Youth Self Report(K-YSR) and the demographical variables using the survey made by researcher.

The collected data analyzed by one way anova, correlation, multi-regression using SPSS 15.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self-concept of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ve no higher average than the adolescents of normal families, but rather have higher average in the other sex and same sex relationship among areas of Self-Concept Inventory.

Second,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ve not significant, but a little higher average than the adolescents of normal families, and the internalizing problems is higher average than externalizing problems.

Third, the result that analyzed the difference on the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according to the level of self-concept in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howed the difference among groups. The negative group showed the higher average than the ordinary and positive group. The negative group on the language showed the higher average than the ordinary and positive group on the withdrawal, social immaturity. concentration, problem of thought, internalizing problems and total problematic behavior among the area of the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The negative group on the mathematics showed the higher average on the depression/anxiety, social immaturity. the concentration, aggressi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and the total problematic behavior and the negative group on the general subject showed the higher average on the withdrawal, social immaturity. the concentration, internalizing problems and the total problematic behavior and the negative group on the physical appearance showed the higher average on the physical symptom, depression/anxiety, social immaturity. concentration, internalizing and total problematic behavior. The negative group on the physical ability showed the higher average on the withdrawal, depression/anxiety, social immaturity. problem of thought, concentration, aggression, internalizing problem, and total problematic behavior. The negative group on the same-sex friend relationship showed the higher average on the depression/anxiety, social immaturity.

problem of thought, concentration. The negative group on the other-sex friend relationship showed the higher average on the social immaturity. internalizing problem. The negative group on the parent-related self- concept showed the higher average on the every area of the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The negative group on honesty/trust showed the higher average on the withdrawal, physical symptom, depression/anxiety, social immaturity. problem of thought, the concentration, delinquency, internalizing problem, and the total problematic behavior. The negative group on the emotional stability showed the higher average on the every area of the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The negative group on the general self-concept showed the higher average on the every areas except on the aggression. Finally, The negative group on the total self-concept showed the higher average on the every areas except on the delinquency.

Fourth, The total self-concept of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ve the correlation with the age, academic background of the mother, the occupation of the mother. The results suggests that the type of families, the residence, and the academic background of the mother were a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the self-concept of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ularly the academic background of the mother. And the language, same-sex friend relationship. other-sex friend relationship among the area of self-concept of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predicted with the variable mentioned above.

Fifth, The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of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ve the correlation with the grade, the residential region, the type of families, age of the mother, the academic background of the mother, occupation of the mother. The results suggests that the type of families, residence, and academic background of the mother was a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the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And the withdrawal, social immaturity. problem of thought and total problematic behavior among the area of the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of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was predicted with the variable mentioned abov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 and suggestions was discussed.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는 1990년 이후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외국인의 이주가 시작되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함께 농촌 남성들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多文化)가정'이란 용어가 점차 부각되어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안경식 외, 2008).

이들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인하여 생성된 다문화가정은 2000년의 7,304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8년 한 해 동안 총 345,600건의 혼인 중 28,163건이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농림어업 종사자와의 혼인 2,472건 중 전라남도는 388건으로 26.8%를 차지해 다문화가정 생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 4월 현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수 역시 총 16,937명 중 경기도의 3,296명에 이어 전라남도가 1,83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9).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인 어머니의 외모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이나 중국 출신에서 베트남, 필리핀, 몽골 출신 등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이 점차 다국적화 되어 가고 있다. 피부색이나 말씨가 다르고 대부분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각기 다른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많은 긴장과 갈등을 겪으며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점차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아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며 일반 아동과 조금 다른 외모는 학교생활 적응에서 문

제가 되기도 한다(유난영, 2008).

청소년에 있어서 자아개념(self-concept)이란 신체적 특징, 개인적 능력, 특성, 가치관, 역할, 흥미, 사회적 지위 등을 포함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지각과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규정하는데 있어 비교적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좀 더 현실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은 부모-자녀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장휘숙, 2000), 부모의 교육정도, 직업, 수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또래집단의 영향, 교사, 학교환경 등도 영향을 미친다(송인섭, 1998).

청소년기의 정서는 강렬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기쁨, 슬픔, 노여움 등에 민감하고 죽음, 운명, 시험, 실언, 위약 등 추상적인 위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정서를 표출할 때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여 내재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려는 경향이 높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으로는 유전, 기질,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생물학적 원인과 가족의 구조적 측면이나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과 양육태도 등의 심리·사회적 측면을 들 수 있다. 빈곤가정의 경우 청소년을 열등감에 빠뜨리고 무기력하게 하며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시켜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격적 행위로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정서·행동장애의 38%가 극빈층에서, 32%는 저소득층에서 출현했다는 보고가 있다(Fujiura & Yamaki, 2000; Hosp & Reschly, 2002).

행동장애군 가정의 특성은 일관성이 없고 처벌적인 훈육 방식, 부모의 부적절한 감독,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분노의 폭발적인 표현방식, 대인관계상의 갈등,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 부모의 범죄, 대가족, 낮은 수입, 나쁜 주거상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및 또래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또래 및 교사의 행동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정서·행동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Werry, Reeves, & Elkind, 1987).

또한 문화·인종적 요인에서 사회의 신념과 가치, 사회구조,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일이 처리되는 방식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소수민족 안의 아동·청소년은 주류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행동적 역기능의 비율이 훨

씬 높아진다(Krernmo & Heyerdahl, 1998). 그리고 편견과 차별의 위험에 놓이게 되면 문화적 정체감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건강 및 정서·행동문제의 위험을 높게 만들 수 있다(Clark et al., 1999; Compas et al., 2001).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배타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종에 대한 차별과 사회·문화적인 편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자아정체성을 찾는데 혼란을 겪게 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더 어려움을 갖게 되어 다양한 정서·행동상의 문제들을 가질 수 있다.

최근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들 중 먼저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감과 같은 유사하게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미경(2007)은 다문화가정 자녀는 다른 문화와 언어를 향유하는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성장 과정에서 국내결혼가정 자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송선진(2007)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은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편으로 미래 확신성, 주도성, 친밀성의 발달이 낮으며 자신의 외모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낄수록, 한국어 실력이 낮다고 느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경란(2006)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화를 형성하는 시기에 다문화가정 아동은 언어문제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자아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유사하게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성배(2005)는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성장과정의 부적응 상태가 방치되고 있어 언어학습, 정체성 형성, 대인관계 형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신효선(2007)은 외모가 다르다고 느낄수록 학교부적응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환경에서의 학교수업과 친구관계, 지역사회환경이 각각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승미(2007)는 부정확한 발음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또래들과 어울리기 힘들고 배척받으며, 부정적인 사회행동은 또래관계에서 위축되고

때로는 폭력이나 물건훔치기 등의 부적응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영창(1999)은 문제행동 중에서 특히 과잉행동과 공격행동, 위축행동을 많이 하는 어린이들이 자아개념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노현숙(2002)도 문제행동을 나타낸 학생들 대부분이 가정영역자아가 낮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호임(2004)은 문제행동과 총자아개념 간에는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남윤주(2009)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과 높은 우울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이희정(2009)은 자아정체성이 높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관련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송인섭(1998)은 부모의 교육정도, 직업, 수입과 함께 또래집단을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와 함께 학업수행, 스포츠, 대인관계, 관심사 등을 또래와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김혜수와 허혜경(2002)은 자아개념은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한 환경적 강화와 중요한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으며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 학교생활, 성별 등을 들었다. 신혜정(2007)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한국어를 잘 할수록, 또래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교육관계가 좋을수록, 학교행사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아졌고 규칙준수관계가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남윤주(2009)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자아개념이 낮았고 경제 및 물리적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은미(2007)는 학교 적응 면에서 담임교사와의 관계, 규칙준수관계, 교우관계, 학교행사관계, 학습활동관계 순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이영주(2007)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성별, 학력수준, 어머니국적, 부 직업유무, 생활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친구관련요인, 학교관련요인, 가족관련 요인이 중요한 관련요인이라고 하

였다. 남윤주(2009)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우울을 더 높게 지각하였는데 소외감, 친구관계 스트레스, 어머니국적, 경제 및 물리적 환경스트레스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과 교사의 어려움을 찾아본 연구(박미경, 2007),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사회화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문화 교육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송선진,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력 수준을 성별, 한국어 실력, 한국문화 인지도에 따라 그 차이를 알아보고 자아개념과 사회적응력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응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김경란, 2006),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인 어머니와 학교의 실태를 확인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위한 연구(오성배, 2005),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정환경, 학교환경, 생활환경 수준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한 연구(신효선, 2007),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빈도를 증가시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 집단미술치료에 관한 연구(이승미,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정체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신혜정,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특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영향력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적 함의 도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지지수준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안은미,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 학년수준, 어머니 국적, 부 직업유무, 생활수준 등의 요인이 심리·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이영주, 2007)등으로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관계에 대한 유사한 연구와 자아개념이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어떤 관련변인들이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유사한 연구를 찾을 수 있었으나 대부분 연구가 다문화가정의 아동이거나 일반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의 정도나 수준을 알아보는 연구나 이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나 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이 어떠하며 이들

의 정서·행동문제는 어떠한지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학교 현장이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아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 안에서 이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126,15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신건강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의 10.8%(7,034명), 4학년의 9.3%(3,059명)가 ADHD 고위험군으로 선별되었고 중학교 남학생 12.3%, 여학생 18.1%와 고등학교 남학생 15.7%, 여학생 19.7%가 중도 이상의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선별되었으며 조사대상의 17%에 해당하는 21,497명이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은 조사대상 6,910명 중 23.9%인 1,654명이 정밀 검진 대상으로 분류되어 경북 22.7%, 경기 22.6%, 대전 19.4%보다 높게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09). 이와 같은 결과는 전남의 다문화가정 생성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정도와 수준)과 정서·행동문제(정도와 유형)를 살펴보고,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 그리고 자아개념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 및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규명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건강한 한국인으로서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적절한 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어떠한가?

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정도는 어떠한가?

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수준은 어떠한가?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는 어떠한가?

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어떠한가?

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은 어떠한가?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수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정도는 관련변인들(성별, 학년, 종교유무, 거주지역, 가족형태, 부 나이, 모 나이,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유무, 모 직업유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관련변인들(성별, 학년, 종교유무, 거주지역, 가족형태, 부 나이, 모 나이,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유무, 모 직업유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① 다문화가정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정을 말한다.

②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학문적 자아개념과 비학문적 자아개념을 통합하는 통합 자아를 자아개념의 최상위 차원으로 보는 Marsh의 자아개념 위계적 구조모형(Marsh & Shavelson, 1985)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청소년용 자아개념검사(Self-Concept Inventory : SCI)(고진영·이경화, 2006)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위차원의 학문적 자아개념은 언어, 수학, 일반교과목을, 비학문적 자아개념은 신체외모자아, 신체능력자아, 동성친구관계자아, 이성친구관계자아, 부모관계자아, 정직/신뢰자아, 정서

적 안정성자아, 일반자아를 말한다.

③ 자아개념 정도

본 연구에서의 자아개념의 정도는 청소년용 자아개념검사(SCI)의 학문적 자아개념 3개 하위척도 30문항, 비학문적 자아개념 8개 하위척도 72문항, 총 11개 하위척도 102문항의 합을 말한다.

④ 자아개념 수준

본 연구에서의 자아개념의 수준은 학문적 자아개념 3개 하위척도와 비학문적 자아개념 8개 하위척도의 11개 하위척도와 전체자아에 대한 백분위점수를 세 급간으로 나누어 75점 이상은 긍정적, 75점 미만~25점 이상은 보통, 25점 미만은 부정적임을 말한다.

⑤ 정서·행동문제

본 연구에서의 정서·행동특성의 문제는 Achenbach(1991)가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분류하기 위해 제작한 YSR에 포함되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등을 말하며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의 문제를 내재화문제, 비행과 공격성 문제를 외현화문제라고 말한다.

⑥ 정서·행동문제 정도

본 연구에서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K-YSR의 8개 하위척도인 위축척도, 신체증상척도, 우울/불안척도, 사회적미성숙척도, 사고의 문제척도, 주의집중문제척도, 비행척도, 공격성척도와 군집영역인 내재화문제척도, 외현화문제척도, 총문제행동척도를 포함한 총 11개 하위영역척도의 T점수를 말한다.

⑦ 정서·행동문제 유형

본 연구에서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은 내재화문제 63*T*이상이면서 외현화문제 63*T*이하인 내재화문제만 있는 집단, 내재화문제 63*T*이하이면서 외현화문제 63*T*이상인 외현화문제만 있는 집단,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모두 63*T*이상인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가 모두 있는 집단, 내재화문제나 외현화문제가 모두 63*T*이하인 정상집단의 네 집단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⑧ 성별

- 남: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을 말한다.
- 여: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말한다.

⑨ 학년

- 1: 중학교 1학년을 말한다.
- 2: 중학교 2학년을 말한다.
- 3: 중학교 3학년을 말한다.
- 4: 고등학교 1학년을 말한다.
- 5: 고등학교 2학년을 말한다.

⑩ 종교유무

- 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종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종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⑪ 거주지역

- 시소재지: 전라남도에 소재한 5개 시 지역을 말한다.
- 읍소재지: 전라남도에 소재한 17개 군 각각에 속한 읍 지역을 말한다.
- 면소재지: 전라남도에 소재한 17개 군 각각에 속한 면 지역을 말한다.

⑫ 가족형태

- 부부중심가족: 부부와 그 자녀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핵가족과 확대가족을 말한다.
- 기타형태가족: 어머니가 사망이거나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원인으로 함께 동거하지 않은 편부가족, 아버지가 사망이거나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원인으로 함께 동거하지 않은 편모가족,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 또는 쌍방이 사망이거나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원인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자로 동거하는 부모 부재 가족인 가족을 말한다.

⑬ 부 나이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아버지 나이를 말한다.

⑭ 모 나이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 나이를 말한다.

⑮ 부 학력

- 대학원졸: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또는 박사를 말한다.
- 대졸: 대학교(4년제), 전문대학(2년제) 졸업을 말한다.
- 고졸: 고등학교 졸업을 말한다.
- 중졸: 중학교 졸업을 말한다.
- 초졸: 초등학교 졸업을 말한다.

⑯ 모 학력

- 대학원졸: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또는 박사를 말한다.
- 대졸: 대학교(4년제), 전문대학(2년제) 졸업을 말한다.
- 고졸: 고등학교 졸업을 말한다.
- 중졸: 중학교 졸업을 말한다.

- 초졸: 초등학교 졸업을 말한다.

⑰ 부 직업유무

- 유: 직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무: 직업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⑱ 모 직업유무

- 유: 직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무: 직업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⑲ 모 국적

-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나고 성장했던 나라를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多文化)가정' 이란 국제결혼가정, 이중문화가정, 그리고 서로 다른 인종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자녀를 포함한 가정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여성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탈북자 출신 새터민의 증가 등 한국 사회 내에 대한민국(남한)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남윤주, 2009).

사회·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결합으로 가족형태가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또 다른 외국인을 만나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형성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자녀를 말한다(김경란, 2006). 이중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 이주여성들을 흔히 코시안(Kosian) 또는 온누리안으로 지칭하기도 하는데(서혁, 2006), 현재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정'으로 부르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어 최근에는 일반화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3. 3. 13; 홍영숙, 2007).

국제결혼은 혈연 중심적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환영받지 못하였으나(임경혜, 2004),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유학이나 해외 주재 등의 이유로 중·상류층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부정적인 시각도 상대적

으로 줄어들게 되었다(홍영숙, 2007).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1990년대에는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외국인 노동자와 농촌 미혼남성들의 결혼문제가 맞물려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이들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또 외국인끼리의 결혼 등을 통하여 이중문화를 갖게 되고 같은 국적을 가진 외국인끼리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한국문화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안은미, 2007). 이들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표 Ⅱ-1>과 같다.

<표 Ⅱ-1>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 건, %)

연도 /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구성 비율	전년대 비 증감률
중 국	3,566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46.9	-1.5
베 트 남	77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29.4	-8.8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804	659	2.3	-63.5
일 본	819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4.1	-3.6
필 리 핀	1,174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6.6	24.0
몽 골	64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1.8	-30.1
태 국	240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2.2	20.8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1.7	40.2
기 타	962	1,004	969	1,218	1,252	1,136	1,236	1,359	1,354	4.8	-0.4
한국남자 +외국여자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100.0	-1.5

자료출처 : 통계청 (2009. 3). 2008년 혼인통계 결과.(p. 16).

<표 Ⅱ-1>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건수가 국적별로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호적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2008.1.1~12.31) 전국의 읍·면사무소 및 시·구청(재외국인은 재외공관)에 신고한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혼인은 총 28,160건으로 중국 13,203건(46.9%), 베트남 8,282건(29.4%), 캄보디아 659건(2.3%)순으로 나타나 급격히 증가하던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

이 전년보다 63.5% 감소하고, 필리핀은 전년보다 24%가 증가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은 492건으로 전년에 비해 40.2%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이 점차 다국적화 되고 그 수가 증가되고 있다. 시도별 농림어업 종사자와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표 Ⅱ-2>에서와 같이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28,163건인데 이중 농림어업종사자와의 혼인은 2,472건이다. 이중 전라남도가 388건으로 26.8%를 차지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생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2> 시도별 농림어업종사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단위 : 건, 100%)

구분	시도별 혼인건수		한국남자와 외국 여자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과의 혼인		
	2007	2008 (A)	2007	2008 (B)	비중 (B/A)	2007	2008	비중 (C/B)
서 울	76,399	71,753	6,004	5,509	7.7	51	43	0.8
부 산	76,399	20,149	1,429	1,534	7.6	34	37	2.4
대 구	14,655	13,743	921	923	6.7	35	32	3.5
인 천	18,227	18,108	1,534	1,624	9.0	26	29	1.8
광 주	8,858	8,472	595	649	7.7	19	27	4.2
대 전	9,684	9,499	636	746	7.9	18	18	2.4
울 산	7,563	7,837	606	570	7.3	24	9	1.6
경 기	81,248	78,004	6,409	6,439	8.3	290	247	3.8
강 원	8,930	8,517	807	811	9.5	197	146	18.0
충 북	9,834	9,512	926	975	10.3	178	141	14.5
충 남	13,766	13,354	1,467	1,517	11.4	406	296	19.5
전 북	10,864	10,399	1,312	1,389	13.4	368	325	23.4
전 남	10,854	10,480	1,507	1,448	13.8	511	388	26.8
경 북	16,623	15,634	1,719	1,524	9.7	530	358	23.5
경 남	21,555	20,497	2,004	1,732	8.5	417	289	16.7
제 주	3,495	3,445	289	357	10.4	67	87	24.4
계	343,559	327,715	28,580	28,163	8.6	3,171	2,472	8.8

자료출처 : 통계청 (2009. 3). 2008년 혼인통계 결과. (p. 17).

2009년 6월 현재 전라남도 시 군별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에 의해 이주한 여성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Ⅱ-3>에서와 같이 가장 많은 지역이 순천시의 582명으로 전년에 비해 218명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가 목포시의 522명으로 98명이 증가하

였으며 세 번째가 여수시의 511명으로 184명이 증가하여 전라남도 시·군 전 지역이 2008년 통계에 비해 1,630명이 증가하였는데, 전라남도의 5개시에 754명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정의 증가가 시 지역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Ⅱ-3> 전라남도 시·군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시군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고	우즈백	대만	기타	계	2008년	전기대비 증감	증감비율(%)
목포	302	74	54	38	19	11	9	4	2	9	522	404	118	12.9
여수	226	129	68	33	17	11	9	1	-	17	511	327	184	15.6
순천	201	238	53	47	9	10	6	4	3	11	582	364	218	13.3
나주	116	101	105	56	15	11	22	21	1	11	459	366	93	12.5
광양	198	111	44	43	7	7	4	2	-	6	422	281	141	15.0
담양	52	55	50	22	10	7	5	5	-	2	208	180	28	11.5
곡성	51	58	37	24	13	3	3	2	-	1	192	163	29	11.7
구례	29	41	23	23	10	4	4	-	-	4	138	119	19	11.6
고흥	92	153	63	13	5	12	12	1	-	3	354	294	60	12.0
보성	56	92	37	12	9	2	3	1	1	4	217	161	56	13.4
화순	96	95	67	56	35	4	9	2	2	3	369	267	102	13.8
장흥	43	59	68	41	5	10	5	-	-	17	248	172	76	14.4
강진	41	53	36	20	13	1	3	-	1	1	169	161	8	10.4
해남	83	142	65	29	17	3	7	2	-	1	349	315	34	11.0
영암	126	69	64	31	5	14	6	3	-	3	321	211	110	15.2
무안	88	61	60	36	15	2	6	-	2	4	274	202	72	13.5
함평	49	64	47	14	7	3	2	-	-	3	189	167	22	11.3
영광	67	83	25	16	15	13	3	3	1	1	227	166	61	13.6
장성	70	110	37	16	11	14	1	1	-	3	263	173	90	15.2
완도	63	64	38	13	10	1	10	-	1	2	202	146	56	13.8
진도	49	79	22	8	7	3	2	-	-	-	170	149	21	11.4
신안	61	86	10	4	15	1	6	-	-	2	185	149	36	12.4
계	2,159	2,017	1,073	595	269	145	139	52	14	108	6,571	4,941	1,630	13.2

자료출처 : 전라남도청 복지여성국 (2009. 6). 전라남도청 자체자료.

2)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태

(1) 행정구역별 현황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을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표 Ⅱ-4>와 같다. 서울과 근접하고 공업단지가 모여 있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라남도가 초등학생 1,164명, 중학생 136명, 고등학생 57명, 총 1,837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4> 어머니가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시·도별 학교 급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시도	초	중	고	계
서 울	1,446	220	80	1,746
부 산	542	70	29	641
대 구	369	27	5	401
인 천	560	67	35	662
광 주	374	25	16	415
대 전	209	57	13	279
울 산	204	25	13	242
경 기	2,656	477	163	3,296
강 원	849	83	24	956
충 북	839	73	23	935
충 남	1,162	166	52	1,380
전 북	1,160	112	18	1,290
전 남	1,644	136	57	1,837
경 북	1,114	102	22	1,238
경 남	1,212	232	46	1,490
제 주	112	13	4	129
계	14,452	1,885	600	16,937

자료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2009. 4). **통계로 보는 전남교육 2009**. (p. 238).

(2) 전라남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표 Ⅱ-5>와 같이 중학생 237명,

고등학생 91명으로 중·고등학생의 수는 총 328명이다.

시군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표 Ⅱ-6>과 같이 5개시에 중학생 80명, 고등학생 39명이고 17개 군 지역에는 중학생 157명, 고등학생 52명으로 비교적 시와 군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 Ⅱ-5> 학교 급별 다문화가정 학생수 현황

급별 / 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8	256	1,676	136	58	2,126
2009	347	2,175	237	91	2,850

자료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2009. 4). **통계로 보는 전남교육 2009**. (p. 238).

<표 Ⅱ-6> 시군별 다문화가정 학생수 현황

시군 / 급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계
유	12	20	7	25	15	17	15	26	12	15	36	28	9	13	20	12	9	8	13	21	2	12	347
초	117	150	117	230	79	79	89	68	61	72	162	105	88	151	119	135	109	46	62	51	37	48	2,175
중	17	20	21	19	3	9	11	6	5	6	26	11	12	4	7	17	7	4	9	8	8	7	237
고	6	7	17	5	4	4	2	4	4	1	7	7	4	1	1	5	3	4	0	0	3	2	91
계	152	197	162	279	101	109	117	104	82	94	231	151	113	169	147	169	128	62	84	80	50	69	2,850

자료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2009. 4). **통계로 보는 전남교육 2009**. (p. 238).

(3) 전라남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 국적현황

전라남도 다문화가정 자녀 어머니의 국적별 현황은 <표 Ⅱ-7>과 같다. <표 Ⅱ-7>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 국적은 일본이 1,078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777명, 중국 369명, 베트남 116명, 태국 77명 , 남부아시아 22명, 몽골 13명, 중앙아시아 11명 순이다. 이중 중·고등학생을 합한 321명의 어머니 국

적은 일본 143명, 조선족 48명, 필리핀 48명, 중국 34명, 베트남 31명, 남부아시아 9명,

<표 Ⅱ-7>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학생수 현황

국적 / 급별	일본	필리핀	중국	조선족	베트남	태국	남부아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기타	계
유	87	128	44	33	19	18	1	3	4	0	0	4	341
초	848	611	291	223	66	56	12	6	7	6	2	11	2,139
중	97	34	29	34	19	3	5	2	0	2	1	4	230
고	46	4	5	14	12	0	4	2	0	0	0	4	91
계	1,078	777	369	304	116	77	22	13	11	8	3	23	2,801

자료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2009. 4). **통계로 보는 전남교육 2009**. (p. 238).

몽골 4명, 태국 3명, 기타 4명 순으로 다문화가정의 중·고등학생 43.10%의 어머니가 일본 국적이다.

3)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

가정의 배경은 자녀의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교육경험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어머니의 배경은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 등 자녀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미경, 2007; 오성배, 2005). 결혼이민자가정 자녀의 경우 국적은 한국이지만 대부분 출생 이후 다른 문화와 언어를 향유하는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국내결혼가정의 자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박미경, 2007).

다문화가정의 특성 중 하나는 이중문화이다. 가족 공동체의 이중문화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하나의 문화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의 부적응은 자녀가 문화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갑성, 2006).

그리고 일반가정 자녀들과 조금 다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외모는 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또

래아이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의 17.6 %나 되었다. 이들 중 외모가 비슷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상이한 외모를 가진 다른 나라 출신 여성들의 자녀들이 더 많은 집단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조금 다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은 생활하는데 크게 차별을 받고 있지 않으나 점점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느라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05). 외모는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순혈주의에 따른 아버지와 아들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 가치 체계 속에서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난영, 2008). 현재는 외모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이나 중국 출신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대다수이지만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다변화되는 국제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학령기가 될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김갑성, 2006).

또한 언어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가정환경은 언어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정의 충분한 모국어 습득 환경과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의 사용 언어 및 의사소통 유형은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은희, 2004).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언어능력으로 인해 발달이 늦어져 따돌림을 당하거나(보건복지부, 2006), 언어능력의 부족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개념 습득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며 의사소통에 문제를 나타내어 사회관계의 부적응과 학습부진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정은희, 2004).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영유아기 때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그 능력이 떨어지면 학교에 들어가서도 학습능력 부진으로 이어지며, 또래집단 안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집단따돌림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양재찬, 2006).

국제결혼을 한 대다수의 한국남성들은 결혼하기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사람들이다(윤형숙, 2005). 주로 농촌과 도시 하류층의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였으므로 결혼이민자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가계 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가정이 44~58% 정도에 이르러 결

혼이민자 가정의 가계 소득이 매우 낮아 빈곤한 상황이다(이혜경, 2005).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절대 다수가 기본적인 최저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 빈곤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미래인력연구원, 2005).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이 감소되지 않은 채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적 발달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무단결석, 가출, 폭력 등의 사례가 늘어가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신효선, 2007).

2. 청소년의 자아개념

1) 자아개념의 정의

자아개념(self-concept)은 자신에 대한 지각과 평가라고 정의된다(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자아개념은 사람 속에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라 자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적인 신념의 집합체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신체적 특징, 개인적 능력, 특성, 가치관, 역할, 흥미, 사회적 지위 등을 포함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지각과 판단을 의미한다. 자아개념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환경적으로는 자신의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 그 사회의 준거에 의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자신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자신에 대한 지각을 통해 형성된다(김혜수·허혜경, 2002).

Strang(1957)은 자아개념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자신의 능력, 신분, 역할에 대한 전반적 인식인 전체적인 자아개념이다. 둘째는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시적 자아개념이다. 예를 들어, 학기말 성적이 나쁘거나 부모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순간적으로 자신을 가치 없는 인물로 생각하는 것 등이다. 셋째는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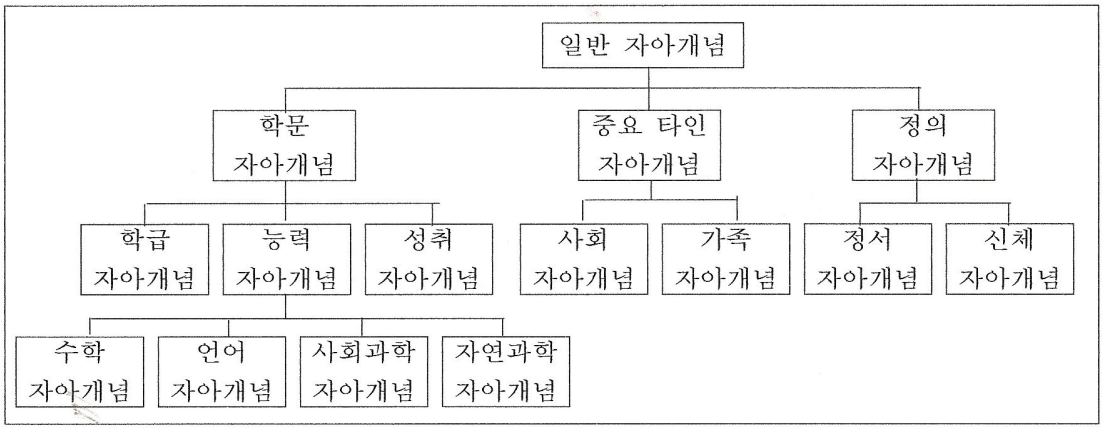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사회적 자아개념으로서 사회학자 Cooley(1902)와 Mead(1934)가 주장한 사회학적 자아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Cooley는 자기 주위의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반영되는 평가인 면경자아(looking glass self)의 개념을 중시하였고, Mead는 개인의 자아개념은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넷째는 자신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상적 자아개념으로 이상적 자아가 너무 낮으면 성취 의욕이 없고 반면 너무 높으면 심한 좌절과 모멸에 빠지게 된다. 실제적 자아(real self)와 이상적 자아(ideal self)간의 관계를 강조한 Rogers(1974)는 실제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 자아와 자신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상적 자아간의 차이가 크면 개인은 적응을 잘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신경증으로까지 발전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실적인 자아개념은 자기수용, 정신건강 등으로 이어지고, 현실적 목표를 달성하게 만든다(정옥분, 2005).

자아개념(self-concept)은 흔히 자아존중감(자존감, self-esteem)과 의미상 유사한 것 같으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자아개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지적 측면인 반면, 자아존중감은 감정적인 측면이다. 다시 말하면, 자아개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지각인 반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느낌이나 견해를 말한다. (김혜수·허혜경, 2002; Simmons & Blyth, 1987).

자아개념의 주요기능은 첫째, 개인이 일생동안 경험하는 기쁨과 고통의 균형을 조절하고 둘째, 자아존중감을 유지시키며 셋째,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을 조직한다. 그러므로 자아개념은 인간의 정의적 행동특성 중 중요한 부분으로서 심리적 안녕이나 정신건강과 중요한 상관이 있다(장휘숙, 2000).

송인섭(1998)은 자아개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은 다면적(multi-faceted)이고 위계적(hierarchical)이라고 하였다. 자아개념을 자아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로 정의한 Shavelson, Hubner 및 Stanton (1976)은 이러한 지각은 사회문화적 인 경험을 통한 환경적 강화 및 중요한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송인섭(1998)은 재 연구를 통해 <그림 Ⅱ-1>과 같은 3차원적 위계요인 모형이 자아개념의 내적 구조를 설명하는데 더 타당함

을 검증하고 첫째, 자아는 일반적 자아개념 이상의 많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인이 역할 상황 속에서 대상으로서의 자아에 원인이 되는 만큼의 의미를 부과한다고 설명한다. 둘째, 자아개념은 비교적 안정적이므로 일단 어떠한 자아개념이 형성되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속성은 위계구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저차원적인 개념은 안정성이 덜한 반면에 고차원적인 요인 및 일반적 자아개념은 장기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자아개념은 발달적 측면에서 보면 분화적이다. 신생아 시기에는 자아를 지각하지 못하며 환경과 미분화된 상태지만, 연령이 증가하고 경험이 누적되면서 자아를 환경에서 분화시키며 점차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넷째,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아개념은 기술적이고 평가적인 특징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환경 내에서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자아를 형성시켜 나아간다. 자신과 관련된 집단이나 상황을 통해서 그 사회의 가치나 규범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 신체적 특성, 능력, 성격 등을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타인', 예를 들면, 부모, 친구, 교사 등으로 부터 얻은 자신에 대한 기대, 정보 및 피드백(feedback)을 통한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자기를 인지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 자아개념이 형성된다. 다섯째, 한 영역의 자아개념은 다른 영역의 자아개념과 독립적이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은 학문적



자료출처 :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p. 108).

[그림 Ⅱ-1]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자아개념 중 성취에 관련된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동시에 신체에 대한 자아개념은 부정적일 수 있다.

2) 청소년 자아개념의 특성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개념이 점점 더 정교하게 세분화되는 동시에 보다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통합하게 된다. 자아개념은 유아기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이해는 유아들이 자기인식(self-recognition)을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는 별개의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는 3~5세 유아들은 그 발달연령의 인지적 능력에 맞게 자신의 이름이나 외모, 소유물 또는 행동에 국한된 자아개념을 지닌다. 7세 이하의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면모는 자신의 특성과 또래의 특성을 비교해 보는 사회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자신의 수행을 또래와 비교하는 이러한 인지 능력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자신의 능력, 신체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을 판단할 수 있다(장휘숙, 2000).

Montemayor와 Erisen(1977)은 아동기가 되면 자아개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 자신이 가진 개인적 특성으로 자신을 묘사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 소유물, 활동, 능력과 관련시켜 자신을 규정한다. 자아개념은 성숙해감에 따라 점차 안정적인 것으로 변하며 추상적이고 분화된 개념으로 발달하게 된다. 아동 초기까지는 주로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나 소유물, 좋아하는 놀이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묘사하는 반면, 아동기 말이 되면 심리적 특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자신을 묘사한다.

자아개념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성숙해 가면서 더욱 발달하는데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의 특징인 추상적 사고가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ontemayor 와 Erisen(1977)의 연구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반응을 비교한 결과 아동은 주로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나 소유물, 놀이 활동 등에 대해 자신을 묘사한 반면 청소년은 개인의 신념, 특성, 동기 등으로 자신을 묘사하였다(정옥분, 2005

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비교적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여 좀 더 현실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된다(김혜수·허혜경, 2002).

청소년기의 초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가 급격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기에 비해 자아개념이 더 혼란스럽고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많은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Simmons, Rosenberg및 Rosenberg(1973)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2세와 13세의 청소년초기의 학생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우울하고 자의식이 강하며,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나 교사 그리고 동성의 또래집단이 자신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Marcia(1996)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초기에는 모순된 자기 묘사를 하는 등 자아개념에서 혼란을 보이지만 점차 자신을 묘사함에 있어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보다 통합된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정옥분, 2005).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적인 존재에 대한 자각인 현실적 자아개념(actual self-concept)과 미래에 자신이 되기 원하는 자아에 대한 열망 또는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신념인 이상적 자아개념(ideal self-concept)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를 인지적으로 확실히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자아를 향해 노력을 경주한다. 청소년들이 이상적 자아를 향해 자신을 개선하는 이 과정에서 자기 발달이 이루어진다(김혜수·허혜경, 2002).

3) 청소년 자아개념의 관련요인

아동에 비해 청소년은 좀 더 세련되고 분화적이어서 다면적이고 고차원적 요인의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아개념의 연령별 발달은 인간의 인지적 발달에 기인하는데 이 외에도 다른 몇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장휘숙(2000)에 의하면 자아개념은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부모-자녀 관계가 결정

적인 요인이 된다고 한다. 부모의 양육 유형 측면에서 보면 자녀의 인격(individuality)을 존중하고 애정적이고 지지적이며 자녀를 수용함과 동시에 자녀의 행동을 위한 규준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유도기법(induction)을 사용하는 권위주의적 부모(authoritative parents)는 자녀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지나치게 비판적이지 않으며 논리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녀가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애정부족, 엄한 규율 또는 규율의 부족, 과비판으로 특정지울 수 있는 부모는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배경 요인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부모의 교육정도, 직업, 수입 등의 요인을 포함한다. 대체로 중류 계층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애정적이고도 행동의 규범을 명확히 제시해주는 권위주의적인 가정에서 대부분 양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형숙(200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며 앞으로의 성숙한 대인관계의 바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또래집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송인섭(1998)은 또래집단이 제공하는 피드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또래집단은 피드백의 근원으로서 가족을 대신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밀접하며 청소년기를 위한 참여 기회와 준비과제를 제공하고, 동일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또래집단에 본인이 수용되느냐, 거부되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그리고 학업수행, 스포츠, 대인관계, 관심사 등을 동료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게 되며 또래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사회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해준다. 그러나 또래의 가치와 부모의 가치가 상충할 때는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이렇듯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또래집단의 피드백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Offer 등(1981)은 13~15세의 212명의 남학생과 373명의 여학생, 16~18세의 276명의 남학생과 524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낮은 신체적 자아개념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태경(1994)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아정체성 득점이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노현숙(2002)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아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친구관련자아, 가정영역자아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업전반자아, 성격영역자아, 신체외모자아, 신체능력자아, 교사관련자아등이 성별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윤호(2009)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여부와 함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교사, 학교 환경 등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있어서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 또래집단, 성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김혜수·허혜경, 2002).

3.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1) 청소년기의 특성

(1)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변화

① 생물학적 변화

청소년이란 인간의 생애에서 제 2의 탄생이라고 할 만큼 급속한 성장과 변화 과정을 통하여 재체제화 되어가는 아동기와 성년기의 중간단계로서 신장, 체중, 체격의 발달과 2차 성징의 출현 등 급격하게 신체적 생리적으로 성숙한다(Kagan, 1971).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슴이 발달하고 남자청소년들은 수염이 나기 시작하여 급속도로 신장이 커지며, 성적기관의 발달로 인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Brooks-Gunn & Reiter, 1990). 변화의 시기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2년 정도 빨리 나타난다. 사춘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자아상에 대한 일시적인 변화를 유발하여 자신의 체형과 외모가 과거와는 다르다고 느끼게 되는데 뿌듯한 생각과 함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정신적 성숙에 비해 신체적 성숙이 급속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급격한 변모와 성장에 놀라고 당황하여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낯선 이방인으로 느껴지고 불안과 갈등을 느끼게 된다(Sprinthall & Collins, 1995).

이러한 심리적 상태로 인해 자신만의 공간과 생활을 원하고 가족관계 내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여자청소년들은 아버지의 애정적인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남자청소년들은 어머니에 대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성적 호르몬의 활성화로 인해 성적 충동과 관심이 증가하여 친구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한상철 외, 2003), 자제하기 힘들게 분출되는 성적 욕구와 이성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은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당한 해소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음성적인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깊은 죄악감과 자기혐오감을 갖게 되어 심리적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일탈행동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Jones & Mussen, 1958).

② 인지적 변화

인지(cognition)란 사람들의 생각 또는 사고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도 인지적 과정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향상된 사고능력의 출현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Piaget는 이 시기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형식적 조작기가 도래하면서 논리적, 추리적 해석능력이 가능해짐으로써 외부 환경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표현하는 시기로 청소

년들은 아동에 비해 가상적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우정, 민주주의, 도덕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Keating, 1990). 따라서 청소년들은 아동에 비해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며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인지적 발달은 타인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가치관의 혼란 및 과도한 사회적 자극을 감당하기에는 미흡하여 불확실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감 상실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이러한 인지적 변화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많은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한상철 외, 2003).

③ 사회적 변화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특정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 성인인가에 따라 요구되고 기대되는 행동이나 특성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는 구분되어져 사회적 역할의 차이는 대개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대개의 문화권에서 아동과 성인의 역할이나 사회적 기대는 어느 정도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아동의 역할이나 성인의 역할을 기대하므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역할이나 사회적 기대에 대해 혼돈하기 쉬우므로 이로 인해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며(Ford & Beach, 1951), 사회에서 청소년을 과거와는 다르게 대우하고 이들에게 다른 요구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과거와는 다른 행동이나 가족관계, 친구 관계 등을 형성하게 된다(한상철 외, 2003).

(2) 청소년의 주변 환경

모든 청소년들이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겪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한 영향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Bronfenbrenner, 1979).

① 가정

현대가정은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가장의 직장과 관련하여 빈번한 이주, 높은 이혼율, 결손가정의 증가 등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어떤 부모, 어떤 훈육, 어떤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행동과 특성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가정에서의 경험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 이후에도 중요하다. 즉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훈육방식, 부부관계 등은 친구, 교사, 다른 성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에서의 성취, 직업선택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가족관계는 청소년기에 변화를 겪는다. 아동기에 적절하던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인지 발달로 인해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반박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형태의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부모와 청소년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이 속해있는 가정은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청소년의 발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애정적인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애정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갈등이 심각한 경우도 있어 이처럼 다양한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발달에 많은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가정은 지역사회, 경제적 조건, 사회적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이 직면하는 사회적 맥락, 예를 들어 경제적 여건, 신체적 위험, 역사적 사건 등의 차이는 청소년들에게 기대되는 특징을 변화시키고 결국 청소년의 발달에도 차이를 유발한다(한상철 외, 2003).

② 친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동일한 연령대의 친구들은 청소년들의 사회화와 발

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Brown, 1990). 즉 청소년들은 친구나 또래를 통해 어떤 현상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사회적 자원을 얻게 되고 친구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연마하며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시연하기도 한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끝없는 대화 속에서 동료애를 느끼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현실적인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얻으면서 서로 의지하게 된다. 따라서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지위, 인정, 인기 등을 제공하는 강력한 사회적 보상의 원천으로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유사한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누군가와 자유롭게 대안적 관점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친구를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 보살핌, 신뢰, 자기노출, 상호이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한상철 외, 2003).

2) 정서·행동문제의 개념

(1) 정서·행동문제의 정의

정서란 일반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하여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한 감정을 뜻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어떤 상태에 대하여 강한 동요 상태에 빠졌을 때 의식되는 생리적 변화와 표출운동을 수반한 강한 감정을 정서라고 한다. 또 다른 입장에서 정서란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의 흥분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적 자극이나 내적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를 계기로 동요되고 흥분될 때에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정서·행동의 본질은 감정의 혼란과정 혹은 상태와 연관되며 환경적 조건에 대처할 때 일어난다. 이 대처과정에는 좌절, 차단, 갈등과 같은 동질 정체를 저해하고 자연스런 활동을 저해하는 것들이 있다. 이때 기질적 정서 수준에 따라 장애가 경험될 수 있다. 직접적인 행동관찰은 정서장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상황이

나 개인의 역사성을 알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정서를 확인하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정서는 적응 및 정신발달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며 건강, 교육, 사회복지에서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이상복·이상훈, 1998).

Wicks-Nelson과 Israel(2003)은 정서·행동문제를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인 기대 및 규범에서 벗어난 정서행동과 자신이나 타인을 괴롭히는 정서행동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Ross(1974)는 아동의 행동이 사회규범으로부터 일탈되어 아동 주위의 어른들에 의해 그 행동의 발생 빈도나 정도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될 때, 그 아동은 정서·행동문제가 있다고 함으로써 사회 규범과 성인에 의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여기서 사회규범이란 범죄행동을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의 규율로써 다른 사람에게 기대되는 표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표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아동이 속해있는 사회집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서·행동문제는 관찰되는 측면이나 문제를 규정하는 사람 또는 이론적 관점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정서·행동문제는 관찰되는 측면에 따라 행동적 측면,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을 기준으로 문제를 규정하기도 한다. 또한 문제를 규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청소년 스스로 문제라고 지각하는 것이나 부모나 교사 혹은 전문가들이 문제라고 지각하는 바를 '문제'로 규정한다(김진숙·강진구, 2000).

원호택과 이훈진(1997)은 문제란 평균보다 극히 결핍된 혹은 과다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된 행동으로 나타나며, 주관적 불편감을 수반하고, 가족이나 학교 및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홍경자(1986)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아동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각종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정서·행동적 부적응이나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Kauffman(2005)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학문적,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술을 포함하는 교육적 수행에 있어서 아동에게 적절한 나이, 문화, 인종적 규준과는 다른 행동적, 정서적 반응을 수반하는 장애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는 정신분열증적 장애, 정의적 장애, 불안장애 또는 다른 행동장애나 부적응도 포함되며, 정서·행동문제는 일시

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을 포함한 적어도 둘 이상의 장소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장애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Department of Education(1993)에 의하면 정서·행동문제는 사회적으로 방해가 되는 외현적 문제에서 부터 정서적,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내재적 문제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행동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Achenbach와 Edelbrock(1983)은 정서문제는 외로움,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 두려움 등의 내재적 문제를 말하고 행동문제는 공격성, 과잉운동, 거짓말, 도벽, 타인을 못살게 구는 등의 외현적 문제를 말하며 문제행동을 외현적 문제행동(externalizing problems)과 내재적 문제행동(internalizing problems)으로 분류하였다. 외현적 문제행동이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행위로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내재적 문제행동이란 우울, 불안 등과 같이 심리적인 증상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이 표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종종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행동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Donovan, Jessor & Cost, 1985).

또한 청소년기의 정서는 강렬하고 일관성이 결여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기쁨, 슬픔, 노여움 등에 민감하고 죽음, 운명, 시험, 실언, 위약 등의 추상적인 위기를 더 많이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까지는 직접적인 정서표출을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정서표출을 억제하여 내재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려는 경향이 높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Achenbach(1991)는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를 개발하고 문제행동의 유형을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으로 정의하고 8개의 문제행동 증후군에서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의 문제를 내재화문제, 비행과 공격성을 외현화문제로 정의하였다.

(2) 정서·행동문제의 분류체계

① 임상적으로 도출된 분류체계

임상적으로 도출된 분류체계는 어떤 특징들이 함께 발생하는지에 대한 임상가들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흔히 '위에서 아래로(top town)'의 접근으로 기술된다. 분류체계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정의된 범주와 차원들로 이루어져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하며 타당해야한다.(Achenbach, 2000).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장애들의 개념을 제안하고 각 장애를 정의하기 위한 진단범주들을 선택 하였는데 이상행동의 분류는 오랫동안 일차적으로 성인기 장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행동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분류체계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다(Silk et al., 2000).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류체계는 미국정신의학회가 발행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DSM)이며 국제보건기구에서 개발한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orders : ICD) 10판도 널리 사용되는 대안적 체계이다.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DSM은 1883년에 Kraplin이 정신의학적 분류학에 뿌리를 두고 개발하여 범주적 접근(categorical approach)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 사람은 진단기준들에 따라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으며, 정상과 병리의 차이는 정도에 있다기보다 종류에 있다고 가정하고 장애유형들 간의 차이를 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류체계는 아동기 장애들이 생략되었다.

DSM-Ⅰ에는 적응반응과 아동기 정신분열증의 두 아동기장애가 포함되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52). 1960년대에 들어서 더욱 포괄적인 체계가 필요해지게 되어 DSM-Ⅱ에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행동장애라는 범주가 첨가되었고 이것은 다시 여섯 가지 장애로 나뉘어졌다(APA, 1968).

그 후의 두 개정판인 DSM-Ⅲ(APA, 1980)와 DSM-Ⅲ-R(APA, 1987)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적용되는 범주들의 수를 크게 늘렸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성인을 위한 진단들 중 일부로서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사용될 수 있었다. 이 두 개정판과 가장 최근의 개정판인 DSM-Ⅳ에서는 특정 범주들의 구성이 달라졌다(APA, 1994). DSM-Ⅳ의 수정본인 DSM-Ⅳ-TR(APA, 2000)은 장애들의 특성과 유병률, 가족유형 등에 관한 최신의 정보에 근거하

여 진단범주들에 대한 원문을 수정하였으나 수정과정에서 진단명이 삭제되거나 첨가된다든지, 혹은 진단범주가 변경되지는 않았다.

DSM-Ⅳ는 모든 장애를 축이라 불리는 두 가지 주요 분류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임상가는 존재하는 임상적 장애(예: 품행장애)나 혹은 치료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조건(예: 학업문제)을 축Ⅰ에 나타내고, 축Ⅱ는 지적장애나 성격장애가 존재할 때 사용된다. 이 두 축은 DSM체계의 핵심인 진단분류를 대표한다. 축Ⅲ은 아동과 청소년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관련된 의학적 상태를 나타내고, 축Ⅳ는 진단과 치료 혹은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혹은 환경적 문제(예: 가족의 죽음, 거주문제)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축Ⅴ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전반적 기능수준에 대한 임상가의 판단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표 Ⅱ-8>에는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처음 진단되는 주요 DSM-Ⅳ진단범주들이 제시되어 있다. 각 범주는 다시 하위범주들로 나뉘는데 임상가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이 가운데서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고, 혹은 DSM-Ⅳ의 다른 진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진단범주들의 예로는 항정신물질사용장애,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그리고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정명숙·손영숙·정현희 공역, 2004).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를 정서문제 혹은 행동문제로 나누고 있으나 많은 아동들은 정서문제와 행동문제를 혼합된 양상으로 보인다(박진자·이승희, 2002). 정서문제는 주로 심리내적인 억제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외로움, 사회적 위축, 우울, 두려움 등의 내재화문제를 말하고 행동문제는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있는 문제들로서 공격성, 과잉행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등의 외현화문제를 말한다(정명숙·손영숙·정현희 공역, 2004). 그러므로 정서·행동장애는 내적인 정서 측면과 외적인 행동 측면을 모두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김미경 외, 2007).

<표 II-8>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처음 진단되는 DSM-IV장애들

A.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① 경도 정신지체(Mild Mental Retardation)
② 중등도 정신지체(Moderate Retardation)
③ 중도 정신지체(Severe Mental Retardation)
④ 최중도 정신지체(Profound Mental Retardation)
⑤ 불특정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Severity Unspecified)
B. 학습장애(Learning Disorders)
① 읽기장애(Reading Disorder)
② 산술장애(Mathematics Disorder)
③ 쓰기장애(Disorder of Written Expression)
④ 불특정 학습장애(Learning Disorder NOS)
C. 운동기술장애(Communication Disorders)
① 발달성 근육운동조정장애(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D. 의사소통장애(Communication Disorders)
① 표현성 언어장애(Expressive Language Disorder)
② 혼재형 수용-표현성 언어장애(Mixed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Disorder)
③ 음성학적장애(Phonological Disorder)
④ 말더듬이(Stuttering)
⑤ 불특정 의사소통장애(Communication Disorder NOS)
E.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① 자폐장애 or 자폐증(Autistic Disorder)
② 레트장애(Rett's Disorder)
③ 아동기 붕괴성장애(Childhood Disintegrative Behavior Disorder)
④ 아스퍼거장애(Asperger's Disorder)
⑤ 불특정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NOS)
F. 주의결핍-파괴적 행동장애(Attention-Deficit and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
②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③ 반항성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G. 급식 및 식이장애(Feeding and Eating Disorder)
① 이식증(Pica)
② 반추장애(Rumination Disorder)
③ 급식장애(Feeding Disorder of Infancy or Early Childhood)
H. 틱장애(Tic Disorders)
① 뚜렛장애(Tourette's Disorder)
② 만성적 운동 / 음성틱장애(Chronic Motor or Vocal Tic Disorder)
③ 일과성 틱장애(Transient Tic Disorder)
④ 불특정 틱장애(Tic Disorder NOS)
I. 배설장애(Elimination Disorders)
① 유뇨증(Enuresis)
② 유분증(Encopresis)
J. 기타 장애(Other Disorders of Infancy, Childhood, or Adolescence)
① 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
② 반응성 애착장애(Reactive Attachment Disorder)
③ 선택적 무언증(Selective Mutism)
④ 상동증적 운동장애(Stereotypic Movement Disorder)

출처: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statistic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text rev. ed.). Washington, D.C.: Author.

② 경험적 접근에 의한 분류체계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분류하는 경험적 접근은 임상적 접근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서로 관련된 행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경험적 접근의 일반적인 절차는 응답자로 하여금 아동이나 청소년이 특정 행동을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얻어진 정보를 수량화한다. 어떤 특성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0', 그 특성을 중간정도로 나타낸다면 '1', 그 특성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면 '2'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다음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문항들 간의 상관이 계산되고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문항의 집단을 파악한다(Achenbach, 1998). 이러한 집단을 요인 혹은 군집이라고 하며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행동들을 기술하기 위해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경험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거나 임상적 판단 절차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임상가의 견해에 의존하기 보다는 분류의 틀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로 경험적 혹은 통계적 절차를 사용한다(정명숙·손영숙·정현희 공역, 2004).

이러한 절차를 통해 두 가지 '광의'의 일반적 행동 혹은 특성의 군집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갖게 되는데 이 중에서 한 군집은 내재화, 과잉통제, 혹은 불안·위축과 같은 용어로 불려 왔으며 이 군집과 관련된 특성은 불안한, 수줍어하는, 위축된, 우울한 등으로 기술된다. 두 번째 군집은 외현화, 과소통제 혹은 품행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 왔는데 싸움, 성질부리기, 반항, 파괴성 등이 이 유형과 관련된 특징들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광의의 군집을 도출하기 위한 아동행동 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는 4~18세 아동의 부모들이 작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 자기보고(Youth Self-Report : YSR)는 11~18세의 청소년들 자신이 직접 응답하게 되어있다. 이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협의'의 8가지 증후군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증후군들 중 세 개는 내재화 범주에 속하고 두 개는 외현화 범주, 그리고 세 개는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증후군은 <표 Ⅱ-9>에 제시되어 있다. 평가를 받은 아동들은 각 증후군에 대한 점수를 얻으며, 특정 아동에 대한 증후군 별 점수의 프로파일

이 그려진다(정명숙·손영숙·정현희 공역, 2004).

분류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은 아동과 청소년을 몇 가지 차원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DSM의 임상적 접근과는 차이점이 있다. 두 접근간의 첫 번째 차이점은 어떻게 장애의 집단들이 정의되고 형성되는가, 즉 경험적 합의에 의해서 정의되는가 임상적 합의에 의해서 정의되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분류에 대한 경험적 접근에서는 문제를 범주적으로 보지 않고 차원적으로 보는 것으로 개인 간의 차이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이며 정상과 비정상 간의 차이로서 종류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Achenbach, 2000).

<표 Ⅱ-9> CBCL-YSR에 공통되는 8가지 증후군과 대표 문항

내재화 증후군		
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
혼자 있음	피곤	잘 운다
수줍음	몸살	겁, 불안
위축	복통	슬픔, 우울
혼합된 증후군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어린 행동	헛것을 들음	주의집중문제
놀림 받음	헛것을 봄	안절부절 못함
아이들이 싫어함	이상한 생각	충동적
외현화 증후군		
비행	**공격성**	
가책 없음	남을 괴롭힘	
나쁜 친구	남의 물건 파괴	
집에서 도벽	싸움	

자료출처 : 정명숙·손영숙·양혜영·정현희 공역(2001). 아동기행동장애(제4판). (p. 109).

또한 분류에 대한 경험적 접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준거로 정상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활용한다. CBCL과 YSR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개개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규준이 있다. 아동

과 청소년 개개의 점수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의뢰된 집단의 규준에, 혹은 정신 건강 서비스에 의뢰되지 않은 규준에 비교될 수 있으며, 규준은 정보 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성별, 연령별로 각각 따로 마련되어 있다(Achenbach & Rescorla, 2001).

3) 정서·행동문제의 원인

정서·행동문제는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매우 다양하다.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은 심리적인 요인, 기질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및 신경생리학적 요인 등 아동의 개인 내적 측면에서 찾는 입장과 아동의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등 개인 외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견해, 그리고 핵심적인 원인과 다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거나 누적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이성희, 2002). 내적 원인은 소인이라고도 명명하며 유전적인 성향, 체질 등 그 사람이 정서·행동문제를 겪게 될 소질을 의미하고, 외적요인은 심리적 원인, 가족적 원인, 사회적 원인 등 정서·행동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의미한다(추정선, 2005).

대체로 학자들의 다양한 분류를 종합해 보면 생물학적 요인으로서의 내적인 요인과 가정과 사회, 학교와 같은 외부환경으로서의 요인이 적절하게 조화되지 않았을 때 정서·행동문제가 나타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정서·행동문제를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물학적 원인

예전의 생물학적 이론은 신체적 특성, 체격과 유전 등을 통해 설명한 반면 최근의 생물사회학적(biosocial)이론에서는 개인적 소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식습관이나 영양소 결핍에 따른 신체적 화학작용 과정과 같은 생화학적 요인이나 신경계의 기능장애 그리고 학습 무능력 등의 요인을 중시하고 있다(정옥분, 2008). 정서·행동문제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학자들은 행동은 생화학

적, 신경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유전, 아동의 기질, 뇌손상, 영양 손실, 생화학적 불균형,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서·행동문제에 있어서 생물학적 요인이 장애의 단일 근거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소현·박은혜, 2006).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전이나 기타 체질상의 요인들이 특정 행동 패턴을 발달시키는 상황을 조성해 준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김은화, 2007).

① 유전적 요인

유전적 요인은 인간 행동이 유전자와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그 변형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방명애·이효신 공역, 2004). 행동발달에서 유전의 영향은 동 수준이나 개인 수준 양쪽에서 매우 복잡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환경 조건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습득하여 환경을 물리적으로 조작하고, 세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정서적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유전 프로그램은 그와 동시에 개인별 특성을 다르게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정명숙·손영숙·정현희 공역, 2004). 기분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은 유전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assarath, 2001).

유전자는 어떤 특성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며 유전자의 작용을 개시하였다가 멈추기도 하면서 변화와 안정성 양쪽에서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유전적으로 주어진 것과 개인에게서 실제로 관찰되는 것 사이의 경로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접적이고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유전의 영향력은 결정적이지만 그 영향력은 환경의 영향과 연합하여 작용한다(정명숙·손영숙·정현희 공역, 2004).

② 생화학적 / 신경학적 요인

신경계의 기능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 기질적 요인의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이상 발달이나 이상 기능은 신경계의 발달을 이끄는 유전자 과정의 이상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능 이상은 출생 시부터 이미 예정되었을 수 있으며 임신 중, 출산 시, 출산 후에 일어난 일 등이 기능 이상을 유발했을 수 있다. 자폐나 정신분열증의 경우 일부는 신경학적 이상의 증거를 보이기도 한다(Prior & Werry, 1986).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결핍은 비만, 강박, 충동장애, 섭식장애, 사회적 공포증, 월경증후군, 불안과 공포, 편두통 그리고 극심한 폭력과 관련되어 있다(Lemonick, 1997). 신진대사 요인으로 정신분열증, 자폐증 그리고 심한 장애아동과 성인들은 비타민 결핍 때문에 생화학적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Hoffer & Osmond, 1966 ; Pauling, 1968 ; Rimland, 1971). 그러나 생화학적/신경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유망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서·행동장애의 원인을 밝히는 문제에 있어 결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방명애·이효신 공역, 2004).

③ 기질적 요인

Kagan(1984)은 사람에게는 기질이라고 불리는 출생 시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행동양상이 있으며, 그 기질에는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둔한 기질 등이 있어 모든 아동은 출생 시 서로 다른 기질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의 경우 기질적 손상이나 질병의 증거 없이 신체적으로 건강해 보이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모든 아동들이 생물학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는다. 비록 한 아동의 선천적 기질 자체가 행동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문제 요인은 될 수 있다., 착한 기질을 가진 아동에게서는 이상 행동이 보이지 않지만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정서·행동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김미경 외, 2007).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는 아동이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성향을 지닌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김은화, 2007).

④ 성별 요인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자가 더 공격적이고 지배적이며 활동적이고 모험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여자는 더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조용하고 민감할 것으로 기대되어 행동기준은 성별에 따라서 행동기준이 정해져 성별 고정관념이 정상성에 대한 판단지침이 되기도 한다(정명숙 외 공역, 2004).

아동기 행동장애와 성별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흔히 많은 장애가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빈번히 일어난다고 한다(Rutter & Sroufe, 2000).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비롯되는 성별에 따른 장애발생의 차는 생후 일찍부터 나타나며 문제행동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Weinberg, Tronick, Cohn, & Olson, 1999). 유병률의 성차는 여러 가지 발달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장애에 더 취약할 수 있는데 이는 남성이 보유하고 있는 Y 염색체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심리학적 요인도 성별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생물학적 위약성이 성 역할에 따른 사회화와 서로 다른 경험, 그리고 사회적 기대와 상호작용해서 장애 비율의 성차를 가져올 수도 있다(Jensen et al., 1990). 성 역할의 사회화는 다른 행동문제들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자와 여자는 무질서한 환경, 스트레스, 부모의 병리 등으로부터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Cicchetti & Sroufe, 2000).

유병률에서 성별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가 공격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여성이 공격성의 정의에 들어있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되고 있어 공격성의 정의에 있어 여성 고유의 공격적 행동을 공격성에 포함할 경우에는 여성의 공격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Wicks-Nelson & Israel, 2003).

⑤ 연령요인

연령은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전형적인 속도와 순서는 발달의 규준 역할을 하게 된다. 발달의 규준을 이루어낸 후에도 어릴 때의 행동으로 퇴행

할 수도 있고, 규준에 맞는 행동일지라도 너무 자주 또는 너무 짧게 지속되거나 너무 강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지연, 퇴행, 비전형적 강도 및 예기치 못한 변화 외에도 드물지만 규준과는 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행동을 나타낸다. 즉 정상적인 발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행동을 나타낼 경우 장애 판단을 내릴 수 있다(Wicks-Nelson & Israel, 2003).

그러므로 생물학적 연령은 발달 수준과 밀접한 상관이 있어 장애가 시작되는 연령에 대한 지식은 장애의 원인과 심각성 그리고 결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다른 여러 규준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정명숙 외 공역, 2004).

(2) 심리·사회적 원인

① 심리적 요인

정서·행동의 발달은 심리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적응이든 부적응이든 모두 그 안에서 일어난다.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청소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영향 안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환경의 영향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 가지의 환경적 요인이 독자적으로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기는 매우 드물며 빈곤, 학대, 방치, 부모의 스트레스, 일관적이지 못한 기대, 사회적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수연, 2008).

추정선(2005)에 의하면 심리적인 원인으로서 개인의 본능적 충동과 그와 관련된 감정들이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들 내적인 본능적 충동들은 대인관계 및 사회관계를 통하여 여러 형태의 관련된 심리적 감정반응을 만든다. 이때 부정적인 감정은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리적 원인 중에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갈등 요인이 있다. 갈등은 두 가지 상반된 충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충동과 사회문화적 요구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상실을 들 수 있는데, 사랑의 상실, 자존심의 상실, 죽음, 이별 등은 절망, 미움, 분노, 억압 등과 합병하여 정서·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근원으로 보고 있다(김은화, 2007).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성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된다(정옥분, 2005). 청소년의 문제행동 원인을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김애경, 2001), 자기통제력(하영희·김경연, 2003), 우울(Capalidi, 1992) 등과 같은 내적 변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권정연, 2006).

② 가족적 요인

가족은 서로 관련되어 영향을 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 내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청소년 자신과 그들의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오윤선, 2006). 가족은 아동과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보다 원심에 있는 맥락들을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족의 애착과 지속적인 상호작용, 구조와 역할, 경제 상태, 태도와 가치는 정상행동과 문제행동이 발달하는 중요한 맥락을 구성한다(정명숙 외 공역, 2004).

㉠ 구조적 측면

많은 연구들은 가정의 구조적, 물리적 환경이 문제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왔다. 가장 흔하게 다루어진 주제 중 하나는 결손가정과 빈곤가정으로 결손가정에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계부·계모가정이 포함되며 부부가 이혼했거나 별거가정일 때도 준 결손가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결손가정은 가족역할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역할구조상의 변화를 가져오며 사회의 재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일부는 정서·행동문제의 위험에 처해있으며, 이혼율의 증가로 발생하게 되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의 아동과 청소년 또한 다른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적응문제를 나타낼 위험이 더 높다(박영신·김의철, 2001).

빈곤가정에는 금전적 부족이 큰 절대 빈곤가정과 희망하는 문화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써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적 빈곤가정이 포함된다. 빈곤가정의 경우 절대적 빈곤은 인간을 열등감에 빠뜨리고 무기력하게 하며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 시킴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격적 행위로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또한 빈곤가정은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여 요인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서·행동장애의 38%가 극빈층에서, 32%는 저소득층에서 출현했다는 보고가 있다(Fujiura & Yamaki, 2000; Hosp & Reschly, 2002).

㉡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태도

권지은(1999)은 청소년 비행 유발 요인에서 가정의 기능적 측면이 구조적 측면보다 비행의 진단 및 예측에 우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족의 구조적, 물리적 환경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개의 경우 물리적 환경 특성만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 가족 내 상호작용의 질적인 문제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권복순(2000)은 다양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 중에서 가족 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가족 내의 역할, 규칙, 힘 등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미애(1997)는 의사소통이란 언어적, 비언어적인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여 구성원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해나가도록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였고, Pearson(1992)은 다른 사람과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고 유지시키는데 관계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가족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개방성이 수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부모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반응은 자녀의 올바른 인성이나 행동발달에 도움을 준다. 반대로 의사소통이 부정적이고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자녀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함을 인식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인

다(하영희, 2004).

또한 부모의 양육방법은 자녀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정서·행동 특성은 부모의 양육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녀에 대한 반응과 요구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최적의 양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과 요구수준을 적절하고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자녀양육의 중요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Baumrind, 1996). 사랑과 증오의 차원에서 부모가 온화함, 수용, 애정, 인정, 합리적 양육방법을 사용하고 칭찬 해주기, 신체적 체벌 적게 가하기 등 긍정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자녀 역시 원만한 대인관계, 높은 자존심, 그리고 확고한 자아정체감 등을 형성하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거부, 증오,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는 학업성적의 부진, 대인관계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된다(윤진, 1992).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가출, 폭력, 비행, 범죄 등은 대부분 아동기 때부터 이어져 온 부모의 무관심, 거부, 애정결핍, 학대행위 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율성과 통제의 차원에서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적절히 보장해 주고 본인의 능력개발, 습관형성을 도와주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청소년은 청결한 행동, 질서 정연함, 부모·형제나 기타 아이들에 대한 공격 행동 억제 등의 결과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지나친 통제를 통한 자율성 발달저해는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서 진취성, 창의성, 리더십 등의 발달을 방해하고 위축된 태도와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한상철 외, 2003).

Werry 등(1987)은 행동장애로 진단받은 군과 정상군의 가정을 비교할 때 행동장애 군 가정의 특성은 일관성이 없고 처벌적인 훈육방식, 부모의 부적절한 감독,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분노의 폭발적인 표현방식, 대인관계 상의 갈등,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 부모의 범죄, 대가족, 낮은 수입, 나쁜 주거 상태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무관심과 불충분한 감독 체제는 가족 내의 갈등이나 가족의 구조적 붕괴보다 청소년의 비행이나 폭력 행동에 보다 강한 설명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학대적이거나 가혹한 훈육방식, 일관성 없는 훈육 양상도 문제행동 양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조수철·남민, 1994에서 재인용).

③지역사회 및 학교·또래관계 요인

Tolan, Gorman-Smith, 및 Henry(2001)는 사회적인 요인으로서 학교는 학생의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들 중에는 학령기가 되기 이전부터 문제를 보이기 시작한 아동들도 있지만 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도 있다.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킨다는 단순한 인과론에 대해서는 입증하기 어렵지만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 등이 또래나 교사의 행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이소현·박은혜, 2006).

교사는 아동들의 서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White & Kistner, 1992), 학교는 일차적으로 사회에 축적된 지적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전달하고 사회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Wicks-Nelson & Israel, 2003). 그러나 입시 위주의 학력주의 교육체제에서는 고학력주의의 교육, 입시와 진학 중심의 교육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중학교는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준비 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준비 과정에 불과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긴 시간 동안 긴장이 계속되면서 인격, 정서, 신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맞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낙오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일탈과 병리를 부축일 수 있다(서울특별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0).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집단은 장·단기적인 사회적 및 인지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발달적 맥락을 제공한다(Dunn, 1996). 또래관계는 다른 관계로부터는 배울 수 없는 특수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성과 친밀성의 발달, 협동심과 상호성의 고취, 갈등의 협상과 경쟁, 공격성의 통제, 성 정체감과 성 역할의 사회화, 도덕성의 발달, 그리고 공감의 발달에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정명숙 외 공역, 2004). 아동의 또래관계는 아동기 이후의 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Parker & Asher, 1987; Realmuto, August, & Hektner, 2000; Woodward & Fergusson, 2000), 어린 시절에 경험한 또래의 거부는 아동기 이후의 공격성과 비행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aird et al., 2001).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아동과 사회

적으로 고립된 아동들도 이후에 적응의 어려움을 갖게 될 위험에 처한다(Newcomb et al., 1993; Rubin, Stewart, & Coplan, 1995).

또래관계의 어려움은 행동문제 및 장애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성공적인 또래관계는 여러 가지 불리한 요인에 직면해도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성공적인 또래관계는 예방적 기능을 하며 아울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여 준다(Cicchetti, Toth, & Bush, 1988; Sroufe et al., 2000).

(3) 문화·인종적 요인

지금까지 논의해 온 맥락들은 더 큰 맥락인 문화 안에서 작용한다. 사회의 신념과 가치, 사회 구조,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일이 처리되는 방식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수민족 집단의 아동과 청소년은 주류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행동적 역기능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연구보고가 있다(Krernmo & Heyerdahl, 1998). 소수민족 집단의 아동과 청소년은 문화적 변화가 비자발적이며 편견과 차별의 위험에 놓이게 되어 문화적 정체감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건강, 정서·행동문제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Clark et al., 1999; Compas et al., 2001).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정서·행동문제 관련 선행연구

단일민족국가의 형태에서 타인종 사람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남성과의 혼인을 통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성장하여 이미 청소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애초부터 다인종국이었던 서구사회와는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외 관련 선행연구를 제외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관련 선행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관련된 연구가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않아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등 유사한 선행연구를 찾아 연도순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Ⅱ-10>과 같다.

<표 Ⅱ-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관련 선행연구

번호	저자 (년도)	제 목	내 용
1	김경란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화를 형성해 가는 시기에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언어문제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어 이들이 자아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겪고 방황하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한다면 장차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회복지적 지지체계를 모색하고 제반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응력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체류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한국 문화의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증가하고, 셋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하위개념 중 자존지지가 사회적응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사회적 자아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매우 높은 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생활에의 적응, 자아개념,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응력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체계화된 지지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며, 사회적 지원 체제 밖에서 떠도는 부적응 다문화가정 자녀와 불법 체류자가정 자녀들을 사회적 지원 체제 안으로 끌어 들여 이들이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므로 편협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송선진 (2007)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이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화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문화 교육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연구로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일반아동에 비하여 전체적인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미래 확신

<표 Ⅱ-10> 계속됨

번호	저자 (년도)	제 목	내 용
		미치는 영향	성, 주도성, 친밀성의 발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낄수록, 한국어 실력이 낮다고 느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첫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한다. 둘째,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인간 삶의 교육의 내용이 더욱 실천적이고 구체화하여 실생활 속의 다양한 편견들을 직접 제시하고 이를 타파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차별 해소에 더욱 유용할 수 있다. 셋째. 학교 전체를 문화적 평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다문화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는 교사의 다문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나 장학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넷째, 사회과, 국어과, 역사과, 지리과, 도덕과 등 다양한 교과들이 다문화 교육의 원리를 반영하여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박은정 (2008)	초등학교 고학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안	이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인 다문화가정 자녀가 그들의 발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집단 상담을 통해 개방하고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연구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을 탐구하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프로그램을 위해 교사의 요구조사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자아개념 검사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평균 영역별 점수를 백분위로 보았을 때 40~57사이를 보이고 어느 영역이 낮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우리와 비슷할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보통의 자아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좀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체외모자아, 신체능력자아, 학습관련자아, 부모관계자아, 일반자아 영역의 관심과 지도가 요구 된다고 하였다.
4	남윤주 (2009)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관한 비교연구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을 중심으로 탐색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이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과 높은 우울을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낮게 지각하고 있었고, 경제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어머니의 국적별로 개별적인 변인들의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가정 아동과 달리 다문화가정 아동은 어머니 애착 변인군이 자아개념과 우울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 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심리적 적응 수준이 낮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어머니 애착이 특히 중요함을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아동의 우울과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영향력이 어머니 국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어머니 국적에 따른 문화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모교육과 아동교육에 세심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관련 선행연구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유사하게 관련된 환경과 학교부적응, 환경과 성장, 또래상호작용, 형제·자매에 대해 연구된 선행연구를 찾아 연도순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Ⅱ-11>과 같다.

<표 Ⅱ-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관련 선행연구

번호	저자(년도)	제 목	내 용
1	오성배 (2005)	코시안의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것은 단일민족의 자긍과 폐쇄적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고정관념의 틀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새로운 역할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열악하여 코시안 아동들의 언어 학습 능력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아동들의 정체성과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외모의 차이와 어머니가 외국 출신이라는 점이 대인관계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코시안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요인인 어머니와 학교의 실태임을 확인 하였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언어와 문화, 그리고 대인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언어 학습 능력과 정체성 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입학 후에도 잘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어려움에 대한 경중의 차이가 존재하며 코시안 아동의 성장환경이 다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2	신효선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지각하고 있는 생활환경 수준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의 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 정도는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가정환경에서는 부모의 관심, 학교환경에서는 친구관계를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성별과 어머니의 학력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문화적 특성에 따른 학교부적응의 차이는 외모가 다르다고 느낄수록 학교부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아동의 한국어 사용 능력,과 부모님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나 가정 내 사용언어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생활환경 유형 중 물리적 가정환경에서는 경제생활수준이, 정서·심리적 가정환경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환경에서는 학교수업과 친구관계가,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이 각각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1> 계속됨

번호	저자 (년도)	제 목	내 용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교육비와 생계보조비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을 연계, 제공해야 하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기술 등 맞춤형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가정 부모들과의 통로를 제공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또 외모의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편견, 왕따 등을 겪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지역 사회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복지사는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혜택 등에 늘 민감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이수연·이승희 (2008)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와 정서·행동문제의 관련성	이 연구는 중학생의 형제·자매관계의 특성과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유형을 파악하고 형제·자매관계가 정서·행동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대부분의 연구가 비행, 공격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등의 외현화문제만을 다룬 것과는 달리 내재화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서·행동문제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K-YSR로 측정된 정서·행동문제는 11개의 하위척도에서 3.6%~20.4%가 임상범위에 있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내재화문제만 보이는 비율이 7.8%, 내재화문제만 보이는 비율은 10.2%,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모두 보이는 비율은 10.3%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의 형제·자매관계를 하위요인별로 살펴 본 결과 갈등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온정/친밀감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즉 형제·자매관계에서 갈등이 감소한다면 정서·행동문제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임상집단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과 정서·행동문제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과 함께 고등학생도 포함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 관계 선행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 관계에 대한 유사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연도순으로 정리해 보면 <표 Ⅱ-12>와 같다.

<표 Ⅱ-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 관계 선행연구

번호	저자 (년도)	제 목	내 용
1	유영창 (1999)	문제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이 연구는 최근 초등학교 학급에서 집단에서 소외되고 위축되어 있거나 학급의 규칙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아동의 문제행동들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분석해보고, 문제행동을 지각하는 아동과 교사의 시각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문제행동은 남자 어린이들이 여자 어린이들에 비해 과잉행동과 공격행동, 위축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어행동은 성별 간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 차이는 고학년 어린이들이 저학년 어린이들에 비해 문제행동들의 모든 하위척도에서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행동 하위척도 중 공격행동은 도시지역 어린이들이 농촌지역 어린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제행동과 자아개념은 부적상관을 나타내며 어린이들의 문제행동 중에서 특히 과잉행동과 공격행동, 위축행동을 많이 하는 어린이들은 자아개념이 낮게 나타났다. 교사와 아동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도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남교사들이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하여 여교사들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내재화된 문제행동은 교사 집단보다 여자 어린이 집단이 더욱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교 상담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	신호임 (2004)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서 가정환경, 성별, 학년에 따라 문제행동의 빈도와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고, 문제행동과 자아개념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초등학교 아동의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위한 연구이다. 첫째, 가정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행동 빈도는 부모와 함께 조부모 또는 조부/조모와 동거하는 아동이 문제행동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행동 빈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으며, 학업 불성실 및 수업과 관련된 행동과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행동 빈도는 학년이 높아갈수록 많았으며 학습과 관련된 문제행동보다는 소극적/회피적 문제 행동들로 나타났다. 넷째, 문제행동과 총자아개념간에는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이 문제행동과 의미있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신체적 자아개념은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부모와 타인의 지지가 중요한 아동기에 가정환경 변인인 가족구성이 초등학생의 행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행동인 학업 불성실, 수업과 교우관계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학년이

<표 Ⅱ-12> 계속됨

번호	저자 (년도)	제 목	내 용
			높아질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현상에서 아동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효과적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동들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의 관계에 주목하여 차별화된 생활지도와 함께 학문적 자아개념의 향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정서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하여 아동이 중요한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사들의 긍정적인 역할과 지지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3	이승미 (2007)	점토를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 가족 아동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문제를 나타내고 부정확한 발음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또래들과 어울리기 힘들고 배척 받으며, 부정적인 사회 행동은 또래관계에서 위축되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이나 다른 아동의 물건을 훔치는 등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보고 이런 모습은 또래 아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배척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외모적 특징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더욱더 눈에 띄게 되어 요주의 인물로 인식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하여 긍정적인 사회기술을 포함한 점토를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행동 빈도를 증가시켰고 동적학교생활화 검사의 총점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어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개인 내적 역량 증진,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4	박민서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로 성별, 학년, 지역, 함께 사는 가족 수, 지지정도, 아동의 한국어 능력, 외모의 차이라는 독립변수를 적용하여 관련변인과의 예측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가족, 친지, 교사의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지의 정도는 아동의 한국어 실력보다 아동의 학교적응도에 2배 정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한국어실력, 지지정도라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성별, 학년, 지역, 가족수, 외모의 차이 등은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나타내 대상아동의 학교적응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관련변인 선행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및 그와 유사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Ⅱ-13>과 같다.

<표 Ⅱ-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관련변인 선행연구

번호	저자 (년도)	제 목	내 용
1	노현숙 (2002)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의 관련성 연구	이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나 학교 밖의 생활에서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이 성별, 학년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또 문제행동이 성별, 학년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조사연구를 하였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문제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과 지역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문제행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도시일수록 많이 나타나고 과감해지고 친구와의 접촉도 많고 유혹의 손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농촌지역 학생들의 가정환경 문제가 훨씬 심각한 학교생활 부적응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문제행동을 나타낸 학생들의 대부분이 가정영역자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2	윤선숙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자아개념, 자의식 및 사회불안의 관계	이 연구는 양친이 모두 생존해 계시는 74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자기개념 및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다. 첫째, 부모양육행동에 따른 사회불안 수준의 차이는 부모양육행동을 높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라고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들의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개념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은 자기개념과 자의식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은 독립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들에서 자녀의 자기개념이나 자의식등 인지적 변인들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세계화, 국제화 추세와 맞물려 빠르게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배타적인 사회·문화적 신념과 태도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는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장에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 문화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표 Ⅱ-13> 계속됨

번호	저자 (년도)	제 목	내 용
			변수와 자아정체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분포율이 높았다. 둘째, 언어적 특성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79.0%가 스스로 한국어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셋째, 28.7%가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차별 받고 있다고 하였고 30.2%는 피부색이나 생김새로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차이에서는 어머니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할수록,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어를 잘 할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문화를 더 많이 즐길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아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정체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한국어를 잘 할수록, 친구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교육관계가 좋을수록, 학교행사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정체성도 높아지며, 규칙준수관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적응과 올바른 교우관계를 위한 학교의 제도적인 노력과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과 자녀가 어머니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 문화공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경제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의 다양성을 교육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4	이희정 (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거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정적 지지, 사회적 지지, 다문화특성, 자아정체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각 변수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자가 52.4%, 여자가 47.6%이며 연령은 13세가 33.9%로 가장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고 71.8%가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적 특성은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83.5%.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 7.8%, 부모 모두인 경우가 8.7%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9.5%로 가장 많은데 비해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2.7%로 아버지 학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도 아버지의 직업은 농업이나 일용직, 무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를 제외하면 좀 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모님 나라에 대해 농담하는 것에 40.8%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37.9%에 비해 높게 나타

<표 Ⅱ-13> 계속됨

번호	저자(년도)	제 목	내 용
			났으며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중문화 수용부분에서는 부모님 나라보다 한국을 좀 더 선호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어를 잘 할수록 주체성이 높고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기수용성과 친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적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중문화를 잘 수용하고 자아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성적이 좋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성적이 좋을수록, 도시학생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이중문화 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백미숙(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아버지의 출신국이 한국이면서 어머니의 출신국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겪고 있는 부적응 원인이 낮은 자아존중감이라고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보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연구이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우리나라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정환경요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결속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환경요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지역사회의 자원활용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 경험이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 요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한국 거주 년 수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가정환경요인 중 가족의 결속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개인요인 중에서는 학업성취도가, 사회환경요인 중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개인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가족의 결속력이 높으며 교사와의 관계가 좋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관련변인 선행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변인에 대해 연구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유사하게 관련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아 내용을 연도순으로 정리한 것은 <표 Ⅱ-14>와 같다.

<표 Ⅱ-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관련변인 선행연구

번호	저자 (년도)	제 목	내 용
1	노필순 (2005)	중학생의 빈곤감, 가족 기능 및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중학생의 빈곤감,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빈곤감은 아버지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학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이 경제계층 낮다고 생각할수록, 성적에 대해 '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가족유연성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는 불교, 기독교 집단의 경우에서, 성적은 '그저 그렇다', '잘했다'의 순으로 높았으며,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사는 중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제행동에서 공격성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종교없음보다 낮게 나타났고, 경제계층은 '하류층'이라고 지각한 경우 높게 나타났다. 비행은 '중류층'보다 '상류층'과 '하류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우울과 위축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사는 중학생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빈곤감,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갈등을 많이 겪고 빈곤하다고 느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고 비행도 높아지지만 비행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갈등을 많이 겪을수록 불안/우울은 높아지지만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가족갈등을 많이 겪을수록 위축행동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서 여자 중학생의 공격성에는 가족갈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갈등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빈곤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여자 중학생은 빈곤감을 높게 지각해도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한 여자중학생보다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여자 중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한 여자 중학생보다 가족갈등을 자주 경험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2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	이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제결혼가정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이중문화 특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을 살펴보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실태를 파악한 다음 각 요소들 간의

<표 Ⅱ-14> 계속됨

번호	저자(년도)	제 목	내 용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적 함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어머니의 국적에서 남녀 비율이 거의 같게 나왔고 3, 4학년이 5, 6학년보다 많았으며 종교 유무는 개신교, 무교, 통일교, 천주교, 불교 순으로 나왔다. 국적은 일본, 중국, 필리핀으로 이들 국가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둘째, 이중문화 특성으로 90.9%가 부모님들이 대화 시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않거나 약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6.4%가 어머니에게서 언어를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73.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 69.1%가 알고 있고, 73.7%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70.9%는 친구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소개시켜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면에서 사회적 지지 평균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평균은 보통에서 약간 높은 수준으로 담임교사와의 관계, 규칙준수관계, 교우관계, 학교행사관계, 학습활동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는 부모님들이 대화 시 한국어를 사용하는 정도와 어머니가 언어를 가르쳐주는 정도, 자신의 외모를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한국어 능력 정도와 어머니 나라 언어능력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 나라를 좋아하는 정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 적응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섯째, 이중문화 특성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는 부모님들이 대화 시 한국어 사용 정도를 제외한 7가지 변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의 이중문화 특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국적이 중국, 필리핀, 일본 등의 다수가 있는 국적의 자녀일수록 학교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중문화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되며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적의 어머니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학교 적응에 꼭 필요한 언어 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이 요구되어 진다고 제안하였다.
3	이영주(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서 건강한 한국인으로서 적응적 삶을 살도록 정책이나 프로그램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첫째,

<표 Ⅱ-14> 계속됨

번호	저자 (년도)	제 목	내 용
		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 학년 수준, 어머니 국적, 부 직업유무, 생활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위험 요인으로 6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개인적 요인, 심리적 소외감요인, 학습부진이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보호요인은 문화관련요인, 친구관련요인, 주변인도움요인, 신앙관련요인, 학교관련요인, 교사관련요인의 7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친구관련요인, 학교관련요인 및 가족관련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6개 위험요인과 7개 보호요인의 상관관계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간에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섯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 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개인적 위험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심리적 소외감 위험요인, 주변인도움보호요인, 학교관련위험요인, 친구관련보호요인, 교사관련보호요인의 순으로 나타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어머니의 국적이 베트남, 중국, 필리핀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개인적 요인, 심리소외감요인, 학교관련요인의 영향력이 큰 반면 보호요인은 친구관련요인과 학교관련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즉 또래의 지지와 원활한 친구관계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위험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자신감 결여, 우울 등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교사들의 연수프로그램, 또래가 함께하는 집단프로그램의 개발, 다문화가정 아동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개발, 다문가정 아동의 이중 언어 학습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4	이윤호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육환경, 개인적 특성, 사회적 요인등을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와의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분석하여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방안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이다. 부와의 애착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일반가정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모와의 애착의 경우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도 일반가정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사회적 지지도 일반가정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하위범주인 친구지지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또래 집단에서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심리적 지지와 안정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생활 실태와도

<표 Ⅱ-14> 계속됨

번호	저자 (년도)	제 목	내 용
			연관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여러 주변 환경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더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의 영향력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이 모와의 애착, 자존감,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학교적응이 높아지지만 부와의 애착은 낮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의 성공경험을 통한 자존감의 향상, 그리고 아동 주변의 친구, 교사, 가족 등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친구지지, 자존감,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순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와의 애착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일반가정아동의 경우에는 자존감, 교사지지, 모와의 애착 순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서 친구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의 자존감,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 여부가 이들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케 하는 결과라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라남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정도와 수준 그리고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와 유형을 알아보고,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자아개념이 관련변인들(성별, 학년, 종교유무, 거주지역, 가족형태, 부 나이, 모 나이,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유무, 모 직업유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정서·행동문제가 관련변인들(성별, 학년, 종교유무, 거주지역, 가족형태, 부 나이, 모 나이,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유무, 모 직업유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인 아버지와 한국남성과의 혼인을 통한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2009년 4월 현재 전라남도 내 5개 시와 17개 군 소재 107개 중학교와 48개 고등학교(일반계, 실업계 모두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2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1, 2, 3학년을 모두 포함시켰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총13명)을 제외한 1, 2학년만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 중 하나인 K-YSR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검사이기 때문이다. <표 Ⅲ-1>은 전라남도 내 5개 시 및 17개 군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Ⅲ-2>는 29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227명의 연구대상 및 가족에 대한 기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Ⅲ-1> 연구대상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지역청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소계	
목포	7	8	5	20	2	1	3	23
여수	6	5	4	15	2	2	4	19
순천	7	8	5	20	5	8	13	33
나주	7	5	5	17	5	4	9	26
광양	1	·	2	3	3	3	6	9
담양	4	1	4	9	1	·	1	10
곡성	6	2	2	10	2	1	3	13
구례	2	2	2	6	1	1	2	8
고흥	7	3	2	12	1	·	1	13
보성	3	1	2	6	1	·	1	7
화순	9	6	7	22	5	5	10	32
장흥	2	3	5	10	5	2	7	17
강진	7	2	3	12	2	1	3	15
해남	2	1	·	3	·	·	·	3
영암	1	2	2	5	·	1	1	6
무안	5	8	4	17	2	2	4	21
함평	2	2	1	5	1	2	3	8
영광	1	1	1	3	1	2	3	6
장성	3	2	4	9	1	1	2	11
완도	2	1	1	4	·	·	·	4
진도	4	2	1	7	2	·	2	9
신안	2	·	1	3	·	·	·	3
계	90	65	63	218	42	36	78	296

자료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2009. 4). **통계로 보는 전남교육 2009**. (p. 238).

<표 Ⅲ-2> 대상 학생과 가족의 기초사항 (*N*=227)

변인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	100	44.1
	여	127	55.9
	계	227	100.0
학년	중 1학년	63	27.8
	중 2학년	51	22.5
	중 3학년	48	21.1
	고 1학년	34	15.0
	고 2학년	31	13.7
	계	227	100.0
종교 유무	없다	64	28.2
	있다	163	71.8
	계	227	100.0
거주 지역	시	53	23.3
	읍・면	174	76.7
	계	227	100.0
가족 형태	부부중심가족	222	97.8
	기타형태가족	5	2.2
	계	227	100.0
부 나이	36-40	11	4.8
	41-45	70	30.8
	46-50	101	44.5
	51-55	40	17.6
	56-60	4	1.8
	61-65	1	0.4
	계	227	100.0
모 나이	16-20	1	0.4
	21-25	6	2.6
	26-30	13	5.7
	31-35	14	6.2
	36-40	48	21.1
	41-45	57	25.1
	46-50	65	28.6
	51-55	23	10.1
	계	227	100.0

변인	구분	빈도(*n*)	비율(%)
부 학력	초졸	30	13.2
	중졸	42	18.5
	고졸	110	48.5
	대졸 (전문대포함)	36	15.9
	대학원졸	9	4.0
	계	227	100.0
모 학력	초졸	14	6.2
	중졸	26	11.5
	고졸	106	46.7
	대졸 (전문대포함)	70	30.8
	대학원졸	11	4.8
	계	227	100.0
부 직업유무	없다	26	11.5
	있다	101	88.5
	계	227	100.0
모 직업유무	없다	113	49.8
	있다	114	50.2
	계	227	100.0
모의 국적	몽골	2	0.9
	일본	19	8.4
	중국	109	48.0
	태국	43	18.9
	베트남	4	1.8
	필리핀	20	8.8
	캄보디아	21	9.3
	인도네시아	7	3.1
	우즈베키스탄	1	0.4
	기타	1	0.4
	계	227	100.0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듯이 기초사항, 청소년 자아개념, 청소년 자기행동문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사항 질문지

기초사항은 연구대상들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13개 문항(성별, 학교급별, 학년, 종교유무, 거주지역, 가족형태, 부 나이, 모 나이,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유무, 모 직업유무, 어머니의 국적)으로 구성되었다.

2) 청소년 자아개념 측정도구

청소년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아개념검사(Self Concept Inventory: SCI)(고진영·이경화, 2006)는 중·고등학생용으로 학문적 자아개념은 언어자아, 수학자아, 일반교과자아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학문적 자아개념은 일반자아, 신체능력자아, 신체외모자아, 이성친구관계자아, 동성친구관계자아, 부모관계자아, 정서적 안정성자아, 정직/신뢰자아의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11개요인 10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1점(전혀 아니다), 2점(거의 아니다), 3점(약간 아니다), 4점(약간 그렇다), 5점(거의 그렇다), 6점(아주 그렇다)의 6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점수범위는 102점에서 612점으로 하위요인의 항목들로 계산되며 원점수를 규준에 맞춰 표준점수(*T*점수)와 백분위점수로 변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백분위(P) 75점 이상은 해당 영역의 자아개념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75점 미만에서 25점 이상은 자아개념이 평균 정도로 보통의 수준, 25점미만은 낮은 자아개념으로 해당 영역의 자아개념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중·고등학생용 SCI의 타당도는 요인별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문항분석과 요인분석 결과에 의해 재구성한 11개 요인, 102문항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한 결과 하위문항들의 부하량이 .40이상으로 내적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76이다.

본 연구에서 11개 하위요인 및 전체자아에 대한 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 <표 Ⅲ-3>과 같이 .608에서 .946까지로 나타났다.

<표 Ⅲ-3> 청소년 자아개념척도의 내적합치도 (N=227)

구분	하위척도	문장수	남자	여자	전체
학문적 자아개념	언어자아	10	.771	.765	.767
	수학자아	10	.897	.824	.912
	일반교과자아	10	.917	.922	.920
비학문적 자아개념	신체외모자아	8	.858	.856	.857
	신체능력자아	8	.849	.868	.860
	동성친구관계자아	10	.850	.863	.862
	이성친구관계자아	10	.849	.758	.807
	부모관계자아	8	.795	.774	.783
	정서적 안정성자아	10	.683	.735	.713
	정직/신뢰자아	10	.608	.659	.640
	일반자아	10	.817	.842	.831
전체자아		102	.939	.946	.943

3)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

청소년 정서·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오경자 외, 2001)를 사용하였다. 미국판 YSR은 11~18세 청소년이 자신의 적응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Acheabach(1991)가 개발한 것을 국내에서 오경자 등(1998)이 표준화하였는데 한국판 YSR에서는 11세와 18세를 제외하고 만 12세에서 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K-YSR은 사회능력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문제행동증후군척도(Behavior Problem Scale)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능력척도를 제외한 11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를 사용하며 평가는 0점(전혀 없다), 1점(가끔 보인다), 2점(매우 심하다)의 3점 척도로 총문제행동증후군 점수는 바람직한 긍정문항 16개와 문항 2번 알레르기와 문항 4번 천식의 경우 보고되는 빈도가 낮아 임상집단과 정상집단간의 변별력이 매우 떨어지므로 문항 2와 문항 4를 제외한 101개 문항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점수범위는 0점에서 202점까지이다. 문제증후군척도에는 위축척도, 신체증상척도, 불안/우울척도, 사회적 미성숙척도, 사고의 문제척도, 주의집중문제척도, 비행척도, 공격성척도와 내재화문제척도, 외현화문제척도 등 모두 10개의 문제행동증후군척도와 총문제행동척도를 포함한 11개 척도와 남자청소년에게만

<표 Ⅲ-4> 청소년 문제행동증후군척도의 내적합치도 (*N*=227)

증후군 척도		문항수	남자	여자	전체
하위영역별척도	사회적 위축	7	.77	.77	.77
	신체증상	9	.83	.80	.82
	우울/불안	16	.88	.85	.86
	사회적 미성숙	8	.67	.64	.65
	사고의 문제	7	.66	.73	.70
	주의집중문제	9	.71	.58	.65
	비행	11	.71	.72	.72
	공격성	19	.88	.78	.84
	자해/정체감	12	.83	--	--
내재화문제척도		31	.91	.90	.90
외현화문제척도		30	.90	.83	.87
총문제행동척도		101	.95	.94	.95

적용되는 자해/정체감문제척도로 총 12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척도의 원점수는 표준점수(T점수)로 변환한다. 내재화척도, 외현화척도, 총문제행동척도는 각각의 표준점수(T점수)가 63점 이상일 때 임상범위로 판단되고, 8개의 하위척도는 각각의 표준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임상범위로 판단된다. 각 문제행동증후군척도에 대해서 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Ⅲ-4>와 같으며 <표 Ⅲ-2>에서 보는바와 같이 Cronbach α 계수는 .63에서 .85까지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하며 남자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특수척도인 자해/정체감문제는 α =.73으로 K-CBCL(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7)의 특수척도와는 달리 비교적 양호한 내적합치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각 문제행동증후군척도에 대한 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Ⅲ-4>와 같이 .58에서 .95까지로 나타났고 남자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특수척도인 자해/정체감문제는 .83로 나타났다.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연구자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재학 중인 전라남도 내에 분포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담당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한 서한과 함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일부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병행 하였다. 검사는 담당교사의 주관 하에 학생이 직접 응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의뢰하고 검사지 배부 후 1~2주일 후에 우편으로 회수하거나 직접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218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78부, 총 296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그중 중학생 184부(84.4%), 고등학생 69부(88.5%), 총 253부(85.5%)가 회수되었는데 회수된 설문지중 어머니를 한국인으로 기재한 학생 8부와 아버지가 외국인인 학생 4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14부를 제외한 총 227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질문지 회수상황은 <표 Ⅲ-5>에 제시하고 있다.

<표 Ⅲ-5> 질문지 회수상황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배부	회수	배부	회수
목포	20	17	3	3
여수	15	12	4	4
순천	20	15	13	13
나주	17	14	9	5
광양	3	3	8	4
담양	9	9	1	1
곡성	10	7	3	3
구례	6	3	2	2
고흥	12	6	1	1
보성	6	3	1	1
화순	22	20	10	9
장흥	10	9	7	6
강진	12	10	3	3
해남	3	1	·	·
영암	5	7	1	1
무안	17	15	4	4
함평	5	6	3	3
영광	3	4	3	2
장성	9	8	2	2
완도	4	4	·	·
진도	7	6	2	2
신안	3	5	·	·
총계	218	184	78	69
회수율	84.4%		88.5%	
총회수율	85.5%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15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고등학생용 SCI의 11개 하위척도 및 전체자아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순위를 산출하였고 자아개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고등학생용 SCI의 11개 하위척도 및 전체자아의 백분위점수를 이용하여 긍정적(≥75%ile), 보통(<75%ile & ≥25%ile), 부정적(<25%ile)의 3개 수준으로 분류한 뒤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K-YSR의 11개 하위척도(8개 하위척도, 내재화문제척도, 외현화문제척도, 총문제행동척도 별로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순위를 산출하였고 정서·행동문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재화문제척도와 외현화문제척도의 *T*점수 63을 근거로 하여 4개의 유형(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내재화문제 & 외현화문제, 정상)으로 분류한 뒤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자아개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CI의 11개 하위척도 및 전체자아별 3개의 수준에 따른 K-YSR의 11개 척도별 *T*점수의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사후분석(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들(성별, 학년, 종교유무, 거주지역, 가족형태, 부 나이, 모 나이,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유무, 모 직업유무)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SCI의 11개 하위척도 및 전체자아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관련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들(성별, 학년, 종교유무, 거주지역, 가족형태, 부 나이, 모 나이,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유무, 모 직업유무)과의 관계를 알아보기위하여 K-YSR 11개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관련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을 <표 Ⅲ-6>과 <표 Ⅲ-7>과 같이 각각 처리하였다.

<표 Ⅲ-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관련변인 자료처리

변인			변인유형	구분	부호
종속변인	학문적 자아개념	언어자아	연속적 변인	·	·
		수학자아	연속적 변인	·	·
		일반교과자아	연속적 변인	·	·
	비학문적 자아개념	신체외모자아	연속적 변인	·	·
		신체능력자아	연속적 변인	·	·
		동성친구관계자아	연속적 변인	·	·
		이성친구관계자아	연속적 변인	·	·
		부모관계자아	연속적 변인	·	·
		정직/신뢰자아	연속적 변인	·	·
		정서적안정성자아	연속적 변인	·	·
		일반자아	연속적 변인	·	·
	전체자아		연속적 변인	·	·
독립변인	성별		범주적 변인	남	0
				여	1
	학년		범주적 변인	중학교1학년	1
				중학교2학년	2
				중학교3학년	3
				고등학교1학년	4
				고등학교2학년	5
	종교유무		범주적 변인	무	0
				유	1
	거주지역		범주적 변인	시소재지	1
				읍소재지	2
				면소재지	3
	가족형태		범주적 변인	부부중심가족	0
				기타형태가족	1
	부 나이		범주적 변인	36세 ~ 40세	1
				41세 ~ 45세	2
				46세 ~ 50세	3
				51세 ~ 60세	4
	모 나이		범주적 변인	20세 ~ 25세	1
				25세 ~ 30세	2
				31세 ~ 35세	3
				36세 ~ 40세	4
				41세 ~ 45세	5
				46세 ~ 50세	6
				51세 ~ 55세	7
	부 학력		범주적 변인	초졸	1
				중졸	2
				고졸	3
				대졸(전문대포함)	4
				대학원졸	5
	모 학력		범주적 변인	초졸	1
				중졸	2
				고졸	3
				대졸(전문대포함)	4
				대학원졸	5
	부 직업유무		범주적 변인	무	0
				유	1
	모 직업유무		범주적 변인	무	0
				유	1

<표 Ⅲ-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및 관련변인 자료처리

변인			변인유형	구분	부호
종속변인	8개 하위척도	위축	연속적 변인	·	·
		신체증상	연속적 변인	·	·
		우울/불안	연속적 변인	·	·
		사회적미성숙	연속적 변인	·	·
		사고의문제	연속적 변인	·	·
		주의집중문제	연속적 변인	·	·
		비행	연속적 변인	·	·
		공격성	연속적 변인	·	·
	내재화문제척도		연속적 변인	·	·
	외현화문제척도		연속적 변인	·	·
	총문제행동척도		연속적 변인	·	·
독립변인	성별		범주적 변인	남	0
				여	1
	학년		범주적 변인	중학교1학년	1
				중학교2학년	2
				중학교3학년	3
				고등학교1학년	4
				고등학교2학년	5
	종교유무		범주적 변인	무	0
				유	1
	거주지역		범주적 변인	시소재지	1
				읍소재지	2
				면소재지	3
	가족형태		범주적 변인	부부중심가족	0
				기타형태가족	1
	부 나이		범주적 변인	36세 ~ 40세	1
				41세 ~ 45세	2
				46세 ~ 50세	3
				51세 ~ 60세	4
	모 나이		범주적 변인	20세 ~ 25세	1
				25세 ~ 30세	2
				31세 ~ 35세	3
				36세 ~ 40세	4
				41세 ~ 45세	5
				46세 ~ 50세	6
				51세 ~ 55세	7
	부 학력		범주적 변인	초졸	1
				중졸	2
				고졸	3
				대졸(전문대포함)	4
				대학원졸	5
	모 학력		범주적 변인	초졸	1
				중졸	2
				고졸	3
				대졸(전문대포함)	4
				대학원졸	5
	부 직업유무		범주적 변인	무	0
				유	1
	모 직업유무		범주적 변인	무	0
				유	1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전라남도 내 다문화가정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정도와 수준 및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와 유형을 알아보고 자아개념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의 차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아개념의 정도와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및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아개념의 정도와 수준

1) 자아개념의 정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문적 자아개념 3개 하위척도와 비학문적 자아개념 8개 하위척도의 *T*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순위를 산출하고, 전체자아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표 IV-1>에 제시하였다.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문적 자아개념은 한국의 일반가정 학생들과 거의 차이가 없이 *T*점수의 평균이 50점 전후를 보이고 있으나 비학문적 자아개념은 이성친구관계자아 72.43, 동성친구관계자아 61.81, 정서적 안정성자아 53.45, 부모관계자아 53.24, 일반자아 52.27, 신체외모자아 51.75, 정직/신뢰자아 50.51, 신체능력자아 49.17 순으로 나타나 이성친구관계자아 및 동성친구관계자아 영역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N*=227)

구분	하위척도	*T*점수		순위
		M	*SD*	
학문적자아개념	언어자아	51.22	8.62	1
	수학자아	49.37	11.42	3
	일반교과자아	50.86	10.52	2
비학문적자아개념	신체외모자아	51.75	8.70	6
	신체능력자아	49.17	9.74	8
	동성친구관계자아	61.81	6.81	2
	이성친구관계자아	72.43	7.24	1
	부모관계자아	53.24	8.84	4
	정서적 안정성자아	53.45	8.87	3
	정직/신뢰자아	50.51	8.44	7
	일반자아	52.27	10.04	5
전체자아		57.56	10.36	·

2) 자아개념의 수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수준을 알아보기위해 학문적 자아개념 3개하위척도와 비학문적자아개념 8개하위척도별 백분위 점수를 75점이상(긍정적), 75점미만~25점이상(보통), 25점미만(부정적)의 세 급간으로 구분한 기준에 의하여 사례수의 빈도와 비율, 순위를 <표 Ⅳ-2>에 제시하였다.

학문적자아개념에서 임상범위에 속한 부정적 자아개념은 수학자아 66명(29.1%), 일반교과자아 48명(21.1%), 언어자아 30명(13.2%)의 순으로 나타나 수학자아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비학문적자아개념에서는 신체능력자아가 51명(22.5%)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자아 44명(19.4%), 신체외모자아와 정직/신뢰자아가 각각 39명(17.2%), 부모관계자아 33명(14.5%), 정서적 안정성자아 23명(10.6%), 동성친구관계자아 6명(2.6%), 이성친구자아 2명(.9%)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 척도별 급간에 따른 빈도와 비율 (*N*=227)

구분	하위척도	수준	*n*	%	순위
학문적 자아개념	언어자아	긍정적(≥75%ile)	63	27.8	·
		보통 (<75%ile & ≥25%ile)	134	59.0	·
		부정적(<25%ile)	30	13.2	3
	수학자아	긍정적(≥75%ile)	65	28.6	·
		보통 (<75%ile & ≥25%ile)	96	42.3	·
		부정적(<25%ile)	66	29.1	1
	일반교과자아	긍정적(≥75%ile)	72	31.7	·
		보통 (<75%ile & ≥25%ile)	107	47.1	·
		부정적(<25%ile)	48	21.1	2
비학문적 자아개념	신체외모자아	긍정적(≥75%ile)	74	32.6	·
		보통 (<75%ile & ≥25%ile)	114	50.2	·
		부정적(<25%ile)	39	17.2	3
	신체능력자아	긍정적(≥75%ile)	62	27.3	·
		보통 (<75%ile & ≥25%ile)	114	50.2	·
		부정적(<25%ile)	51	22.5	1
	동성친구 관계자아	긍정적(≥75%ile)	203	89.4	·
		보통 (<75%ile & ≥25%ile)	18	7.9	·
		부정적(<25%ile)	6	2.6	7
	이성친구 관계자아	긍정적(≥75%ile)	217	95.6	·
		보통 (<75%ile & ≥25%ile)	8	3.5	·
		부정적(<25%ile)	2	0.9	8
	부모관계자아	긍정적(≥75%ile)	92	40.5	·
		보통 (<75%ile & ≥25%ile)	102	44.9	·
		부정적(<25%ile)	33	14.5	5
	정직/신뢰자아	긍정적(≥75%ile)	51	22.5	·
		보통 (<75%ile & ≥25%ile)	137	60.4	·
		부정적(<25%ile)	39	17.2	3
	정서적 안정성 자아	긍정적(≥75%ile)	88	38.8	·
		보통 (<75%ile & ≥25%ile)	115	50.7	·
		부정적(<25%ile)	24	10.6	6
	일반자아	긍정적(≥75%ile)	89	39.2	·
		보통 (<75%ile & ≥25%ile)	94	41.4	·
		부정적(<25%ile)	44	19.4	2
전체자아		긍정적(≥75%ile)	131	57.7	·
		보통 (<75%ile & ≥25%ile)	70	30.8	·
		부정적(<25%ile)	26	11.5	·

2.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와 유형

1)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8개하위척도별 *T*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순위를 산출하고 2개의 군집영역인 내재화문제척도(위축+신체증상+우울/불안) 및 외현화문제척도(비행+공격성)와 총문제행동척도에 대한 *T*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표 Ⅳ-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8개하위척도별 *T*점수가 70점이상으로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과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척도 *T*점수가 63이상으로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은 <표 Ⅳ-4>에 제시하였다.

<표 Ⅳ-3>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N*=227)

구분	하위척도	*T*점수		순위
		M	*SD*	
8개하위척도	위축척도	55.63	7.32	2
	신체증상척도	54.40	6.99	5
	우울/불안척도	54.21	7.72	6
	사회적 미성숙척도	56.99	7.04	1
	사고의 문제척도	54.46	6.47	4
	주의집중문제척도	55.33	6.59	3
	비행척도	54.17	6.16	7
	공격성척도	54.07	6.13	8
내재화문제척도		51.29	11.52	·
외현화문제척도		50.69	9.75	·
총문제행동척도		51.01	9.83	·

<표 Ⅳ-3>에 보이듯이 사회적 미성숙이 *T*점수 평균 56.9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위축(55.63), 주의집중문제(55.33), 사고의 문제(54.46), 신체증상(54.40), 우울/불안(54.21), 비행(54.17), 공격성(54.07)의 순으로 나타났고 하위척도 모두

*T*점수가 70미만을 보였으며 내재화문제는 51.29와 외현화문제는 50.69, 총문제행동은 51.01로 나타나 *T*점수가 모두 63 미만을 보였다.

<표 Ⅳ-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227명중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은 위축 17명(7.5%), 신체증상 16명(7.0%), 사회적 미성숙 12명(5.3%), 사고의 문제 12명(5.3%), 우울/불안 10명(4.4%), 주의집중문제 10명(4.4%), 비행 7명(3.1%), 공격성 7명(3.1%)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재화문제 35명(15.4%), 외현화문제 20명(11.8%) 그리고 총문제행동 30명(13.2%)으로 나타났다.

<표 Ⅳ-4> 척도별 임상범위의 빈도와 비율 (*N*=227)

척도		구분	*n*	%	비율순위
8개 하위척도	위축척도	정상(*T*<70)	210	92.5	·
		임상(*T*≥70)	17	7.5	1
	신체증상척도	정상(*T*<70)	211	93.0	·
		임상(*T*≥70)	16	7.0	2
	우울/불안척도	정상(*T*<70)	217	95.6	·
		임상(*T*≥70)	10	4.4	5
	사회적 미성숙척도	정상(*T*<70)	215	94.7	·
		임상(*T*≥70)	12	5.3	3
	사고의 문제척도	정상(*T*<70)	220	96.9	·
		임상(*T*≥70)	12	5.3	3
	주의집중문제척도	정상(*T*<70)	217	95.6	·
		임상(*T*≥70)	10	4.4	5
	비행척도	정상(*T*<70)	220	96.9	·
		임상(*T*≥70)	7	3.1	7
	공격성척도	정상(*T*<70)	220	96.9	·
		임상(*T*≥70)	7	3.1	7
내재화문제척도		정상(*T*<70)	192	84.6	·
		임상(*T*≥63)	35	15.4	·
외현화문제척도		정상(*T*<63)	200	88.1	·
		임상(*T*≥63)	27	11.8	·
총문제행동척도		정상(*T*<63)	197	86.8	·
		임상(*T*≥63)	30	13.2	·

<표 Ⅳ-3>의 11개 하위척도별 *T*점수의 평균 순위와 <표 Ⅳ-4>의 척도별 임상수준

의 비율순위를 비교해 보면 *T*점수의 평균은 사회적 미성숙척도, 위축척도, 주의집중문제척도, 사고의 문제척도, 신체증상척도, 우울/불안척도, 비행척도, 공격성척도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수준의 비율순위는 위축척도, 신체증상척도, 사회적 미성숙척도과 사고의 문제척도, 우울/불안척도와 주의집중문제척도, 비행척도과 공격성척도으로 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표 Ⅳ-3>에서 군집영역척도의 *T*점수의 평균은 내재화문제척도가 외현화문제척도 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며 군집영역의 비율순위도 <표 Ⅳ-4>에서와 같이 같은 순위로 나타났다.

2) 정서·행동문제의 유형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재화문제만 있는 경우, 외현화문제만 있는 경우,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가 모두 있는 경우, 정상범위에 있는 경우의 네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빈도 및 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Ⅳ-5>에 제시하였다.

<표 Ⅳ-5> 정서·행동 문제의 유형별 비율 (*N*=227)

유형			*n*	%
임상집단	내재화문제	내재화문제*T*≥63 그러나 외현화문제T<63	20	8.8
	외현화문제	내재화문제*T*<63 그러나 외현화문제T≥63	12	5.3
	내재화문제&외현화문제	내재화문제*T*≥63 그러나 외현화문제T≥63	15	6.6
정상집단		내재화문제*T*<63 그러나 외현화문제T<63	180	79.3
계			227	100.0

<표 Ⅳ-5>에 제시된 정서·행동문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만 보이는 학생은 20명(8.8%), 외현화문제만 보이는 학생은 12명(5.3%),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모두 보이는 학생은 15명(6.6%)으로 나타났고 정상범위에 속하는 학생이 180명(79.3%)으로 나타났다.

3. 자아개념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수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CI의 12개 하위척도별 자아개념 수준에 따른 K-YSR의 11개 척도에서의 *T*점수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분석(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언어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언어자아 수준(긍정적, 보통, 부정적)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6>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6> 언어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정도 차이 분석

구분		언어자아						*F*	사후분석
		긍정적(a)		보통(b)		부정적(c)			
		M	*SD*	*M*	*SD*	*M*	*SD*		
8개 하위척도	위축척도	54.92	7.47	55.22	7.07	59.00	7.44	3.78*	a, b<c
	신체증상척도	54.78	6.55	53.66	6.94	56.93	7.63	2.87	·
	우울/불안척도	52.57	9.55	54.49	6.50	56.43	8.01	2.80	·
	사회적 미성숙척도	56.29	6.23	56.62	7.34	60.13	6.65	3.57*	a, b<c
	사고의 문제척도	53.63	6.21	54.28	6.53	57.00	6.30	2.93	·
	주의집중문제척도	53.84	5.69	55.07	6.11	59.03	8.60	8.65***	a, b<c
	비행척도	54.00	6.08	54.35	6.40	53.70	5.33	.17	·
	공격성척도	53.79	6.23	53.66	5.60	56.50	6.94	2.77	·
내재화문제척도		50.44	11.16	50.32	11.49	57.40	10.84	5.04**	a, b<c
외현화문제척도		50.14	10.03	50.33	9.45	53.43	10.32	1.39	·
총문제행동척도		49.71	10.12	50.51	9.57	56.00	9.16	4.74**	a, b<c

* $p<.05$; ** $p<.01$; *** $p<.001$.

<표 Ⅳ-6>에 보이듯이 정서·행동문제 11개 척도 가운데 위축,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언어자아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집단이 긍정적, 보통 집단보다 위축,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2) 수학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수학자아 수준(긍정적, 보통, 부정적)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7>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7>에 보이듯이 정서·행동문제 11개 척도 가운데 위축, 우울/불안,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수학자아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부정적 집단이 긍정적, 보통 집단보다 위축, 우울/불안, 사고의 문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정

<표 Ⅳ-7> 수학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구분		언어자아						*F*	사후분석
		긍정적(a)		보통(b)		부정적(c)			
		M	*SD*	*M*	*SD*	*M*	*SD*		
8개 하위척도	위축척도	54.66	6.23	54.79	7.05	57.82	8.28	4.27*	a, b<c
	신체증상척도	53.72	6.08	54.35	7.30	55.14	7.37	.67	·
	우울/불안척도	52.75	6.71	53.49	8.01	56.70	7.72	5.19**	a, b<c
	사회적 미성숙척도	55.92	7.16	56.47	6.77	58.80	7.06	3.26*	·
	사고의 문제척도	53.25	5.93	53.80	6.23	56.62	6.87	5.54**	a, b<c
	주의집중문제척도	53.63	5.21	55.39	6.78	56.94	7.18	4.25*	a<c
	비행척도	53.54	6.10	54.01	6.33	55.02	5.95	1.00	·
	공격성척도	52.51	4.83	54.22	6.84	55.39	5.92	3.77*	a<c
내재화문제척도		49.08	11.13	50.65	10.50	54.41	12.75	3.87*	a<c
외현화문제척도		47.97	9.66	50.65	10.04	53.42	8.71	5.33**	a<c
총문제행동척도		48.51	9.39	50.54	9.87	54.17	9.49	5.86**	a<c

* $p<.05$; ** $p<.01$; *** $p<.001$.

적 집단이 긍정적 집단보다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일반교과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일반교과자아 수준(긍정적, 보통, 부정적)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8>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8>에서 보이듯이 정서·행동문제 11개 척도 가운데 위축, 사회적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일반교과자아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 집단이 긍정적, 보통 집단보다

<표 Ⅳ-8> 일반교과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구분		언어자아						F	사후분석
		긍정적(a)		보통(b)		부정적(c)			
		M	SD	M	SD	M	SD		
8개 하위척도	위축척도	54.19	6.74	55.42	6.83	58.27	8.57	4.70**	a<c
	신체증상척도	54.08	6.56	54.07	6.65	55.60	8.24	.90	·
	우울/불안척도	53.11	7.33	54.31	5.80	55.65	11.19	1.58	·
	사회적 미성숙척도	55.90	6.89	56.72	6.37	59.23	8.25	3.44*	a<c
	사고의 문제척도	53.44	7.21	54.77	6.18	55.31	5.84	1.43	·
	주의집중문제척도	53.32	5.18	55.36	6.28	58.29	8.02	8.76***	a, b<c
	비행척도	53.42	6.10	54.52	6.36	54.50	5.81	.78	·
	공격성척도	53.54	6.60	54.14	5.74	54.71	6.30	.53	·
내재화문제척도		49.00	11.54	50.98	10.01	55.42	13.60	4.69**	a<c
외현화문제척도		48.82	10.59	51.32	9.29	52.08	9.20	2.06	·
총문제행동척도		48.90	9.93	51.10	9.44	53.98	9.94	3.95*	a<c

* p<.05; ** p <.01; *** p<.001.

주의집중문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정적 집단이 긍정적 집단보다 위축, 사회적 미성숙,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4) 신체외모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신체외모자아 수준(긍정적, 보통, 부정적)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9>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9>에서 보이듯이 정서·행동문제 11개 척도 가운데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신체외모자아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 보통 집단이 긍정적 집단보다 사회적 미성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정적 집단이 긍정적 집단보다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Ⅳ-9> 신체외모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구분		언어자아						*F*	사후분석
		긍정적(a)		보통(b)		부정적(c)			
		M	*SD*	*M*	*SD*	*M*	*SD*		
8개 하위척도	위축척도	54.22	6.86	56.34	7.47	56.26	7.51	2.08	·
	신체증상척도	53.57	5.51	54.04	6.58	57.03	9.72	3.51*	a<c
	우울/불안척도	52.41	7.76	54.34	7.40	57.26	7.73	5.27**	a<c
	사회적 미성숙척도	54.85	6.35	57.55	6.78	59.41	8.05	6.37**	a<b,c
	사고의 문제척도	53.12	5.29	54.44	6.51	57.08	7.64	4.94**	a<c
	주의집중문제척도	54.28	6.49	55.11	6.07	58.00	7.64	4.32*	a<c
	비행척도	53.80	5.82	54.39	6.84	54.21	4.56	.21	·
	공격성척도	53.70	5.86	53.93	6.42	55.18	5.78	.80	·
내재화문제척도		48.84	11.42	51.51	10.91	55.31	12.48	4.19*	a<c
외현화문제척도		50.55	9.14	50.19	10.50	52.38	8.53	.74	·
총문제행동척도		48.72	9.59	51.21	9.89	54.79	9.07	5.11**	a<c

* $p<.05$; ** $p<.01$; *** $p<.001$.

5) 신체능력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신체능력자아 수준(긍정적, 보통, 부정적)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0>에서 보이듯이 정서·행동문제 11개 척도 가운데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신체능력자아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 보통 집단이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정적 집단이 긍정적 집단보다 위축, 주의집중문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Ⅳ-10> 신체능력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구분		언어자아						*F*	사후분석
		긍정적(a)		보통(b)		부정적(c)			
		M	*SD*	*M*	*SD*	*M*	*SD*		
8개 하위 척도	위축척도	53.34	6.76	55.83	7.31	57.98	7.30	5.96**	a<c
	신체증상척도	53.13	5.79	54.89	7.33	54.84	7.44	1.42	·
	우울/불안척도	51.42	8.78	55.04	6.96	55.76	7.20	6.00**	a<b, c
	사회적 미성숙척도	54.50	5.72	57.51	7.14	58.86	7.55	6.27**	a<b, c
	사고의 문제척도	52.94	4.53	54.66	6.67	55.88	7.65	3.06*	·
	주의집중문제척도	53.73	5.86	55.54	6.65	56.84	7.00	3.30*	a<c
	비행척도	53.27	5.37	54.89	6.72	53.65	5.64	1.62	·
	공격성척도	53.66	6.05	54.40	6.42	53.82	5.62	.35	·
내재화문제척도		47.00	10.85	52.74	11.10	53.27	12.07	6.24**	a<b, c
외현화문제척도		50.53	8.82	51.05	10.24	50.06	9.84	.19	·
총문제행동척도		47.61	8.94	51.97	9.96	53.00	9.73	5.51**	a<b, c

* $p<.05$; ** $p<.01$; *** $p<.001$.

6) 동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동성친구관계자아 수준(긍정적, 보통, 부정적)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1>에서 보이듯이 정서·행동문제 11개 척도 가운데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동성친구관계자아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 집단이 긍정적집단이나 보통 집단보다 위축과 사회적 미성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정적 집단이 긍정적 집단보다 우울/불안, 사고의 문제, 그리고 총문제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Ⅳ-11> 동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구분		언어자아						*F*	사후분석
		긍정적(a)		보통(b)		부정적(c)			
		M	*SD*	*M*	*SD*	*M*	*SD*		
8개하위척도	위축척도	55.10	7.05	57.89	6.16	66.83	10.32	9.01***	a, b<c
	신체증상척도	54.11	6.63	55.61	7.51	60.50	13.56	2.77	·
	우울/불안척도	53.74	7.47	56.39	7.81	63.50	9.89	5.66**	a<c
	사회적 미성숙척도	56.25	6.32	60.94	7.60	70.33	11.64	16.82***	a, b<c
	사고의 문제척도	54.29	6.32	54.11	5.68	61.50	10.39	3.74*	a<c
	주의집중문제척도	55.03	6.42	56.61	6.23	61.67	10.37	3.39*	·
	비행척도	54.20	6.36	53.78	4.07	54.33	4.76	.04	·
	공격성척도	54.10	6.20	52.89	3.97	56.67	8.91	.87	·
내재화문제척도		50.59	11.41	54.94	9.36	64.17	13.11	5.23**	a<c
외현화문제척도		50.69	9.89	48.94	8.34	55.83	8.11	1.13	·
총문제행동척도		50.46	9.73	53.33	8.51	62.67	10.25	5.22**	a<c

* $p<.05$; ** $p<.01$; *** $p<.001$.

7) 이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이성친구관계자아 수준(긍정적, 보통, 부정적)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2>에서 보이듯이 정서·행동문제 11개 척도 가운데 사회적 미성숙과 내재화문제에서 이성친구관계자아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보통 집단이 긍정적 집단보다 사회적 미성숙과 내재화문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Ⅳ-12> 이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구분		언어자아						*F*	사후분석
		긍정적(a)		보통(b)		부정적(c)			
		M	*SD*	*M*	*SD*	*M*	*SD*		
8개 하위척도	위축척도	55.48	7.32	58.63	5.50	60.00	14.14	1.07	·
	신체증상척도	54.34	6.82	56.38	11.59	53.00	4.24	.37	·
	우울/불안척도	54.06	7.65	59.25	9.11	50.50	.71	2.00	·
	사회적 미성숙척도	56.72	6.97	63.50	6.82	60.00	4.24	3.86*	a<b
	사고의 문제척도	54.43	6.50	54.63	5.37	57.50	10.61	.23	·
	주의집중문제척도	55.26	6.44	58.63	10.20	50.00[1)]	.00[1)]	1.67	·
	비행척도	54.18	6.21	54.88	5.30	50.00[1)]	.00[1)]	.51	·
	공격성척도	54.06	6.11	55.38	7.54	50.00[1)]	.00[1)]	.62	·
내재화문제척도		50.92	11.31	61.25	14.43	51.50	6.36	3.16*	a<b
외현화문제척도		50.75	9.68	52.75	10.28	35.50	2.12	2.65	·
총문제행동척도		50.84	9.84	56.75	9.33	46.50	4.95	1.61	·

* $p<.05$; ** $p<.01$; *** $p<.001$.
1) <표Ⅳ-2>에 보이듯이 사례가 2명이었으며 2명 모두 3개 하위척도(주의집중문제척도, 비행척도, 공격성척도)에서 50*T*였음.

8) 부모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부모관계자아 수준(긍정적, 보통, 부정적)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3>에서 보이듯이

정서·행동문제 11개 척도 모두에서 부모관계자아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 집단이 긍정적 집단이나 보통 집단보다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정적인 집단이 긍정적인 집단보다 비행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Ⅳ-13> 부모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구분		언어자아						F	사후분석
		긍정적(a)		보통(b)		부정적(c)			
		M	SD	M	SD	M	SD		
8개 하위척도	위축척도	53.62	5.81	55.90	6.68	60.42	10.30	11.62***	a, b<c
	신체증상척도	53.57	6.33	53.57	5.65	59.30	10.04	10.29***	a, b<c
	우울/불안척도	51.82	7.69	54.46	6.27	60.12	8.69	16.06***	a, b<c
	사회적 미성숙척도	55.36	5.91	57.31	7.25	60.55	7.97	7.16***	a, b<c
	사고의 문제척도	53.27	5.36	53.90	5.73	59.52	8.89	13.32***	a, b<c
	주의집중문제척도	53.59	5.21	55.55	6.99	59.55	9.02	10.90***	a, b<c
	비행척도	52.72	4.27	54.77	6.97	56.33	7.12	5.28**	a<c
	공격성척도	53.02	4.97	53.60	5.66	58.45	8.41	10.97***	a, b<c
내재화문제척도		48.20	9.85	51.01	11.38	60.79	11.45	16.59***	a, b<c
외현화문제척도		48.17	9.30	50.89	9.36	57.06	9.31	11.04***	a, b<c
총문제행동척도		47.76	9.06	51.36	9.11	59.00	9.51	18.46***	a, b<c

* p<.05; ** p <.01; *** p<.001.

정서·행동문제 11개 척도 모두에서 부모관계자아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 집단이 긍정적, 보통 집단보다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정적인 집단이 긍정적인 집단보다 비행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9) 정직/신뢰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정직/신뢰자아의 수준(긍정적, 보통, 부정적)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4>에서 보이듯이 정서·행동문제 11개 척도 가운데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정직/신뢰자아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 보통 집단이 긍정적 집단보다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외현화문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정적 집단이 긍정적 집단보다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Ⅳ-14> 정직/신뢰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구분		언어자아						*F*	사후분석
		긍정적(a)		보통(b)		부정적(c)			
		M	*SD*	*M*	*SD*	*M*	*SD*		
8개 하위척도	위축척도	54.59	6.31	55.56	7.41	57.26	8.11	1.49	·
	신체증상척도	52.94	5.56	54.47	6.84	56.05	8.75	2.23	·
	우울/불안척도	52.04	3.88	54.41	8.34	56.36	8.63	3.66*	a<b, c
	사회적 미성숙척도	54.59	6.01	57.40	7.04	58.69	7.64	4.48*	a<b, c
	사고의 문제척도	52.92	4.64	54.65	6.51	55.82	7.97	2.39	·
	주의집중문제척도	52.73	4.70	55.35	6.49	58.69	7.62	9.75***	a, b<c
	비행척도	51.14	2.97	54.45	6.33	57.13	7.00	11.88***	a, b<c
	공격성척도	52.18	4.24	53.89	5.78	57.18	8.10	7.97***	a, b<c
내재화문제척도		47.76	8.83	51.74	12.16	54.33	11.38	3.96*	a<c
외현화문제척도		46.04	8.58	51.03	9.31	55.56	10.21	11.80***	a<b, c
총문제행동척도		45.84	8.59	51.78	9.41	55.08	10.27	11.84***	a<c

* $p<.05$; ** $p<.01$; *** $p<.001$.

10) 정서적 안정성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정서적 안정성자아 수준(긍정적, 보통, 부정적)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5>에서 보이듯이 정

서·행동문제 11개 척도 모두에서 정서적 안정성자아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 집단이 긍정적, 보통 집단보다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Ⅳ-15> 정서적 안정성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구분		언어자아						F	사후분석
		긍정적(a)		보통(b)		부정적(c)			
		M	SD	M	SD	M	SD		
8개하위척도	위축척도	53.30	5.42	55.83	6.95	63.25	9.72	20.56***	a, b<c
	신체증상척도	52.39	4.84	54.42	6.31	61.71	11.06	19.56***	a, b<c
	우울/불안척도	50.78	4.27	55.10	5.92	62.54	14.87	29.30***	a, b<c
	사회적 미성숙척도	54.47	5.48	57.28	6.59	64.88	8.26	25.28***	a, b<c
	사고의 문제척도	52.50	4.46	54.56	6.31	61.21	8.75	19.99***	a, b<c
	주의집중문제척도	53.03	5.17	55.36	5.51	63.67	9.11	31.05***	a, b<c
	비행척도	52.89	5.17	54.09	6.17	59.25	7.03	10.98***	a, b<c
	공격성척도	51.98	4.16	54.43	5.65	60.04	9.55	19.43***	a, b<c
내재화문제척도		44.91	9.17	53.26	9.94	65.25	10.78	45.87***	a, b<c
외현화문제척도		46.56	9.13	52.00	8.62	59.54	9.69	22.43***	a, b<c
총문제행동척도		45.76	8.09	52.43	8.30	63.46	9.13	46.18***	a, b<c

* $p<.05$; ** $p<.01$; *** $p<.001$.

11) 일반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일반자아 수준(긍정적, 보통, 부정적)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6>에서 보이듯이 정서·행동문

제 11개 척도 가운데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일반자아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집단이 긍정적, 보통 집단보다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정적 집단이 긍정적 집단보다 신체증상, 내재화문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보통 집단이 긍정적 집단보다 비행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Ⅳ-16> 일반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구분		언어자아						*F*	사후분석
		긍정적(a)		보통(b)		부정적(c)			
		M	*SD*	*M*	*SD*	*M*	*SD*		
8개하위척도	위축척도	53.66	6.39	55.43	5.96	60.07	9.64	12.49***	a, b<c
	신체증상척도	53.30	5.48	54.35	6.73	56.73	9.44	3.62*	a<c
	우울/불안척도	52.33	6.33	54.18	5.65	58.09	11.80	8.79***	a, b<c
	사회적 미성숙척도	55.07	6.17	56.94	6.55	61.00	8.11	11.43***	a, b<c
	사고의 문제척도	53.13	5.42	54.86	6.92	56.30	6.97	3.92*	a<c
	주의집중문제척도	52.84	4.63	55.85	6.46	59.27	8.05	16.48***	a, b<c
	비행척도	52.63	4.39	55.37	7.54	54.70	5.34	4.91**	a<b
	공격성척도	52.87	4.73	54.82	7.13	54.91	6.07	2.88	·
내재화문제척도		47.92	9.82	50.87	10.25	59.00	13.70	15.50***	a<c
외현화문제척도		48.85	8.13	51.38	11.36	52.91	8.47	3.01	·
총문제행동척도		47.67	8.58	51.79	9.94	56.11	9.63	12.50***	a, b<c

* $p<.05$; ** $p<.01$; *** $p<.001$.

12) 전체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전체자아 수준(긍정적, 보통, 부정적)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7>에서 보이듯이 정서·행

동문제 11개 척도 가운데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전체자아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 집단이 긍정적, 보통 집단보다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부정적, 보통집단이 위축,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보통 집단이 긍정적 집단보다 공격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Ⅳ-17> 전체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 차이 분석

구분		언어자아						*F*	사후분석
		긍정적(a)		보통(b)		부정적(c)			
		M	*SD*	*M*	*SD*	*M*	*SD*		
8개하위척도	위축척도	53.26	5.28	58.26	8.41	60.54	8.37	20.15***	a<b, c
	신체증상척도	53.25	5.38	55.74	8.27	56.58	9.22	4.46*	·
	우울/불안척도	51.71	6.27	56.90	8.02	59.58	8.54	20.42***	a, b<c
	사회적 미성숙척도	54.89	5.69	58.74	7.10	62.85	8.55	19.81***	a, b<c
	사고의 문제척도	52.66	5.07	56.80	7.24	57.23	7.70	13.33***	a<b, c
	주의집중문제척도	52.97	4.60	57.74	7.09	60.77	8.25	26.98***	a<b, c
	비행척도	53.41	5.91	55.33	6.92	54.85	4.68	2.42	·
	공격성척도	52.99	5.07	55.67	7.05	55.19	6.03	5.02**	a<b
내재화문제척도		47.32	9.80	55.49	10.77	60.00	12.97	23.90***	a<b, c
외현화문제척도		48.73	9.37	53.49	10.08	53.00	8.65	6.56**	a<b
총문제행동척도		47.56	8.62	55.13	9.65	57.31	8.92	23.39***	a<b, c

* $p<.05$; ** $p<.01$; *** $p<.001$.

4.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1)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의 상관분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정도와 11개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개념 12개 척도(T점수)와 관련변인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8>에 제시되어 있다.

언어자아는 11개의관련변인들 중 3개의 변인(학년, 모 학력, 부 직업유무)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직업이 있을수록 언어자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들 중 2개의 변인(모 나이, 모 직업유무)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수록 수학자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들 중 1개의 변인(모 나이)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일반교과자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외모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들 중 1개의 변인(가족형태)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부중심가족일수록 신체외모자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능력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들 중 1개의 변인(거주지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면 소재지에 거주할수록 신체능력자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친구관계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들 중 4개의 변인(학년, 가족형태, 모 나이, 모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부중심가족일수록,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동성친구관계자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친구관계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들 중 2개의 변인(학년, 모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년이 낮아질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성친구관계자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계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들 중 2개의 변인(종교유무, 모 나이)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종교를 가질수록,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관계자아 점수

<표 Ⅳ-18>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구분			성별	학년	종교 유무	거주 지역	가족 형태	부 나이	모 나이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 유무	모 직업 유무
종속변인	학문적 자아개념	언어자아	.033	-.147*	-.055	-.009	-.081	.009	-.004	.110	.132*	.151*	.114
		수학자아	-.010	-.016	-.024	.075	-.063	.086	.147*	.099	.109	.002	.180**
		일반교과 자아	-.014	.019	.021	.090	-.112	.119	.132*	.095	.121	.018	.021
	비학문적 자아개념	신체외모 자아	-.027	.057	.004	-.028	-.138*	.075	.076	.118	.119	-.036	.066
		신체능력 자아	.035	-.026	-.002	-.113*	.099	-.082	-.015	.091	.123	-.088	.049
		동성친구 관계자아	-.053	.186**	-.026	-.064	-.168*	-.020	.135*	.069	.190**	.068	.034
		이성친구 관계자아	.114	-.176**	.075	-.107	-.055	-.013	.048	.031	.181**	.000	.001
		부모관계 자아	-.012	-.071	.176**	-.060	-.004	.052	.165*	.020	.123	-.080	.037
		정직/신뢰 자아	.063	.131*	.075	.077	-.066	-.057	-.001	.046	.043	.027	.076
		정서적 안정성자아	.018	.040	.094	-.049	-.062	-.063	.096	.107	.138*	.048	.113
		일반자아	.037	.009	.053	-.066	-.133*	-.040	.066	.108	.172**	.037	.036
	전체자아		.007	.026	.040	-.052	-.124	-.006	.090	.162*	.214**	.018	.096
독립변인	성별		1.000	-.011	.095	-.007	.133*	-.059	-.064	-.019	-.003	.071	.022
	학년			1.000	-.077	.023	-.026	.158*	.077	.054	-.002	.007	.017
	종교유무				1.000	.024	.027	.139**	.341**	.064	.254**	.021	.101
	거주지역					1.000	.012	.071	-.012	-.264**	-.127*	-.100	-.050
	가족형태						1.000	.047	.041	-.089	-.060	-.229**	.029
	부 나이							1.000	.433**	-.010	.122	-.135*	.022
	모 나이								1.000	.076	.357**	-.085	.089
	부 학력									1.000	.369**	.188**	.036
	모 학력										1.000	.005	.250**
	부 직업유무											1.000	.002
	모 직업유무												1.000

* $p<.05$; ** $p<.01$; *** $p<.001$.

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신뢰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들 중 1개의 변인(학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직/신뢰자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성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들 중 1개의 변인(모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정서적 안정성자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들 중 2개의 변인(가족형태, 모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부중심가족형태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일반자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들 중 2개의 변인(부 학력, 모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체자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CI의 12개 척도별로 자아개념 정도(T점수)와 11개 관련변인들간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언어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언어자아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9>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9>에 보이듯이 11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언어자아 정도를 설명해 주는 정도는 9.2%(F=1.98, p<.05)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 중 2개의 변인(학년, 부 직업유무)이 언어자아 정도의 예측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9> 언어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언어자아	성별	.716	1.152	.041	.62
	학년	-1.077	.414	-.173	-2.59*
	종교유무	-2.296	1.360	-.120	-1.68
	거주지역	.900	1.380	.044	.65
	가족형태	-2.958	3.984	-.051	-.74
	부 나이	.143	.157	.067	.90
	모 나이	-.025	.098	-.021	-.25
	부 학력	.564	.638	.065	.88
	모 학력	1.069	.734	.114	1.45
	부 직업유무	3.742	1.866	.139	2.00*
	모 직업유무	1.743	1.160	.101	1.50
	constant	39.859	7.346		5.426
	R^2	.092			
	F	1.98*			

* $p<.05$; **$p<.01$; *** $p<.001$.

(2) 수학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수학자아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9>

<표 Ⅳ-20> 수학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수학자아	성별	.435	1.533	.019	.28
	학년	-.457	.551	-.055	-.82
	종교유무	-2.875	1.810	-.113	-1.58
	거주지역	3.205	1.836	.119	1.74
	가족형태	-4.353	5.302	-.056	-.82
	부 나이	.110	.209	.039	.52
	모 나이	.237	.130	.147	1.82
	부 학력	1.352	.849	.118	1.59
	모 학력	.042	.977	.003	.04
	부 직업유무	-.078	2.483	-.002	-.03
	모 직업유무	4.122	1.543	.181	2.67**
	constant	28.926	9.776		2.959
	R^2	.085			
	F	1.82			

* $p<.05$; **$p<.01$; *** $p<.001$.

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20>에 보이듯이 11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수학자아 정도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교과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일반교과자아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는<표 Ⅳ-2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21>에 보이듯이 11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일반교과자아 정도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 일반교과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일반교과자아	성별	.334	1.432	.016	.23
	학년	-.110	.515	-.014	-.40
	종교유무	-1.037	1.691	-.044	-.61
	거주지역	3.010	1.715	.121	1.75
	가족형태	-7.305	4.952	-.102	-1.47
	부 나이	.218	.195	.084	1.11
	모 나이	.118	.121	.079	.96
	부 학력	.952	.793	.090	1.20
	모 학력	.793	.912	.069	.86
	부 직업유무	.234	2.319	.007	.10
	모 직업유무	.097	1.441	.005	.06
	constant	28.896	9.131		3.165
	R^2	.059			
	F	1.21			

* p<.05; **p <.01; *** p<.001.

(4) 신체외모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신체외모자아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22>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22>에 보이듯이 11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신체외모자아 정도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 신체외모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신체외모자아	성별	.110	1.188	.006	.09
	학년	.225	.427	.036	.52
	종교유무	-.494	1.403	-.026	-.35
	거주지역	-.066	1.423	-.003	-.04
	가족형태	-8.666	4.109	-.147	-2.10*
	부 나이	.124	.162	.058	.76
	모 나이	.015	.101	.012	.14
	부 학력	.835	.658	.096	1.26
	모 학력	.546	.757	.058	.72
	부 직업유무	-2.166	1.924	-.080	-1.12
	모 직업유무	.895	1.196	.052	.74
	constant	42.626	7.577		5.626
	R^2	.052			
	F	1.06			

* $p<.05$; ** $p<.01$; *** $p<.001$.

(5) 신체능력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신체능력자아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23>에

<표 Ⅳ-23> 신체능력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신체능력자아	성별	.510	1.327	.026	.38
	학년	-.064	.477	-.009	-.13
	종교유무	-.408	1.567	-.019	-.26
	거주지역	-1.990	1.589	-.087	-1.25
	가족형태	5.874	4.589	.089	1.28
	부 나이	-.227	.181	-.094	-1.25
	모 나이	-.027	.112	-.019	-.23
	부 학력	.533	.735	.054	.72
	모 학력	1.248	.845	.117	1.47
	부 직업유무	-3.138	2.149	-.103	-1.46
	모 직업유무	.313	1.336	.016	.23
	constant	59.776	8.462		7.065
	R^2	.057			
	F	1.18			

* $p<.05$; ** $p<.01$; *** $p<.001$.

제시되어 있다. <표 Ⅳ-23>에 보이듯이 11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신체능력자아 정도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동성친구관계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동성친구관계자아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표 Ⅳ-24> 동성친구관계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동성친구관계자아	성별	-.378	.899	-.028	-.42
	학년	.919	.323	.187	2.84**
	종교유무	-1.148	1.062	-.076	-1.08
	거주지역	-.667	1.077	-.041	-.61
	가족형태	-6.037	3.109	-.130	-1.94
	부 나이	-.173	.123	-.103	-1.41
	모 나이	.121	.076	.125	1.58
	부 학력	-.304	.498	-.044	-.61
	모 학력	1.365	.573	.184	2.38**
	부 직업유무	.851	1.456	.040	.58
	모 직업유무	-.171	.905	-.013	-.18
	constant	59.978	5.733		10.461
	R^2	.116			
	F	2.55**			

* $p<.05$; ** $p<.01$; *** $p<.001$.

Ⅳ-24>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24>에 보이듯이 11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동성친구관계자아 정도를 설명해 주는 정도는11.6%(F=2.55, p<.01)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 중 2개의 변인(학년, 모 학력)이 동성친구관계자아 정도의 예측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이성친구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이성친구자아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Ⅳ-25>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25>에 보이듯이 11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이성친구관계자아 정도를 설명해 주는 정도는 9.2%(F=1.99, p<.05)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 중 2개의 변인(학년, 모 학력)이 이성친구자아 정도의 예측에 유의하

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5> 이성친구관계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이성친구관계자아	성별	1.778	.968	.122	1.83
	학년	-.888	.348	-.170	-2.55*
	종교유무	.256	1.142	.016	.22
	거주지역	-1.653	1.159	-.097	-1.42
	가족형태	-3.565	3.346	-.072	-1.06
	부 나이	.009	.132	.005	.07
	모 나이	-.006	.082	-.005	-.06
	부 학력	-.401	.536	-.055	-.74
	모 학력	1.533	.616	.194	2.48*
	부 직업유무	-.544	1.567	-.024	-.34
	모 직업유무	-.710	.974	-.049	-.72
	constant	71.847	6.169		11.646
	R^2	.092			
	F	1.99*			

* $p<.05$; ** $p<.01$; *** $p<.001$.

(8) 부모관계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부모관계자아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는<표

<표 Ⅳ-26> 부모관계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부모관계자아	성별	-.199	1.202	-.011	-.16
	학년	-.411	.432	-.064	-.99
	종교유무	2.544	1.419	.130	1.79
	거주지역	-1.366	1.440	-.066	-.94
	가족형태	-1.157	4.157	-.019	-.27
	부 나이	-.032	.164	-.015	-.19
	모 나이	.132	.102	.106	1.29
	부 학력	-.138	.666	-.015	-.20
	모 학력	.488	.766	.051	.63
	부 직업유무	-2.279	1.947	-.082	-1.17
	모 직업유무	.033	1.210	.002	.02
	constant	50.434	7.665		6.580
	R^2	.061			
	F	1.26			

* $p<.05$; ** $p<.01$; *** $p<.001$.

IV-2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6>에 보이듯이 11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부모관계자아 정도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정직/신뢰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정직/신뢰자아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7>에 보이듯이 11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정직/신뢰자아 정도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정직/신뢰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정직/신뢰자아	성별	1.029	1.152	.061	.89
	학년	.891	.414	.146	2.15*
	종교유무	1.595	1.360	.085	1.17
	거주지역	1.899	1.379	.095	1.37
	가족형태	-3.985	3.983	-.069	-1.00
	부 나이	-.187	.157	-.089	-1.19
	모 나이	-.018	.098	-.015	-.18
	부 학력	.412	.638	.049	.64
	모 학력	.094	.734	.010	.12
	부 직업유무	-.246	1.865	-.009	-.13
	모 직업유무	1.170	1.159	.069	1.00
	constant	52.816	7.344		7.191
	R^2	.054			
	F	1.12			

* $p<.05$; ** $p<.01$; *** $p<.001$.

(10) 정서적 안정성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정서적 안정성자아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는<표 IV-2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8>에 보이듯이 11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정직/신뢰자아 정도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8> 정서적 안정성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정서적 안정성자아	성별	.301	1.212	.017	.24
	학년	.327	.436	.051	.75
	종교유무	1.095	1.431	.056	.76
	거주지역	-.279	1.451	-.013	-.19
	가족형태	-2.733	4.189	-.045	-.65
	부 나이	-.266	.165	-.121	-1.61
	모 나이	.117	.103	.093	1.14
	부 학력	.514	.671	.058	.76
	모 학력	.564	.772	.058	.73
	부 직업유무	.388	1.962	.014	.19
	모 직업유무	1.491	1.219	.084	1.22
	constant	55.190	7.725		7.144
	R^2	.052			
	F	1.07			

* $p<.05$; $^{**}p<.01$; *** $p<.001$.

(11) 일반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일반자아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는<표 Ⅳ-29>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29>에 보이듯이 11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일반자아 정도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9> 일반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일반자아	성별	1.071	1.371	.053	.78
	학년	.107	.493	.015	.21
	종교유무	.314	1.619	.014	.19
	거주지역	-.810	1.642	-.034	-.49
	가족형태	-8.623	4.740	-.126	-1.81
	부 나이	-.164	.187	-.066	-.87
	모 나이	.047	.116	.033	.40
	부 학력	.349	.759	.035	.46
	모 학력	1.538	.873	.140	1.76
	부 직업유무	-.390	2.220	-.012	-.17
	모 직업유무	-.054	1.380	-.003	-.03
	constant	52.219	8.740		5.974
	R^2	.054			
	F	1.11			

* $p<.05$; $^{**}p<.01$; *** $p<.001$.

(12) 전체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전체자아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는<표 Ⅳ-30>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30>에 보이듯이 11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전체자아 정도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0> 전체자아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전체자아	성별	.574	1.401	.028	.41
	학년	.150	.504	.020	.29
	종교유무	-.349	1.655	-.015	-.21
	거주지역	-.072	1.678	-.003	-.04
	가족형태	-8.064	4.845	-.114	-1.66
	부 나이	-.102	.191	-.040	-.53
	모 나이	.057	.119	.039	.48
	부 학력	.997	.776	.096	1.28
	모 학력	1.725	.893	.152	1.93
	부 직업유무	-1.016	2.269	-.031	-.44
	모 직업유무	1.152	1.410	.056	.81
	constant	51.802	8.934		5.798
	R^2	.071			
	F	1.65			

* $p<.05$; $^{**}p<.01$; *** $p<.001$.

5.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1)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의 상관분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11개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정서·행동문제 11개 척도(*T*점수)와 관련변인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31>에 제시되어 있다.

위축은 11개 관련변인들 중 2개 변인(학년, 모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년이 올라 갈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위축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신체증상은 11개 관련변인들 중 1개 변인(가족형태)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Ⅳ-31> 정서·행동문제정도와 관련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구분			성별	학년	종교유무	거주지역	가족형태	부 나이	모 나이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유무	모 직업유무
종속변인	8개 하위척도	위축	-.071	.202**	-.038	.095	.049	.100	-.081	-.105	-.257**	-.007	-.070
		신체증상	.005	.060	.070	.089	.155*	.011	-.097	-.071	-.123	.003	-.053
		우울/불안	.012	.097	-.027	.148*	.078	.052	-.075	-.122	-.175**	.013	-.137*
		사회적 미성숙	-.047	.079	.040	.078	.158*	.069	-.097	-.083	-.292**	.009	-.088
		사고의 문제	-.034	.132*	-.025	-.030	.161*	-.028	-.091	-.124	-.156*	.043	-.113
		주의집중문제	-.141*	.037	.057	.009	.047	.071	.008	-.122	-.168*	-.057	-.083
		비행	-.097	-.060	-.101	-.041	.152*	.033	-.081	-.018	-.084	-.001	-.007
		공격성	-.080	.090	-.058	-.002	.033	-.042	-.143*	-.065	-.101	-.009	-.146*
		내재화문제	-.049	.118	.000	.090	.109	.070	-.076	-.064	-.158*	-.032	-.063
		외현화문제	. 003	.038	-.013	-.026	.091	.000	-.128	-.052	-.136*	-.019	-.093
		총문제행동척도	-.062	.103	.020	.032	.144*	.048	-.084	-.099	-.206**	-.023	-.096
독립변인		성별	1.000	-.011	.095	-.007	.133*	-.059	-.064	-.019	-.003	.071	.022
		학년		1.000	-.077	.023	-.026	.158*	.077	.054	-.002	.007	.017
		종교유무			1.000	.024	.027	.139*	.341**	.064	.254**	.021	.101
		거주지역				1.000	.012	.071	-.012	-.264**	-.127	-.100	-.050
		가족형태					1.000	.047	.041	-.089	-.060	-.229**	.029
		부 나이						1.000	.433**	-.010	.122	-.135*	.022
		모 나이							1.000	.076	.357**	-.085	.089
		부 학력								1.000	.369**	.188**	.036
		모 학력									1.000	.005	.250**
		부 직업유무										1.000	.002
		모 직업유무											1.000

* $p<.05$; ** $p<.01$; *** $p<.001$.

즉, 기타가족형태일수록 신체증상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불안은 11개 관련변인들 중 3개 변인(거주지역, 모 학력, 모 직업유무)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면 소재지가 시 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수록 우울/불안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미성숙은 11개 관련변인 중 2개 변인(가족형태, 모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기타가족형태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미성숙 점수

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문제는 11개 관련변인 중 3개 변인(학년, 가족형태, 모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년이 올라 갈수록, 기타가족형태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고의 문제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집중문제는 11개 관련변인 중 2개 변인(성별, 모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남자청소년일수록,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주의집중문제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은 11개 관련변인 중 1개 변인(가족형태)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기타가족형태일수록 비행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11개 관련변인 중 2개 변인(모 나이, 모 직업유무)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나이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직업이 없을수록 공격성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문제는 11개 관련변인 중 1개 변인(모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내재화문제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문제는 11개 관련변인 중 1개 변인(모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내재화문제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문제행동은 11개 관련변인 중 2개 변인(가족형태, 모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기타가족형태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총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K-YSR의 11개 척도별로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11개 관련변인들간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위축과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위축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는 <표 Ⅳ-32>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32>에 보이듯이 11개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위축을 설명해주는 정도는 13.1% (F=2.94, p<.01)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 중 2개의 변인(학년, 모 학력)이 위축문제의 예측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2> 위축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위축T	성별	-1.178	.958	-.080	-1.21
	학년	1.020	.344	.193	2.96**
	종교유무	.893	1.131	.055	.79
	거주지역	.808	1.147	.047	.70
	가족형태	2.178	3.311	.044	.65
	부 나이	.214	.131	.118	1.64
	모 나이	-.081	.081	-.078	-.99
	부 학력	-.088	.530	-.012	-.16
	모 학력	-1.929	.610	-.241	-3.16**
	부 직업유무	.553	1.550	.024	.35
	모 직업유무	-.165	.964	-.011	-.17
	constant	51.557	6.105		8.445
	R^2	.131			
	F	2.94**			

* p<.05; ** p <.01; *** p<.001

(2) 신체증상과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신체증상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는 <표 Ⅳ-33>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33>에 보이듯이 11개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신체증상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3> 신체증상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신체증상T	성별	-.497	.946	-.035	-.52
	학년	.391	.340	.077	1.15
	종교유무	2.092	1.117	.135	1.87
	거주지역	1.053	1.132	.064	.93
	가족형태	7.345	3.270	.155	2.24*
	부 나이	.060	.129	.035	.46
	모 나이	-.119	.080	-.120	-1.48
	부 학력	-.141	.524	-.020	-.26
	모 학력	-.643	.602	-.084	-1.06
	부 직업유무	.931	1.531	.043	.60
	모 직업유무	-.509	.952	-.037	-.53
	constant	55.246	6.029		9.163
	R^2	.069			
	F	1.45			

* $p<.05$; **$p<.01$; *** $p<.001$.

(3) 우울/불안과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우울/불안 정도에 대한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는 <표 Ⅳ-34>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34>에 보이듯이 11개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위축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4> 우울/불안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우울/불안T	성별	-.034	1.039	-.002	-.03
	학년	.537	.374	.096	1.43
	종교유무	.448	1.227	.026	.36
	거주지역	2.017	1.244	.111	1.62
	가족형태	4.074	3.592	.078	1.13
	부 나이	.134	.142	.070	.94
	모 나이	-.069	.088	-.063	-.78
	부 학력	-.435	.575	-.056	-.75
	모 학력	-.854	.662	-.101	-1.29
	부 직업유무	1.371	1.682	.057	.81
	모 직업유무	-1.649	1.046	-.107	-1.57
	constant	50.964	6.624		7.694
	R^2	.079			
	F	1.68			

* $p<.05$; **$p<.01$; *** $p<.001$.

(4) 사회적 미성숙과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사회적 미성숙 정도에 대한 11개 변인들의 예측관계는 <표 IV-35>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5>에 보이듯이 11개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사회적 미성숙을 설명해 주는 정도는 14.7%(F=3.36, p<.001)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 중 3개의 변인(종교유무, 가족형태, 모 학력)이 사회적 미성숙문제 정도의 예측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사회적 미성숙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사회적 미성숙T	성별	-1.158	.913	-.082	-1.26
	학년	.407	.328	.080	1.24
	종교유무	2.155	1.078	.138	2.00*
	거주지역	.617	1.093	.037	.56
	가족형태	7.501	3.155	.157	2.37*
	부 나이	.178	.125	.102	1.42
	모 나이	-.080	.077	-.080	-1.03
	부 학력	.257	.505	.036	.50
	모 학력	-2.339	.581	-.304	-4.02***
	부 직업유무	1.172	1.478	.053	.79
	모 직업유무	-.344	.918	-.024	-.37
	constant	55.220	5.819		9.490
	R^2	.147			
	F	3.36***			

* p<.05; ** p <.01; *** p<.001.

(5) 사고의 문제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사고의 문제 정도에 대한 11개 변인들의 예측관계는 <표 IV-3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6>에 보이듯이 11개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사고의 문제를 설명해 주는 정도는 10.2%(F=2.21, p<.05)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 중 2개의 변인(학년, 가족형태)이 사고의 문제 정도의 예측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6> 사고의 문제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사고T	성별	-.959	.860	-.074	-1.11
	학년	.731	.309	.156	2.36*
	종교유무	.678	1.016	.047	.66
	거주지역	-1.127	1.030	-.074	-1.09
	가족형태	8.055	2.975	.183	2.70**
	부 나이	-.032	.117	-.020	-.27
	모 나이	-.051	.073	-.055	-.69
	부 학력	-.805	.476	-.124	-1.68
	모 학력	-.521	.548	-.074	-.95
	부 직업유무	1.965	1.393	.097	1.41
	모 직업유무	-1.287	.866	-.100	-1.48
	constant	59.736	5.486		10.889
	R^2	.102			
	F	2.21*			

* $p<.05$; ** $p<.01$; *** $p<.001$.

(6) 주의집중문제와 관련변인의 예측관계

주의집중문제 정도에 대한 11개 변인들의 예측관계는 <표Ⅳ-37>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37>에 보이듯이 11개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주의집중문제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7> 주의집중문제와 관련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주의집중 문제T	성별	-2.039	.888	-.154	-2.29*
	학년	.203	.319	.043	.63
	종교유무	1.762	1.049	.121	1.68
	거주지역	-.722	1.063	-.046	-.67
	가족형태	1.932	3.071	.043	.62
	부 나이	.095	.121	.058	.78
	모 나이	-.002	.075	-.002	-.02
	부 학력	-.497	.492	-.075	-1.01
	모 학력	-1.204	.566	-.167	-2.12*
	부 직업유무	-.439	1.438	-.021	-.30
	모 직업유무	-.696	.894	-.053	-.77
	constant	56.692	5.662		10.012
	R^2	.079			
	F	1.67			

* $p<.05$; ** $p<.01$; *** $p<.001$.

(7) 비행과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비행 정도에 대한 11개 변인들의 예측관계는 <표 IV-3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8>에 보이듯이 11개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비행 정도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8> 비행과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비행T	성별	-1.441	.836	-.116	-1.72
	학년	-.316	.301	-.071	-1.05
	종교유무	-1.056	.987	-.077	-1.06
	거주지역	-.673	1.001	-.046	-.67
	가족형태	7.108	2.891	.170	2.45*
	부 나이	.129	.114	.085	1.13
	모 나이	-.057	.071	-.065	-.80
	부 학력	.048	.463	.008	.10
	모 학력	-.364	.533	-.054	-.68
	부 직업유무	.922	1.354	.048	.68
	모 직업유무	.173	.842	.014	.20
	constant	53.375	5.332		10.011
	R^2	.063			
	F	1.32			

* $p<.05$; ** $p<.01$; *** $p<.001$.

(8)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공격성 정도에 대한 11개 변인들의 예측관계는 <표 IV-39>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9>에 보이듯이 11개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공격성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9>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공격성T	성별	-1.166	.833	-.095	-1.39
	학년	.487	.300	.110	1.62
	종교유무	.365	.984	.027	.37
	거주지역	-.455	.998	-.031	-.45
	가족형태	1.686	2.882	.040	.58
	부 나이	-.003	.114	-.002	-.02
	모 나이	-.128	.071	-.147	-1.81
	부 학력	-.391	.461	-.063	-.84
	모 학력	.002	.531	.000	.00
	부 직업유무	.028	1.349	.001	.02
	모 직업유무	-1.656	.839	-.135	-1.97
	constant	60.928	5.314		11.466
	R^2	.062			
	F	1.29			

* p<.05; $^{**}p$ <.01; *** p<.001.

(9) 내재화문제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내재화문제 정도에 대한 11개 변인과의 예측관계는 <표 Ⅳ-40>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39>에 보이듯이 11개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내재화문제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0> 내재화문제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내재화T	성별	-1.592	1.559	-.069	-1.02
	학년	.977	.560	.117	1.74
	종교유무	1.726	1.840	.068	.93
	거주지역	1.642	1.867	.060	.87
	가족형태	8.190	5.390	.105	1.52
	부 나이	.249	.023	.087	1.17
	모 나이	-.156	.132	-.096	-1.18
	부 학력	.074	.863	.006	.08
	모 학력	-1.660	.993	-.132	-1.67
	부 직업유무	.147	2.524	.004	.05
	모 직업유무	-.712	1.569	-.031	-.45
	constant	47.045	9.938		4.734
	R^2	.070			
	F	1.46			

* p<.05; $^{**}p$ <.01; *** p<.001.

(10)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외현화문제 정도에 대한 11개 변인들의 예측관계는 <표 Ⅳ-4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41>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외현화T	성별	-.334	1.335	-.017	-.25
	학년	.354	.480	.050	.73
	종교유무	1.323	1.577	.061	.83
	거주지역	-1.282	1.599	-.056	-.80
	가족형태	5.257	4.617	.079	1.13
	부 나이	.128	.182	.053	.70
	모 나이	-.188	.113	-.136	-1.66
	부 학력	-.192	.739	-.020	-.26
	모 학력	-.830	.851	-.086	-1.08
	부 직업유무	-.204	2.162	-.007	-.09
	모 직업유무	-1.384	1.344	-.071	-1.03
	constant	56.112	8.514		6.590
	R^2	.047			
	F	.95			

* $p<.05$; $^{**}p<.01$; *** $p<.001$.

<표 Ⅳ-41>에 보이듯이 11개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외현화문제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총문제행동과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총문제행동 정도에 대한 11개 변인들의 예측관계는 <표 Ⅳ-42>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42>에 보이듯이 11개 독립변인을 동시에 회귀등식에 투입한 결과 총문제행동을 설명해 주는 정도는 9.5%(F=2.04, p<.05)로 나타났으며 11개의 독립변인 중 2개의 변인(가족형태, 모 학력)이 총문제행동 예측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2> 총문제행동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총문제행동 T	성별	-1.835	1.313	-.093	-1.39
	학년	.799	.472	.112	1.69
	종교유무	2.316	1.550	.106	1.49
	거주지역	-.328	1.572	-.014	-.20
	가족형태	9.510	4.539	.142	2.09*
	부 나이	.162	.179	.066	.90
	모 나이	-.119	.111	-.085	-1.07
	부 학력	-.339	.727	-.034	-.46
	모 학력	-1.894	.836	-.177	-2.26*
	부 직업유무	.631	2.126	.020	.29
	모 직업유무	-1.171	1.321	-.060	-.88
	constant	52.679	8.369		6.294
	R^2	.095			
	F	2.04*			

* $p<.05$; ** $p<.01$; *** $p<.001$.

Ⅴ. 논의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문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아개념의 정도와 수준

1) 자아개념의 정도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총 227명의 자아개념 하위영영별 *T*점수는 학문적 자아개념에서 평균인 50 전후를 보이고 있다. 비학문적 자아개념에서도 50 전후를 보이고 있으나 이성친구관계자아(72.43)와 동성친구관계자아(61.81)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표 Ⅳ-1> 참조).

선행연구에서 남윤주(2009)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을 나타냈는데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이 일반가정 아동집단보다 신체외모와 학업자아가 조금 낮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유아기 때 일반적으로 높았던 자아개념이 아동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영역에 걸쳐 객관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 민감해지고 과중한 학업부담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쳐 낮아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체능력자아와 친구관계자아를 비롯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일반아동보다 다문화가족아동이 근소한 차이지만 낮았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김경란(2006)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화를 형성해가는 시기에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언어문제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송선진(2007)도 다문화가정 자녀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전체적인 자아정체감 발달이 낮았고 특히 자신의 외모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낄수록, 한국어 실력이 낮다고 느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와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의 자아개념을 보였으며 특히 이성친구관계자아와 동성친구관계자아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어머니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대부분 읍이나 면 소재지와 같은 좁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주변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 농어촌지역에서 보편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성 및 동성또래관계를 자부심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 태어나고 성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아방어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자아개념의 수준

다문화가정 청소년 총 227명중 55.7%에 속하는 131명이 전체자아에서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30.8%가 보통수준의 자아개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11.5%가 낮은 수준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 참조). 자아개념을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 학문적 자아개념에서 부정적 자아개념의 빈도와 비율이 수학자아, 일반교과자아, 언어자아 순으로 나타났다. 비학문적 자아개념에서는 이성친구자아가 가장 긍정적이고 다음 동성친구관계자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T점수의 평균 순위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상군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하갑(1986)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개념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박은정(2008)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개념 하위영역별 평균점수가 40~57사이의 백분위점수

를 가지기 때문에 자아개념의 정도를 보통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학문적 자아개념의 *T*점수 평균 50.48과 비학문적 자아개념영역의 신체외모자아와 신체능력자아의 평균수준 50.46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전체자아 *T*점수 평균 57.56과도 유사하여 위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한계를 갖는다.

2.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와 유형

1)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총 227명의 정서·행동문제 8개 하위척도별 *T*점수는 사회적 미성숙, 위축, 주의집중문제, 사고의 문제, 신체증상,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54.17~56.99로 평균인 5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군집영역에서는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 외현화문제 순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50.69~51.29로 나타나 평균과 근사치를 보였다. 또한 <표 Ⅳ-4>에서 보이듯이 11개 하위척도에서 비행척도 3.1%에서부터 내재화문제척도 15.4%가 T점수 63이상의 임상범위로 나타났다. 외현화문제는 11.8%가 임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한국 청소년의 평균수준 10%와 매우 근접하지만, 내재화문제는 5.4% 정도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내재화문제의 어려움을 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수연과 이승희(2008)의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높은 청소년이 하위척도별 평균 *T*점수가 공격성, 비행, 주의집중문제, 사고의 문제, 사회적 미성숙, 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는 18.1%와 20.4%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내재화문제가 더 높게 나타난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현화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

는데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서는 내재화문제가 더 높게 나타나 비행이나 공격성의 외현화문제보다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문제를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는 청소년에 해당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중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때 아동기를 보냈다는 점과 함께 청소년들의 정서 특성상 정서 표출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억제하므로 내재화된 것으로 보인다.

2) 정서·행동문제의 유형

다문화가정 청소년 총 227명의 정서·행동문제의 유형별 비율을 보면 내재화문제만 보이는 학생은 8.8%, 외현화문제만 보이는 학생은 5.3%,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모두 보이는 학생은 6.6%로 나타났고 정상범위에 속하는 학생이 180명(79.3%)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20.7%(47명)가 임상수준의 정서·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외현화문제보다 내재화문제를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상범위가 더 큼을 알 수 있다(<표 Ⅳ-5> 참조).

이수연과 이승희(2008)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내재화문제만 보이는 학생이 7.8%, 외현화문제만 보이는 학생은 10.2%,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모두 보이는 학생은 10.3%, 정상범위에 속하는 학생이 71.7%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재화문제 비율이 1.0%정도 높고 외현화문제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오히려 4.9%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모두 보이는 경우도 3.7%가 낮게 나타나 정상범위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율이 7.6%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형제간의 갈등을 보이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정서·행동문제를 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중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때 아동기를 보냈다는 점과 현재는 청소년으로 성장한 이들이 정서의 표출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억제하므로 내재화된 것으로 보인다.

3. 자아개념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1) 언어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언어자아 점수를 3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본 결과 그 차이를 보면 언어자아가 부정적인 집단이 긍정적, 보통인 집단보다 위축과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와 총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독해능력이 떨어지거나 독서를 싫어한다고 느낀다거나 영어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못한다고 느끼는 등의 언어자아가 부정적일 때 위축과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와 총문제행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박민서(2007)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아졌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이승미(2007)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정확한 발음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또래들과 어울리기 힘들고 배척 받으며 위축되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이나 다른 아동의 물건을 훔치는 등 부적응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주장과도 유사하게 일치한다(<표 Ⅳ-6> 참조).

2) 수학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수학자아의 점수대를 3수준으로 구분하여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위축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를 보면 수학자아가 부정적일 때 즉, 자신이 수학성적이 나쁘다거나 수학을 싫어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에 위축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학자아가 부정적인 집단이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그리고 총문제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Ⅳ-7> 참조).

3) 일반교과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일반교과자아의 수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교과목 성적이 나쁘다든지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똑똑하지 않다고 느끼는 등 일반교과자아가 부정적일 경우에 위축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8> 참조). 즉 일반교과에 대한 자아가 부정적이면 자신감이 부족하여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며 주의집중이 어렵고 내재화영역의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하고 총문제행동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일반가정의 초등학교 4, 6학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연구한 유영창(1999)은 학문적 자아개념의 수준에 따라 과잉행동과 위축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고, 신호임(2004)은 학문적 자아개념과 문제행동이 의미있는 부적상관이 있다고 하여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아동일수록 학문적 자아개념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용구(1993)는 학문적 자아개념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보다 낮은 집단에서 문제행동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4) 신체외모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신체외모자아의 수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본 결과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9> 참조). 그 차이를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외모가 못생겼다거나 자신의 외모를 싫어한다든지 하는 신체외모에 대한 자아가 부정적일수록 신체증상이 나타나고 우울하거나 불안감을 가지며, 사회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고 주의집중 문제, 내재화문제를 가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현영

(2006)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외모의 차이를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아졌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신효선(2007)의 연구에서도 외모가 다르다고 느낄수록 학교부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5) 신체능력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신체능력자아의 수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0> 참조). 그 차이를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스포츠나 춤 등을 잘 못한다거나 싫어하는 등 신체능력자아가 낮다고 느낄수록 자신감이 떨어져 위축되고 우울하거나 불안감을 겪으며,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하고 유치하며, 내재화문제를 더 갖게 되고 총문제행동도 증가하여 정서·행동상의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6) 동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동성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위축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우울/불안, 사회적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1> 참조). 즉, 동성친구와 관계를 맺고 사귀는데 자신이 없다고 느낄수록 위축되고 우울하거나 불안하고 주의를 집중하는데도 어려움을 갖게 되고 내재화문제도 갖게 되며 총문제행동 또한 증가되어 정서·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승해경(2008)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또래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놀림을 받은 경우가 존재하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없어 혼자 행동하거나 소극적이며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고, 이승미

(2007)는 또래상호작용에 문제를 나타내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 이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이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사회적미성숙척도, 내재화문제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2> 참조). 그 차이는 이성과 어울리고 사귀는데 어려움을 느낄수록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도 성숙이 더디고 정서·행동문제의 내재화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재화문제도 이성친구자아가 보통인 집단이 긍정적인 집단보다 좀 더 부정적인 값을 나타내 이성친구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8) 부모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부모관계자아의 수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정서·행동문제의 모든 하위영역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3> 참조). 그 차이를 보면 부모관계자아가 보통 수준일 때도 많은 영역에서 긍정적인 집단에 비해 정서·행동문제의 여러 영역에서 부정적인 정서·행동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님과 대화하기가 어렵고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거나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등 부모관계자아가 부정적이면 모든 정서·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신효선(2007)과 정윤정(2007)의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대화 이해 수준과 가정 내에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가정 내 의사소통의 중요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9) 정직/신뢰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정직/신뢰자아의 수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4> 참조). 그 차이를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때때로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잘 안 지킨다거나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정직/신뢰자아를 가질수록 위축되고 우울하거나 불안하며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주의가 흩어지며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비행을 하게 되며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화문제 뿐만 아니라 총문제행동이 증가하여 정서·행동문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10) 정서적 안정성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정서적 안정성자아의 수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정서·행동문제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5> 참조). 그 차이를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거나 쉽게 혼란스러워지고 의기소침해지거나 침착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 안정성자아가 전반적인 정서·행동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부모관계자아와 함께 정서적 안정성자아가 부정적일수록 정서·행동문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서·행동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11) 일반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일반자아의 수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공격성 척도를 제외한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 전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주의집중문제, 위축, 사회적미성숙, 우울/불안, 비행, 신체증상, 사고의 문제, 그리고 내재화문제와 함께 총문제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6> 참조). 그 차이를 보면 어떤 일이든지 잘하고,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위축되고 우울하거나 불안하며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하고 사고의 문제를 가지며, 주의집중과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전체자아의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전체자아의 수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비행척도를 제외한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영역 전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7> 참조). 그 차이를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전체자아가 부정적일수록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위축되며, 우울하거나 불안감을 가지며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하고 강박적 사고와 같은 사고의 문제를 가지며,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며 말다툼이나 싸움, 반항 등 공격성이 증가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내재화됨과 함께 외현화되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비학문적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신호임(2004)은 문제행동과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에서 총자아개념 간에는 의미있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아동일수록 총자아개념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그리고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이 문제행동과 부적상관이 있었다는 분석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신체적 자아개념은 문제행동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는 정서·행동문제에서 신체외모자아와 신체능력자아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영창(1999)은 문제행동과 자아개념은 부적상

관을 나타내며 아동들의 문제행동, 특히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을 많이 하는 어린이들은 자아개념이 낮고,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을 적게 하는 아동들은 자아개념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현진(2005)은 우울과 함께 품행장애 성향을 가진 집단의 청소년이 우울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 등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청소년 집단의 자아개념이 낮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유금란(1999)은 잠재비행이 높은 청소년 일수록 자아개념이 낮다고 하여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이 궁극적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수용이 그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은경(2003)은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는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일반가정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발달수준이 비슷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4.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1)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언어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학년, 모의 학력, 부의 직업유무의 3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언어자아가 낮아지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직업을 가질수록 언어자아 점수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높은 학력과 아버지의 안정된 직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언어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학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모 나이, 모 직업유무의 2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수록 높아

지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한국사회에 적응해 온 기간이 오래될 경우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학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일반교과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모 나이 1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일반교과자아가 높아지는 정적 상관을 보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결혼이민자인 어머니가 한국사회에 정착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체외모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가족형태 1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부부중심가족형태일수록 신체외모자아가 높아지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함께 사는 부부중심가족형태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부모의 관심과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므로 신체외모자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신체능력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능력자아는 성별, 학년, 종교유무, 거주지역, 가족형태, 부의 나이, 모의 나이,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유무, 모 직업유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성친구관계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학년, 가족형태, 모 나이, 부 나이, 모 학력의 4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성친구관계자아가 높아지고, 부부중심가족형태일수록 높아지며,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동성친구관계자아가 긍정적임을 의미하고, 부부중심가족형태로 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한국 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친구관계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학년과 모 학력 2개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이성친구관계자아가 낮아지고 모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성친구관

계자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이성친구관계자아는 부정적으로 형성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장할수록 이성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성친구를 사귀는데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관계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종교의 유무, 모 나이 2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모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고, 종교를 가졌을 경우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이민자인 어머니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기간이 오래되어 한국 말과 문화에 익숙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안정될수록 부모관계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종교를 가졌을 경우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모관계자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직/신뢰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1개 변인인 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직/신뢰자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 지역 내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보편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정서적 안정성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모 학력만 유의한 상관을 보여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정서적 안정성자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력이 높은 어머니 일수록 자녀에게 더 적절하고 안정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면서 양육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반자아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가족형태, 모 학력의 2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부부중심가족형태의 가정에서 살수록 일반자아가 높아지고 모 학력이 높을수록 일반자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서 부모와 함께 안정된 가정에서 살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신에 대한 가치나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자아도 11개의 관련변인 중 부 학력, 모 학력의 2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전체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모 나이는 4개 하위영역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모 학력은 5개 하위영역과, 가족형태는 2개 하위영역과, 종교, 부 직업 유무, 부 학력은 각각 1개 하위영역과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Ⅳ-18> 참조).

2) 자아개념 정도와 관련변인의 예측관계

하위영역별 자아개념 정도와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언어자아, 동성친구관계자아, 이성친구관계자아의 3개 하위영역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자아 정도의 예측에는 11개 관련변인 중 학년과 부 직업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9> 참조). 학년이 올라갈수록 언어자아 정도가 낮아지고 아버지가 직업을 가질수록 언어자아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서툰 문해능력이나 언어적 상호작용이 언어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또한 아버지가 직업을 가졌을 경우 학력이 높거나 안정된 가정경제를 꾸릴 수 있고 여가시간에 자녀와 함께할 수 있어 어머니만으로는 부족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더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성친구관계자아 정도의 예측에는 11개 관련변인 중 학년, 모 학력 2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4> 참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성친구관계자아 점수가 높아지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동성친구관계자아가 올라가는 것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동성친구를 사귀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성친구관계자아 정도의 예측에는 11개 관련변인 중 학년, 모 학력의 2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5>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성친구관계자아 점수가 낮아지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성

친구관계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성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보이지만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성친구를 사귀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관련변인들 중 학년, 부 직업유무, 모 학력의 3개 변인이 언어자아 정도, 이성친구관계자아 정도, 그리고/또는 동성친구관계자아 정도의 예측에 유의하게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용구(199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학문적자아 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백미숙(2010)은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학년이 낮아질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보인다.

그러나 하위영역별 자아개념 정도와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학자아, 일반교과자아, 신체외모자아, 신체능력자아, 부모관계자아, 정직/신뢰자아, 정서적 안정성자아, 일반자아, 전체자아 정도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학년, 부 직업유무, 모 학력의 3개의 변인이 언어자아 정도, 이성친구관계자아 정도, 그리고/또는 동성친구관계자아 정도의 예측에 유의하게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일반가정 청소년의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친구관계자아와 이성친구관계자아는 오히려 높았으며, 부정적인 자아개념인 낮은 자아개념을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율도 낮았다는 점과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자녀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읍이나 면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은 수를 차지해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어머니의 국적이 다국적화 되면서 높은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1)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위축은 11개의 관련변인 중 학년과 모 학력 2개 변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위축점수가 증가하고 모 학력이 높을수록 위축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혼자 있거나 말을 잘 안하고, 기운이 없는 등 위축이 증가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러한 위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증상은 11개의 관련변인 중 가족형태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기타형태가족일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함께 안정되게 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좀 더 지지 받게 되어 기타가족형태의 청소년들보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배앓이, 발진, 구토 등과 같은 신체증상을 덜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불안은 11개의 관련변인 중 거주지역, 모 학력, 모 직업유무의 3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역이 면 소재지에서 군, 시 소재지, 즉 도시로 갈수록 우울/불안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직업을 가질수록 우울/불안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우울/불안이 증가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이거나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자녀일 경우 우울/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미성숙은 11개의 관련변인 중 가족형태, 모 학력 2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타형태가족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놀림을 받고 어린 행동을 하거나 잘 못 어울리고 또래보다 어린 아동과 노는 등 사회적으로 미성숙함을 보이는 것으로서 안정된 형태의 가정과 어머니의 높은 교육수준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문제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학년, 가족형태, 모 학력의 3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타형태가족일수록, 어머니의 학

력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장하거나 학력이 낮은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강박적인 사고나 강박적 행동, 또는 이상한 생각 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의집중문제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성별, 모 학력의 2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의집중문제는 여자 청소년 보다 남자 청소년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이 주의집중에 더 어려움을 보이고 가만히 있지 못 하거나 더 충동적이며, 높은 학력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양육과정에서 자녀에게 어린행동을 하거나 공상에 빠지거나 주의집중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호임(2004)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주의한 행동은 성별에 있어서 여학생 보다 남학생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함을 보인다.

비행은 11개의 관련변인 중 가족형태 1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기타형태가족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안정되게 살아가지 못 할수록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친구 사귀기, 욕이나 도벽 등의 비행을 더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격성은 11개의 관련변인 중 모 나이, 모 직업유무의 2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어머니가 직업을 가질수록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공격성은 한국생활에 적응이 잘 된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낮아지고, 또 어머니가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과 함께 경제력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정서적 지지와 함께 교육적 지지를 좀 더 받을수록 공격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어머니의 나이와 함께 어머니의 직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모 학력 1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의 문제와 비행, 공격성의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총문제행동은 11개의 관련변인 중 가족형태, 모 학력의 2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타형태가족일수록 총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가족형태가 부부중심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총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모 학력이 8개 하위영역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가족형태는 5개 하위영역과 상관관계를 보이며 학년, 거주지역, 모 나이가 각각 1개 하위영역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다음으로 가족형태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은경(2003)은 일반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고 하며 양육자가 부모인 집단보다 친척이거나 기타인 집단이 공격행동, 불안/우울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함을 보인다. 조선덕(1990)의 연구에서도 정서장애아의 부적응행동은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 아동들의 출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미성숙으로 인한 부적응행동이 가장 심각했으며 주의력 결핍과 함께 심각한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효선(2007)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으로 보고 위축행동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했으나 본 연구에서 공격행동은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차이를 보인다. 또한 부모의 학력에 따른 학교부적응의 차이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학교부적응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위축과 공격성이 높아지는 경향과 일치함을 보인다.

2)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의 예측관계

먼저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척도별 정도와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

과를 살펴보면 위축,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총문제행동의 4개 하위척도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축정도 예측에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학년과 모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위축이 증가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위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성장해가면서 더 위축되지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표 Ⅳ-32> 참조). 그러나 신효선(2007)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축은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관련변인 중 성별이 위축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미성숙 정도 예측에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종교유무, 가족형태, 모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부부중심의 안정된 가족형태 속에서 성장하지 못 할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미성숙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표 Ⅳ-35> 참조). 그런데 조선덕(1990)은 농촌지역 아동이 도시지역 아동에 비해 미성숙으로 인한 부적응행동이 심각하다고 보아 관련변인 중 거주지역이 미성숙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사고의 문제 정도 예측에는 11개의 관련변인 중 학년, 가족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고의 문제가 증가하고, 기타형태가족일수록 사고의 문제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6> 참조). 이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보살핌을 받지 못 할수록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 또는 이상한 생각이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총문제행동 정도 예측에는 11개 관련변인 중 가족형태와 모 학력의 2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중심가족형태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총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표 Ⅳ-42> 참조). 그런데 김용구(1993)는 서울지역보다 중소도시로 갈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고 하여 관련변인 중 거주지역과 어머니의 학력이 총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일부분을 지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척도별 정도와 11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체증상,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정도를 거의 설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은경(2003)은 양육자가 부모인 집단보다 기타가족 형태일수록 우울/불안이 높다고 하여 관련변인 중 가족형태가 일반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신효선(2007)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또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공격성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관련변인들 중 성별과 어머니의 학력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신호임(2004)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주의한 행동 유형이 남학생에게서 많이 나타났다고 하여 남자 어린이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김은경(2000)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내면적 성격의 문제로 문제행동이 내재화된다고 하여 관련변인 중 성별이 내재화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신의 문제 성향을 외현화된 문제행동으로 표출한다고 하여 관련변인 중 성별이 외현화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11개의 관련변인 중 4개의 변인만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와는 다른 차이가 나타난 것은 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가 일반가정 청소년의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임상범위 또한 일반가정 청소년과 근소한 차이지만 낮았다는 점과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자녀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읍이나 면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은 수를 차지 해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어머니의 국적이 다국적화 되면서 높은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라남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227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개념의 정도와 수준 그리고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와 유형을 알아보고,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자아개념이 관련변인들(성별, 학년, 종교유무, 거주지역, 가족형태, 부 나이, 모 나이,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유무, 모 직업유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정서·행동문제가 관련변인들(성별, 학년, 종교유무, 거주지역, 가족형태, 부 나이, 모 나이,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유무, 모 직업유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논문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 및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별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정도는 학문적 자아개념 영역과 비학문적 자아개념 영역에서 T점수의 평균이 50점 전후를 보여 한국의 일반학생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의 자아개념을 보였으며 이성친구관계자아와 동성친구관계자아는 오히려 일반가정 청소년의 T점수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한계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수준은 전체의 55.7%가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30.8%가 보통 수준의 자아개념을 가진 것으로, 11.5%가 낮은 수준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부분이

보통 수준 이상의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척도별로는 학문적 자아개념에서 수학자아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일반교과, 언어자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학문적 자아개념에서는 신체능력자아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일반자아, 신체외모자아, 정직/신뢰자아, 부모관계자아, 정서적 안정성자아, 동성친구관계자아, 이성친구관계자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정도는 8개 하위척도별 평균 T점수는 사회적 미성숙, 위축, 주의집중문제, 사고의 문제, 신체증상,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순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가정 청소년의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 외현화문제 순으로 나타난 군집영역에서도 평균과 근사치를 보였는데 내재화문제가 외현화문제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유형별 비율은 79.3%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정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2.5%가 임상수준의 정서·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내재화문제를 가진 학생의 비율만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고 외현화문제를 보이는 학생과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모두 보이는 학생의 비율은 오히려 낮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 가정청소년에 비해 정서·행동문제를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차이는 학문적 자아개념 영역에서 언어자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위축,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 행동이 증가하였다. 수학자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 일반교과자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위축,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 비학문 적자아개념 영역에서 신체외모자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 신체능력자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 동성친구관계자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

의집중문제가 증가하였고 이성친구관계자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사회적 미성숙, 내재화문제가 증가하였다. 부모관계자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정서·행동문제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긍정적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하였고, 정직/신뢰자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 정서적 안정성자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정서·행동문제 전 영역의 문제가 증가하였고, 일반자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공격성을 제외한 정서·행동문제 전 영역의 문제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자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비행을 제외한 정서·행동문제 전 영역의 문제가 증가하였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정도와 관련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언어자아는 학년, 모 학력, 부의 직업유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학자아는 모 나이, 모 직업과 일반교과자아는 모 나이와, 신체외모자아는 가족형태와, 동성친구관계자아는 학년, 가족형태, 모 나이, 부 나이, 모 학력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성친구관계자아는 학년과 모 학력과, 부모관계자아는 종교의 유무와 모 나이와, 정직/신뢰자아는 학년과, 전체자아는 부 학력, 모 학력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신체능력자아와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가진 변인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모 나이, 모 학력, 모 직업유무와 같은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학년, 가족형태와 함께 어머니의 나이와 어머니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자아개념정도와 언어자아는 학년과 부 직업유무가 중요한 변인이고, 동성친구관계자아는 학년과 모 학력이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이성친구관계자아는 학년과 모 학력이 유의한 변인이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는 위축은 학년과 모 학력이 중요한 변인이고, 신체증상은 가족형태가 중요한 변인이며, 우울/불안은 거주지역, 모 학력, 모 직업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미성숙은 가족형태와 모 학력이 주요변인이고, 사고의 문제는 학년, 가족형태, 모 학력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비행은 가족형태가 주요변인이고, 공격성은 모 나이와 모 학력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는 모 학력이 주요변인이고, 총문제행동은 가족형태와

모 학력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특히 관련변인 중 어머니의 학력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 다음으로 위축은 학년과 모 학력이 주요변인이고, 사회적 미성숙은 종교유무, 모 학력이 주요변인이었으며, 사고의 문제정도는 학년과 가족형태가 중요한 변인이었다. 총문제행동은 가족형태와 모 학력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2. 제언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과제나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가 학생 자신이 직접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대로 나타나지만 이성친구관계자아 및 동성친구관계자아 두 영역만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자부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심리적 방어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정도와 수준,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와 유형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초등학생이나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들이 계속 실시되어 본 연구결과들이 일반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관련변인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별, 학년 및 가족이나 가정환경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을 선정하였는데, 자아개념은 언어자아, 동성친구관계자아, 이성친구관계자아의 3개 영역에서만 하위영역별 차이를 보였다. 정서·행동문제는 위축,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총문제행동 등 4개 영역에서만 하위영역별 차이를 보였다. 그 외의 영역들은 관련변인으로 설명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변인들의 중요성은 후속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정도는 학년, 모 나이, 모 학력이 중요한 변인이었고,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가족형태와 모 학력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키고 이들의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학년을 고려한 세분화된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형태에 있어서 부부중심가족형태를 유지한 안정된 가정에서 이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기타형태가족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 지지를 위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나 언어가 같은 어머니들을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함께 가는 부모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일 경우 자아개념이 더 긍정적이고 정서·행동문제를 덜 보이는 것으로 볼 때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높여 자녀와의 좀 더 나은 의사소통 뿐 만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진영·이경화 (2006). **자아개념검사(SCI)**. 서울: 학지사.

권복순 (2000).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회지**, 40, 5-37.

권정연 (2006).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 및 정서 상태와 청소년 문제행동간의 관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권지은 (1999). **청소년비행유발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경란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미경·문장원·서은정·윤점룡·윤치연·이상훈 (2007).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서울: 학지사.

김미애 (199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애경 (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용구 (199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구적 자아개념 및 문제행동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김은경 (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미

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은화 (2007). **특수학교 정신지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특성 및 관련변인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김진숙·강진구 (2000). **청소년 문제유형분류체계 개발 연구 Ⅶ.** 한국청소년상담원.

김혜수·허혜경 (2002).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남윤주 (2009).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아동자아개념과 우울에 관한 비교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노필순 (2005). **중학생의 빈곤감,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노하갑 (1985).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노현숙 (2002).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미래인력연구원 (2005. 6).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경기도 과천: 보건복지부.

박미경 (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민서 (2007). **다문화가정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영신·김의철 (2001).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 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2), 25-52.

박은정 (2008). **초등학교 고학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진자·이승희 (2002).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대한 K-CBCL과 K-YSR 실시 결과의 비교. **정서학습장애연구, 18**, 207-227.

방명애·이효신 공역 (2004). **정서 및 행동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백미숙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복지부 (2005. 6)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서울: 저자.

보건복지부 (2006. 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프로그램**.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09).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선별검사 및 사례관리연계체계 개발. 서울 : 보건복지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확정.

서울특별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 서울: 학지사.

서혁 (2006). 다문화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12,** 1-24.

송선진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승해경 (2008).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및 방과 후 생활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호임 (2004).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신효선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안경식·김동광·김향은·김회용·박천웅·이철호·장인실 공저 (2008). **다문화교육의 현**

황과 과제. 서울: 학지사.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양재찬 (2006). 동남아 혼혈 더는 외면하면 안된다. 월간중앙 5월호, 263-271.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 (2001).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오성배 (2005). 코시안의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68.

오윤선 (2006).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예영B&P.

원호택·이훈진 (1997). 편집성향집단의 자기개념과 기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6 (1), 173-182.

유금란 (1999).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잠재비행의 관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유난영 (2008).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김포시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유영창 (1999). 문제행동과 자아개념의 관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윤진 (1992). 청년심리학. 한국청소년개발원.

윤선숙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자기개념, 자의식 및 사회불안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이상복·이상훈 (1998). 정서·행동장애아 치료와 교육.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이성희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소현·박은혜 (2006).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이수연·이승희 (2008). 청소년의 형제관계와 정서·행동문제의 관련성. **정서·행동장애연구**, 24(2), 27~48.

이승미 (2007). **점토를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족아동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이윤호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을 높이는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은경 (2003).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인근사회학적 변인 및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태경 (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성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혜경 (2005). 혼인 이주와 혼인 이주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이희정 (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충청북도 거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대학원.

임경혜 (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 문제에 다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임진현 (2005).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기질과 자가개념 및 정서 특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장휘숙 (2000). **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전라남도 교육청 (2009. 4). 어머니가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자녀 시·도별 학년 현황.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모 국적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통계로 보는 전남교육 2009**. (p. 238).

전라남도청 복지여성국 (2009. 6). 전라남도 시·군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 **전라남도청 자체자료**

정명숙·손영숙·양혜영·정현희 공역 (2001). **아동기 행동장애**(제4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정명숙·손영숙·정현희 공역 (2004). **아동기 행동장애**(제5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정옥분 (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정옥분 (200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정윤정 (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 전라북도지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정은희 (2004). 농촌 지역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조선덕 (1990). 행동 평정 척도에 의한 정서장애 유형 실태조사. **공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8**(1), 15-46.

조수철·남민 (1994). 소아와 청소년의 행동장애와 우울, 불안증상과의 상호관계. **신경정신의학**, **33**(6), 1273-1283.

추정선 (2005). 상담교육을 위한 **이상심리학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통계청 (2009. 3).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시도별 농림어업종사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2008년 혼인통계 결과**. (p. 16-17)

하영희·김경연 (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과의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17-29.

하영희 (2004). 부모- 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 행동과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12(2), 42-52.

한겨레신문 (2003. 3. 13). 다문화가정.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7.** 서울: 교육과학사.

한상철·김혜원·설인자·임영식·조아미 (2003). **청소년문제행동.** 서울: 학지사.

홍경자 (1986). **초등학교 아동의 행동양상도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홍영숙 (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Behavior Check List 1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chenbach, T. M. (1998). Diagnosis assessment, taxonomy and case formulations. In T. H. Ollendick & Hersen, M. (Eds.), *Handbook of child psychopathology* (3rd ed., pp. 17-32). New York : Plenum Press.

Achenbach, T. M. (2000). Assessment of psychopathology. In A. J. Sameroff, M. Lewis, & S. M. Miller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nd ed.). New York :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Taxonomic issues in child psychopathology. In T. H. Ollendick & M. Herse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pathology*, (pp. 125-141). New York : Plenum.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 Profiles.* Burliu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52, 1968, 1980, 1987, 1994,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assarath, L. (2001). Conduct disorder: A biopsychosocial Review.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6*(7), 609-617.

Baumrind, D. (1996). The discipline controversy revisited. *Journal of Applied Family and Child Studies, 45*(4), 405-414.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rooks-Gunn, J., & Reiter, E. (1990). Therole pubertal processes. In S. Feldman & G.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16-2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rown, B. (1990). Peer groups. In S. Feldman & G. Ellio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171-196).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apalidi, D. (1992). *Co-occurrence of conduct problem and depressive symptom in early adolescence boys. Development and Psychology, 4*(1), 125-144.

Cicchetti, D., & Sroufe, L. A. (2000). Editorial : The past as prologue in the futur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1), 255-264.

Cicchetti, D., Toth, S., & Bush, M. (1988).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incompetence in childhood: Suggestions for intervention. In B. B. Lahey & A. E. Kazdin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1, pp. 591-607). New York: Plenum.

Clark, R., Anderson, N. B., Clark, V. R., & Williams, D. R. (1999). Racism as a stressor for African Americans. *Americans Psychologist, 54*(10), 805-816

Compas, B. E., Connor-Smith, J. K., Satzman, H., Thomsen, A. H., &

Wadsworth, M. E. (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rescenc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27*(1), 87-127.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s Sons.

Department of Education (1993). *Pupils with problems, draft circula.* London: DEF Publications Centre.

Donovan, J. E., Jessor, R, Cost, F. M. (1985). Adolescent health behavior and conventionality-unconventionality: An extension of problem-behavior theory. *Health Psychology, 10*(1), 52-61.

Dunn, J. (1996). Children's relationships ; Bridging the divide between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 (5), 507-518.

Ford, C.,& Beach, F. (1951). *Patterns of sexual behavior.* New York Haper & Row.

Fujiura, G. T., & Yamaki, K. (2000). Trends in demography of childhood poverty and disability. *Exceptional Children, 66*(2), 187-199.

Hartup, W. W. (1970). Peer interaction and socilal organization. In P.H. Mus sen (Eds.), *Carmicheal's manual of child psyhology.* New York: Wiley.

Hoffer, A., Osmond, H. (1966). Nicotinamild adenine dinucleotide (NAD) as a treament of schizophrenia.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1*(1), 79-95.

Hoghughi, M. (1992) *Assessing child and adolecent disorders: A Practice manual.* London: Sage Publicatious.

Hosp, J. L., & Reschly, D. J. (2002). Predictors of restricitiveness of placement for African American and Caucasian students. *Exceptional Children,*

68(2), 225-238.

Jensen, P. S., Bloedau, L., Degroot, J., Usser, T., & Davis, H. (1990). Children at risk factors and child symptomat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1), 51-59.

Jones, M. C., & Mussen, P. (1958). Self conceptions, motivations, and interpersonal attitudes of early and late maturing boy. *Child Development, 29*(4), 491-501.

Kagan, D. T. (1971). "A conception of Early Adolescence" *Daedalus*, 100(4), 997-1012.

Kagan, D. T. (1984). Three computer programs for use in introductory level physics laboratories. *Physics Teacher, 22*(7), 443-452.

Kauffman, J. M. (2005).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8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 Prentice-Hall.

Keating, D. (1990). Adolescent thinking. In S. Feldman & G.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54-89).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Krernmo, S., & Heyerdahl, S. (1998). Influence of ethnic factors on bohavior problems in indigenous samiand majority Norwegi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7), 743-751.

Laird, R. D., Jordan, K. Y., Dodge, K. A., Petit, G. S., & Bates, J. E. (2001). Peer rejection in childhood, involvement with antisocial peers in early adolescence and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2), 337-354.

Lemonick, M. D. (1997). The wood molecule, *Time,1*(1), 74-82

Marcia, J.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Marsh, H. W., & Shavelson, R. J. (1985). Self-concept: Its multifaceted, hierarchical structure. *Educational Psychologist, 20*(1), 107-125.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wcomb, A. F., Bukowski, W. M., & Pattee, L. (1993). Children's peer relationship :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99-128.

Offer, D., Ostrove, E., & Howard, K. I. (1981). *The adolescent: A psychological self-portrait.* New York : Basic Books.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Pauling, L. (1968). Orthomolecular psychiaty. *Science, 160*(3825), 265-271.

Pearson, D. A. (1992). Marital life among infer tile spouses: The wife's perspective and its implications in therapy. *Psycsc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3), 15.

Prior, M., & Werry, J. S. (1986). Autism, schizophrenia, and allied disorders. In H. C. Quay & J. S. Werry (Ed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New York : Wiley.

Realmuto, G. M., August, G. J., & Hektner, J. M. (2000). Predictive power peer behavioral assesment for subsequent maladjusment in community samples of disruptive and nondisruptiv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1), 181-190.

Rogers, C. R. (1974). In retrospect : Forty-six year. *American Psychologist, 29* (1), 115-123.

Ross, A. O. (1974). *Psychological disorders of children : A behavioral approach the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McGraw-Hill.

Rubin, K. H., Stewart, S. L., & Coplan, R. J. (1995). Social with drawal in childhood. In T. H. Ollendick & R. Prinz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pp. 385-396). New York: plenum.

Rutter, M., & Sroufe, L. A. (200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oncepts and challeng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1), 265-296.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J. C. (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Silk, J. S., Nath, S., Siegel, L., & Kendall, P. (2000). Conceptualizing mental disorders in children: Where have we been going and where are we going ?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713-735.

Simmons, R. G., & Blyth, D. A. (1987). *Moving into adolescence: The impact of pubertal change and school context.* Howthorne, New York: Aldine & de Gruyter.

Simmons, R. G., Rosenberg, F., & Rosenberg, M. (1973). Disturbance in the self-imagea at adolesc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5), 553-568.

Sprinthall, N. A., & Collins, W. A. (1995). *Adolescent Psychology*: A Developmental View. McGraw - Hill, Inc.

Sroufe, L. A., Duggal, S., Weinfeld, N., & Carlson, E. (2000). Relationship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In A. J. Sameroff, M. Lewis, & S. M. Miller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nd ed; pp. 75-92). New York: Kluwer Academic / Plenum Publishers.

Strang, R. (1957). *The adolescent views himself.* New York: McGraw-Hill.

Tolan, P., Gorman-Smith, D., & Henry, D. (2001). New study to focus on efficacy of "Whole school" prevention approaches.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In Youth, 2*(1), 22-32

Weinberg, M. K., Tronick, E. Z., Cohn, J. F., & Olson, K. L., (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175-188.

Werry, J. S., Reeves. J. C., & Elkind, G. S. (1987). Attention deficit, conduct, oppositional, and anxiety disorder in children: I.S review of research on differentiation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2), 133-143.

White, K. J., & Kistner, J. (1992). The Influence of teacher feedback on young children's peer preferences and percep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33-940.

Wicks-Nelson, R., & Israel, A. C. (2003).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Hall.

Woodward, L. J., & Fergusson, D. M. (2000). Childhood peer reationship problems and later risks of educational under-achievemen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 (1), *191-201*

< 부　　록 >

설 문 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관련변인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 신념,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와 정서·행동특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성명을 쓸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나씩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시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전 영희 올림

< 기초사항 질문지>

기 입 요 령
다음은 학생의 개인적 배경에 관한 기초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밑줄 위에 "V" 표시해주거나 적절한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____① 남
   ____② 여

2. 재학하고 있는 학교 급별은?
   ____① 중등
   ____② 고등

3. 학년은?
   ____① 1학년
   ____② 2학년
   ____③ 3학년

4. 학생의 종교유무는?
   ____① 없다
   ____② 있다 (구체적으로_____)

5.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____① 시소재지
   ____② 읍소재지
   ____③ 면소재지

6. 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체크해주세요)
   ____① 할아버지
   ____② 할머니
   ____③ 아버지
   ____④ 어머니
   ____⑤ 형 (명)
   ____⑥ 누나 (명)
   ____⑦ 오빠 (명)
   ____⑧ 언니 (명)
   ____⑨ 남동생 (명)
   ____⑩ 여동생 (명)
   ____⑪ 그 밖의 친척들
   (써주세요_____)

7. 아버지의 연령은? (세)
8. 어머니의 연령은? (세)
9. 학생의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____① 초졸
   ____② 중졸
   ____③ 고졸
   ____④ 대졸 (전문대 포함)
   ____⑤ 대학원졸

10.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____① 초졸
   ____② 중졸
   ____③ 고졸
   ____④ 대졸 (전문대 포함)
   ____⑤ 대학원졸

11. 부 직업유무은?
   ____① 없다
   ____② 있다 (구체적으로_____)

12. 모 직업유무은?
   ____① 없다
   ____② 있다 (구체적으로_____)

13. 학생의 어머니는 어느 나라 분인가요?
   ____① 몽골
   ____② 일본
   ____③ 중국
   ____④ 태국
   ____⑤ 베트남
   ____⑥ 필리핀
   ____⑦ 캄보디아
   ____⑧ 인도네시아
   ____⑨ 우즈베키스탄
   ____⑩ 기타 (써주세요_____)

< 자아개념 문제 >

기 입 요 령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생각이 '전혀 아니다'면 '1'에, '거의 아니다'면 '2'에, '약간 아니다'면 '3'에, '약간 그렇다'면 '4'에, '거의 그렇다'면 '5'에, '아주 그렇다'면 '6'에 ✓ 표를 해주십시오.

문항	내 용	응 답						문항	내 용	응 답					
		전혀아니다	거의아니다	약간아니다	약간그렇다	거의그렇다	아주그렇다			전혀아니다	거의아니다	약간아니다	약간그렇다	거의그렇다	아주그렇다
1	수학은 내가 잘하는 과목 중의 하나다.	1	2	3	4	5	6	25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화를 잘 낸다.	1	2	3	4	5	6
2	나는 자랑거리가 많다.	1	2	3	4	5	6	26	나는 수학성적이 나쁘다.	1	2	3	4	5	6
3	나는 때때로 남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가 있다.	1	2	3	4	5	6	27	나는 자랑거리가 많지 않다.	1	2	3	4	5	6
4	나는 영어시간의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1	2	3	4	5	6	28	나는 정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5	나는 언제나 편안하다.	1	2	3	4	5	6	29	영어는 내가 잘하는 과목 중의 하나다.	1	2	3	4	5	6
6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1	2	3	4	5	6	30	나는 신경질적이다.	1	2	3	4	5	6
7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1	2	3	4	5	6	31	나는 수학성적이 좋다.	1	2	3	4	5	6
8	나는 정직하다.	1	2	3	4	5	6	32	나는 어떤 일이든 다른 사람들만큼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6
9	나는 영어시간이 기다려진다.	1	2	3	4	5	6	33	나는 때때로 커닝을 한다.	1	2	3	4	5	6
10	나는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많이 한다.	1	2	3	4	5	6	34	나는 독서를 싫어한다.	1	2	3	4	5	6
11	나는 수학시간이 기다려진다.	1	2	3	4	5	6	35	나는 종종 혼란스러워진다.	1	2	3	4	5	6
12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잘한다.	1	2	3	4	5	6	36	나는 별도로 수학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6
13	나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때때로 거짓말을 한다.	1	2	3	4	5	6	37	나는 내 인생이 쓸모없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14	나는 독서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험은 잘 못 치른다.	1	2	3	4	5	6	38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1	2	3	4	5	6
15	나는 쉽게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	1	2	3	4	5	6	39	나는 영어성적이 좋다.	1	2	3	4	5	6
16	나는 수학에 관련된 것들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6	40	나는 쉽게 기분이 상한다.	1	2	3	4	5	6
17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중 옳은 일이란 없다.	1	2	3	4	5	6	41	나는 언제나 수학을 잘한다.	1	2	3	4	5	6
18	나는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	1	2	3	4	5	6	42	내가 정말로 노력만 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1	2	3	4	5	6
19	나는 영어공부가 쉽다.	1	2	3	4	5	6	43	나는 거짓말을 자주 한다.	1	2	3	4	5	6
20	나는 때때로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진다.	1	2	3	4	5	6	44	나는 나 자신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21	나는 수학공부를 재미있어 한다.	1	2	3	4	5	6	45	나는 침착하다.	1	2	3	4	5	6
22	전반적으로 내가 하는 일들은 훌륭한 것으로 밝혀진다.	1	2	3	4	5	6	46	나는 수학을 싫어한다.	1	2	3	4	5	6
23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시험 중에 커닝을 해도 괜찮다.	1	2	3	4	5	6	47	나는 전반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다.	1	2	3	4	5	6
24	나는 독해능력이 떨어진다.	1	2	3	4	5	6	48	사람들은 내가 옳은 일을 할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1	2	3	4	5	6

문항	내 용	응답						문항	내 용	응답					
		전혀아니다	거의아니다	약간아니다	약간그렇다	거의그렇다	아주그렇다			전혀아니다	거의아니다	약간아니다	약간그렇다	거의그렇다	아주그렇다
49	나는 영어 학습 속도가 빠르다.	1	2	3	4	5	6	76	나는 나의 외모를 싫어한다.	1	2	3	4	5	6
50	나는 어떤 일이든 걱정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6	77	나는 부모님과 말다툼을 많이 한다.	1	2	3	4	5	6
51	나는 스포츠나 춤을 즐긴다.	1	2	3	4	5	6	78	나는 거의 모든 교과목의 학습속도가 빠르다.	1	2	3	4	5	6
52	아무도 나를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9	나는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1	2	3	4	5	6
53	나의 부모님은 나의 성적에 대해 속상해하고 실망한다.	1	2	3	4	5	6	80	나는 남자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1	2	3	4	5	6
54	친구들은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5	6	81	나는 될 수 있으면 운동이나 체육시간에 빠지려고 애쓴다.	1	2	3	4	5	6
55	나는 동성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82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생겼다고 한다.	1	2	3	4	5	6
56	내가 좋아하는 이성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6	83	부모님은 나를 이해한다.	1	2	3	4	5	6
57	나는 운동이나 힘든 신체훈련 시에는 게을러진다.	1	2	3	4	5	6	84	나는 대부분의 교과목 성적이 나쁘다.	1	2	3	4	5	6
58	나의 얼굴은 잘생겼다.	1	2	3	4	5	6	85	나는 여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1	2	3	4	5	6
59	나는 부모님과 잘 지낸다.	1	2	3	4	5	6	86	나는 오랫동안 잘 달릴 수 있다.	1	2	3	4	5	6
60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만큼 똑똑하지 못하다.	1	2	3	4	5	6	87	나는 못생겼다.	1	2	3	4	5	6
61	나는 남자친구를 쉽게 사귄다.	1	2	3	4	5	6	88	나는 부모님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6
62	나는 이성들에게 인기가 없다.	1	2	3	4	5	6	89	나는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	1	2	3	4	5	6
63	나는 스포츠, 춤 등을 잘한다.	1	2	3	4	5	6	90	나는 좋은 동성친구들이 많다.	1	2	3	4	5	6
64	대부분의 친구들은 나보다 더 잘생겼다.	1	2	3	4	5	6	91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은 나를 싫어한다.	1	2	3	4	5	6
65	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92	나는 스포츠, 춤 등을 싫어한다.	1	2	3	4	5	6
66	내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면 우리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에 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1	2	3	4	5	6	93	나의 몸매는 멋있다.	1	2	3	4	5	6
67	나는 여자 친구를 쉽게 사귄다.	1	2	3	4	5	6	94	나의 부모님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	1	2	3	4	5	6
68	나는 이성친구들이 많다.	1	2	3	4	5	6	95	나는 거의 모든 과목 공부가 어렵다.	1	2	3	4	5	6
69	나는 스포츠, 춤 등을 못한다.	1	2	3	4	5	6	96	대부분의 여자 친구들은 나를 싫어한다.	1	2	3	4	5	6
70	나는 잘생겼다.	1	2	3	4	5	6	97	이성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1	2	3	4	5	6
71	나의 부모님은 나를 공정하게 대한다.	1	2	3	4	5	6	98	나는 대부분의 교과목 공부를 잘한다.	1	2	3	4	5	6
72	나는 대부분의 교과목 성적이 나쁘다.	1	2	3	4	5	6	99	나는 동성의 친구를 쉽게 사귄다.	1	2	3	4	5	6
73	나와 동성인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6	100	나는 대부분의 교과목이 공부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6
74	나는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1	2	3	4	5	6	101	나는 동성의 친구가 별로 없다.	1	2	3	4	5	6
75	나는 스포츠, 춤 등을 다른 친구들보다 잘한다.	1	2	3	4	5	6	102	나는 동성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6

< 청소년 행동평가 문제지 >

기 입 요 령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행동이 '자주 그렇다'면 2에, '가끔 그렇다'면 1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0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내 용	응답			문항	내 용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0	1	2	22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	0	1	2
2	알레르기가 있다.	0	1	2	23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0	1	2
3	말다툼을 자주 한다.	0	1	2	24	잘 먹지 않는 편이다.	0	1	2
4	천식이 있다.	0	1	2	25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	0	1	2
5	(남자인 경우) 여자처럼 행동한다. (여자인 경우) 남자처럼 행동한다.	0	1	2	26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0	1	2
6	동물을 좋아한다.	0	1	2	27	다른 사람에게 시샘을 잘한다.	0	1	2
7	자랑을 많이 한다.	0	1	2	28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그들을 돕는다.	0	1	2
8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힘들다.	0	1	2	29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학교는 제외)를 두려워한다. (구체적내용:)	0	1	2
9	어떤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구체적 내용 :)	0	1	2	30	학교에 가는 것이 겁난다.	0	1	2
10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다.	0	1	2	31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0	1	2
11	어른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0	1	2	32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0	1	2
12	외롭다고 느낀다.	0	1	2	33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0	1	2
13	혼동이 잘되고 갈피를 못 잡겠다.	0	1	2	34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0	1	2
14	잘 운다.	0	1	2	35	나는 가치가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0	1	2
15	나는 꽤 정직하다.	0	1	2	36	나는 사고로 잘 다친다.	0	1	2
16	남에게 못되게 군다.	0	1	2	37	나는 싸움을 많이 한다.	0	1	2
17	공상을 많이 한다.	0	1	2	38	놀림을 많이 받는다.	0	1	2
18	고의로 자해행위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0	1	2	39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0	1	2
19	관심을 많이 끌려고 노력한다.	0	1	2	40	환청 : 남들에게 안 들리는 것을 나는 들을 때가 있다. (구체적 내용:)	0	1	2
20	내 물건을 부순다.	0	1	2	41	생각해보지도 않고 행동한다.	0	1	2
21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0	1	2	42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문항	내 용	응답			문항	내 용	응답		
		전혀그렇지않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43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0	1	2	60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 좋아한다.	0	1	2
44	손톱을 깨문다.	0	1	2	61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다.	0	1	2
45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0	1	2	62	운동신경이 둔하고 움직임이 어색하다.	0	1	2
46	내 몸 일부가 움찔거리거나 신경질적인 몸짓을 한다. (구체적 내용 :)	0	1	2	63	내 또래보다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47	악몽을 꾼다.	0	1	2	64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48	다른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	0	1	2	65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0	1	2
49	어떤 일은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	0	1	2	66	똑같은 행동을 계속 되풀이 한다. (구체적 내용 :)	0	1	2
50	나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0	1	2	67	가출한다.	0	1	2
51	어지럼증이 있다.	0	1	2	68	고함을 많이 지른다.	0	1	2
52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69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0	1	2
53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0	1	2	70	환시 : 남들에게 안 보이는 것을 나는 볼 때가 있다. (구체적 내용 :)	0	1	2
54	매우 피곤하다고 느낀다.	0	1	2	71	나는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한다.	0	1	2
55	체중이 너무 나간다.	0	1	2	72	불을 지른다.	0	1	2
56	의학적으로 밝혀진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	0	1	2	73	손재주가 있는 편이다.	0	1	2
	1) 몸이 쑤시고 아프다	0	1	2	74	으스대거나 말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0	1	2
	2) 두통	0	1	2	75	수줍어한다.	0	1	2
	3) 메스꺼움	0	1	2	76	보통 아이들보다 잠을 적게 잔다.	0	1	2
	4) 눈의 이상 (구체적 내용 :)	0	1	2	77	보통 아이들보다 잠을 많이 잔다. (낮이나 밤에) (구체적 내용 :)	0	1	2
	5) 발진 혹은 기타 피부의 이상	0	1	2	78	상상력이 풍부하다.	0	1	2
	6) 배앓이 혹은 복통	0	1	2	79	나는 언어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 내용 :)	0	1	2
	7) 구토	0	1	2	80	내 권리는 지킨다.	0	1	2
	8) 기타 (구체적 내용 :)	0	1	2	81	우리 집의 물건을 훔친다.	0	1	2
57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0	1	2	82	우리 집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훔친다.	0	1	2
58	내 피부나 신체의 다른 부위를 뜯거나 후빈다. (구체적 내용 :)	0	1	2	83	필요 없는 물건을 모아둔다. (구체적 내용 :)	0	1	2
59	나는 상당히 붙임성이 있다.	0	1	2	84	남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행동을 한다. (구체적 내용 :)	0	1	2

문항	내 용	응답			문항	내 용	응답		
		전혀그렇지않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85	남들이 알면 이상하다고 여길 생각을 한다. (구체적 내용 :)	0	1	2	107	좋은 농담하는 것을 즐긴다.	0	1	2
86	고집이 세다.	0	1	2	108	나는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	0	1	2
87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하곤 한다.	0	1	2	109	힘이 닿는 한 남들을 도우려 노력한다.	0	1	2
88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0	1	2	110	(남자 경우)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 (여자 경우)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한다.	0	1	2
89	나는 의심이 많다.	0	1	2	111	남들과 한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0	1	2
90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0	1	2	112	나는 걱정이 많다.	0	1	2
91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0	1	2					
92	남들을 웃기기 좋아한다.	0	1	2					
93	나는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0	1	2					
94	남을 잘 놀린다.	0	1	2					
95	나는 성미가 급하다.	0	1	2					
96	성(Sex)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0	1	2					
97	남들을 신체적으로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0	1	2					
98	남들을 돕기를 좋아한다.	0	1	2					
99	청결, 정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0	1	2					
100	잠을 잘 못 잔다. (구체적 내용:)	0	1	2					
101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기도 한다.	0	1	2					
102	기운이 별로 없다.	0	1	2					
103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0	1	2					
104	다른 아이들보다 소란스럽다.	0	1	2					
105	술을 마시거나 치료목적으로 쓰는 것 이외의 약물을 사용한다. (구체적 내용 :)	0	1	2					
106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하려 애쓴다.	0	1	2					

※ 자신의 느낌이나 행동, 관심에 대해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래에 써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 위와 같은 문제들로 하여 전문가(상담소 혹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가본 일이 있으십니까?

□ 예 □ 아니오

없으시다면, 전문가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 예 □ 아니오

앞으로 전문가에게 갈 예정이십니까?

□ 예 □ 아니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학과	학 번	20057556	과 정	박사
성 명	한글: 전영희 한문: 田英姬 영문: Jun, Young-Hee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라인동산아파트 204동 401호				
연락처	sowha98@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 행동문제의 관계 및 관련 변인				
	영문 : Relationships and Related Variables of Self-Concept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가긴종료 3개월 이내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원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동의(○) 반대( )

2010년 8월

저작자: 전 영 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